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섬기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매월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품가산이 최고 3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한자리에 담긴 진리의 보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인근 골프장 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보(法寶)로 불자들의 귀의의 대상이며 세계인들도 문화유산으로 길이 지키려 하는데, 유독 문화대국을 자랑하는 우리만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 법보의 상징 팔만대장경을 왜 온존히 보존해야 하는지 또 그 가피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부처님 말씀에 경건하게 마음을 기울여본다. 〈편집자주〉

### 法의 창고를 가까이…

정법(正法)의 창고를 가까이하면, 온갖 노사(老死)의 괴로움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정법을 달갑지 않게 아는 경우, 그 사람은 악취에 떨어져 윤회의 바다에 가라앉으리라.
〈보살장정법경〉

부처님께서 이토록 미묘한 가르침을 설하사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시니, 이가르침은 매우 오묘하여 비길 바 없어 재앙을 제거한다. 이같은 법보(法寶)가 가장 수승하고 진실한 가침에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수호대천국토경〉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멸천신책경〉

정법을 호지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티끌 바 없으리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정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만약 정법을 따른다면 온갖 번뇌가 따르게 되리라.
〈제법집요경〉

부처님께서는 법보에 의거해 수행하사, 온갖 장애를 끊고 보리를 완성하심으로써 비로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살장정법경〉

부처님께서 이토록 미묘한 가르침을 설하사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시니, 이가르침은 매우 오묘하여 비길 바 없어 재앙을 제거한다. 이같은 법보(法寶)가 가장 수승하고 진실한 가침에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수호대천국토경〉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멸천신책경〉

정법을 호지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티끌 바 없으리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정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만약 정법을 따른다면 온갖 번뇌가 따르게 되리라.
〈제법집요경〉

부처님께서는 법보에 의거해 수행하사, 온갖 장애를 끊고 보리를 완성하심으로써 비로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살장정법경〉

비구가 다하도록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런 이유로 삼계의 여래들께서도 으레히 여러 바라밀과 불가사의한 법보를 존경하고 계시거늘, 항차 해탈을 얻지 못한 삼계의 온갖 중생으로서 어찌 불가사의한 법보를 공경치 않아도 되리?
〈심지장경〉

머리 조아려 정법장(正法藏)에 귀의하면, 능히 가없는 고뇌의 인(因)을 멀추게 하시며, 과실을 밝게 드러내 보여 중생을 개달음으로 이끄시어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례(頂禮) 하나이다.
〈해우경〉

아주 오묘한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고 비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매우 무거워서 오무간(五無間)의 온갖 죄업보다 더하다.
〈불모출생경〉

선남자야, 만약 사람이 법보를 방하게 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가 복이 줄어들고, 소경 · 귀머거리 · 벙어리 · 어리석음의 보(報)를 받으며, 늘 축생에 떨어져 뱀 · 노새 · 돼지 · 개 따위가 되느니라.
〈대학옥경〉

관련기사 18 · 19면

## 선학원
### 이사 6명 증원
### 행자교육 추진

# 대화 단절이나 분종 수순이나

(재)선학원이사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고 조계종 승적을 포기한 가운데, 최근 선학원이 "조계종의 조치에 구애없이 재단 자체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포해 종단과의 대화단절인지 혹은 분종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학원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종회와 집행부가 선학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현실적으론 종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인 설립취지에 따라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이날 이사를 6명 증원키로 하고 이사 선임에 착수했다.

이같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는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교육 및 선거권 박탈에 따른것으로 선학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재단발전추진위와 교육원건립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단발전을 위해 모금하고있는 기금이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재단 자체운영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종단에서 행자들에 대한 교육 거부로 속퇴하는 행자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계를 받지못한 40여명의 행자를 위해 금년 가을부터 자체 행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비구 강원과 비구니강원, 연수원부지로 묘관음사(경남 양산) 정각사(지리산) 태화사(경북 울산) 신광사(충남 조치원) 등의 부지에 대한 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학원의 움직임에 대해 조계종 호법부장 혜담스님은 "징계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다"며 "선학원관계자와 수일내에 만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혀 선학원문제에 적극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선학원은 5일 이사회에서 청소년포교를 위해 전국적인 불교청소년단체 '선재회'를 8월에 결성키로 했다.
〈이준엽 기자〉



**진신사리 이운**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동탑)과 나원리 5층석탑에서 1천3백여년만에 나투신 부처님 진신사리 69과와 사리구의 이운식이 지난 11일 장엄하게 봉행됐다. 덕수궁 문화재관리국에서 광교 · 보신각을 거쳐 조계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달말까지 일반에 공개 친견된다. 〈사진화보 12면〉

## 현대불교 인터넷 부다피아 '야후' 등록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야후'에 등록됐다. 주제어에 따라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서치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야후'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넷티즌이 정보검색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이다.

야후에서 부다피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채택한 방식은 '다단계 접근 방식'으로 'korea buddhism'(한국 불교) 'korea seon'(한국 禪) 등의 주제어를 사용해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야후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한국종교 관련 웹사이트는 현재 기독교(22개), 불교(1개), 무속신앙(1개) 등 총 24개이다.

## 15대 정각회 회장에 서석재의원

### "불교현안해결 최선"



◇서석재의원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는 지난 10일 국회정각선원에서 제15대 국회정각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만장일치로 서석재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회에는 39명의 회원중 김명윤 김태호 황규선(신한국당) 박상규 한영애 박찬주(국민회의) 정상구 조영재(자민련)의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박헌기의원(신한국당)을 선출했다.

회장에 선출된 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불교현안들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라며 "정각회원들은 2천만 불자의 대변자로서 여야 구별없이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81년 11대에 국회에 진출한 이후 내리 5선을 기록한 서의원은 민주당 당기위원장 사무총장, 민자당 당무위원, 총무처장관, 14대 국회정각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사 명예회장으로 신행활동에도 적극적이다.

## 소비자 보호위원회 18일 총지사서 현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가 주최하고 총지종이 주관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 총지종법장원장)가 오는 18일 오후2시 총지사에서 현관기념식을 갖는다.
〈관련기사 83호 1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불교계 최초의 소비자보호 운동기구이다.

# 문화재 관람료 인상폭 낮아질듯

##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관람료위원회 소집요청

전국 24개 문화재관람료 · 자연공원입장료 합동징수사찰주지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람료를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지난 6월 28일 관람료위원회가 대폭 인상한 문화재관람료 인상폭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징수사찰 주지들은 10일 회의를 갖고 "관람료관리법의 발효시기문제와 당해사찰주지들이 인상 재조정을 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람료위원회를 소집해 재결의하고 교육적차원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공원입장료의 비율에 맞추어 관람료를 조정해 줄 것"을 관람료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합동징수사찰주지들은 △공원입장료중 30%를 문화재보수지원 및 토지이용료 손실보상명목으로 해당사찰에 지급할 것 △관람료와 입장료 합동징수를 관련법령에 명문화 할 것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의 공원입장료를 면제할 것 등 자연공원 관련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행을 강력촉구했다.

이에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8일 9일 양일간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실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자연공원관련 대정부 현안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관람료인상은 불가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합동징수명문화와 문화재보수비지원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신도증소지자의 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 대해 "당해 사찰신도에 한해서만 공원입장료를 면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관람료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2시 제2회 관람료위원회를 개최한다.

##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원력스님



◇송병욱상무

**동참해주신 분**

△석구 정방사주지: 제천고 제천여고(2구좌) △원력 덕운사주지: 대전 갈마중(1구좌) △송병욱 불교방송 상무: (1구좌) △어상훈 중앙일보편집부장: (1구좌) △양형진 고려대교수: 부천 상도초등학교(1구좌)
〈7월11일 현재 총 360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용골불교가 복원된다" 18면
여름특집 불자 여름보내기 베스트10 8면
그 절에 가고싶다 9면
인터넷 지상법석 10 ·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의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효능 · 효과 : 피로회복,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 · 용량 : 1일1병 1~2회
医藥品

일양약품

## 사 설

# 국회 정각회의 숙제

이번 15대 국회는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20세기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태의연한 정치형태의 청산과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총선으로 1백38명의 정치신인들이 원내에 진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등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징표였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할일이 많고 기대가 큰 전환기의 15대 국회에 40여명의 불자의원들이 정각회회원으로 의정생활과 신행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국정의 감시자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이 나라 최고정치지도자들의 불교신행단체인 '정각회'에 우리 불자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름만 가진 정각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던 불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바램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정각회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불자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생활에 임해야 하겠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무엇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 소신과 국민에 대한 공약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부터 모든 정치활동을 펴나아가야 한다.

부처님은 불교적 청렴과 정직의 덕목을 바탕으로 솔선수범 자비실천의 윤리를 강조하셨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 나오는 전륜성왕의 정치지도자상을 모범으로 삼아 도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각회의 조직을 좀더 젊게 활성화하고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젊은 새세대 불자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몇몇 명망가들의 얼굴내기식 조직은 민주화·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화두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울러 통일·환경·문화·민생·여성·법제 등 각 분야별로 소규모 분과모임을 만들어 연구와 활동을 내실화해 나아가야 한다.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소그룹 활동은 절실히 필요하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각회 불자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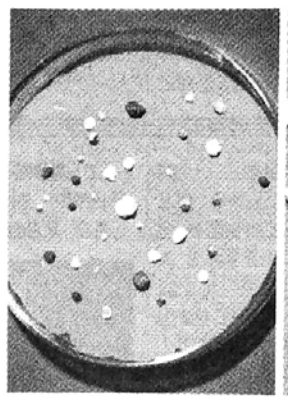
셋째, 불교계의 권익옹호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계승·발전에 앞장섬으로써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각종 불교관계 약법으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탄압과 규제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각종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특정종교를 지원하는등 편향적 종교정책으로 불교가 무시당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27법난, 국정·검인정교과서에 나타난 종교편향정책, 각종 훼불사건, 잘못된 문화재·공원정책, 각종 불교문화유산의 파괴, 대통령국방부예배사건 등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례가 공표되었는가.

넷째, 다른 불교신행단체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교수·법조불자들과 함께 불교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대학생불자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의 정치지도자들을 양성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당부한다. 정각회가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의 산소가 되고 민주통일정토를 앞당기는 기수가 되길 기원한다.

# 열린마당

## 사리신앙

지난 11일 부처님이 서울 복판에 출현하셨다. 감은사와 나원리 석탑에 봉안되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1천3백년만에 나들이를 한 것이다. 부처님열반 이후 사리는 신앙의 상징으로서 신심을 붇돋아 왔다. 무엇이 사리신앙을 2천여년 이어오게 했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입적한 회광 일각스님(사진 왼쪽)과 일붕 서경보스님의 다비에서 오색 영롱한 사리를 수습했다.

### 부처님공덕 기리는 대상…기복조장 삼가야

**유진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사리는 단순히 사리일 뿐이다. 신비화 한다거나 초월적인 무엇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여기하기 어렵지만 일부에서는 '상설전시'하듯이 사리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가 자칫 사리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참배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복을 조장하듯이 한다면 문제이다. 부처님 열반 후 인도의 여러 왕들이 사리를 모셔 탑을 세운 뜻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따르고 그 공덕을 기리고자 했을 뿐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물론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기복을 사회적 욕망으로 대치하는 시각이 문제이다. 기복은 모든 종교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듯이 신앙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넓게 봐서 깨달음의 추구도 일종의 기복이다.

문제는 회향이다. 부처님은 모든 공덕과 덕복의 화신이다. 회향의 원력을 세우는 신앙의 자세이면 사리를 두고 무슨 논란이 일겠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회향의 계기로 삼을때 사리는 그 무엇이 아닌 사리일 수 있다. 따라서 사리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 호기심 버리고 남기신 수행·가르침을 봐야

**정승석**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사리는 성철스님의 열반으로 각별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불교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성철스님의 다비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다비후에 추려낼 사리(舍利)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었다.

스님의 무궁한 정진과 도력만큼이나 수많은 영롱한 사리가 나와 세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그것은 불교의 진리와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접근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골의 결정체로서의 사리가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원래 부처님 육신의 애착에서 비롯된다. 즉 다비후의 유골이 바로 부처님 생존시의 육신과 같은 것이며 그 유골속의 영롱한 결정체는 진리의 빛인 부처님 그 자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스님의 다비뒤에 나오는 낟알의 결정체인 쇄신사리만 사리로 인정하지만 한 스님이 입적하기전 모든 바른 가르침과 위덕이 사리로써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쇄신사리 자체에만 천착하여 신앙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의 지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사리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한낱 속인의 호기심과 다를 바 없게 될지 모른다.

### 쇄신사리로 수행승 법력 평가는 어불성설

**강래철** 〈춘천불교청년회장〉

불자들은 대부분 사리에 대해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같다. 스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사리는 얼마나 나올까하는 결과물에 모든 이목을 집중한다. 이렇게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사리는 언젠가 수행승의 법력을 굉가하는 잣대가 되었고 신비의 대상으로 불자들의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심지어는 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다비후의 사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높다는 것에서도 사리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큰스님이다, 큰스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불자들의 사리관은 긍정적일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리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부처님의 정법이 비법으로 전락되고 신행의 방법까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전통적 장례법인 다비에 의해 수습된 사리가 불교의 발전과 신행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리의 수만을 놓고 큰스님이다라고 판단하려는 것은 올바른 불자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 사리신앙의 유래

## 사리 8분 불탑신앙서 비롯

### 신라 자장율사가 진신사리 국내 봉안

사리는 범어(梵語)의 'Sarira'를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것으로, 불교에서는 석가의 신골(身骨)을 뜻한다.

사리의 유래는 석가가 기원전 480년(일설에는 386년)에 인도 구시나가라의 사라쌍수 밑에서 80평생을 마치고 열반하자 제자들이 인도의 장법(葬法)에 따라 다비(화장)를 하였는데 이때 나온 유골을 사리라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성골(聖骨)을 영원히 봉안하기 위하여 세워진 축조물이 탑파이며, 이때 나온 사리는 주변의 여덟 나라에 분배되어 각각 이것을 봉안하기 위한 불탑이 세워졌다. 이 일을 '사리8분(舍利8分)' 또는 '분사리'라고 한다. 이때부터 사리신앙 사상이 싹트게 되었고, 더불어 불탑의 기원도 시작된다.

부처님의 유골(진신사리)은 대체로 탑에 봉안하고 고승의 유골(승사리)은 부도에 봉안되어온 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549년으로, 양무제가 심호로 하여금 진흥왕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사리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불교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인물은 신라의 자장율사로 알려지고 있다. 선덕왕12년(643년)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두골과 불아(佛牙), 불사리 백매, 부처가 입던 비라금점가사 한벌을 가져 와, 사리는 셋으로 나누어 황룡사 구층탑, 태화탑, 통도사계단에 각각 두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리신앙이 태동하게 되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후대에 이르면서 수행과 덕행이 뛰어난 고승들이 열반하여 다비를 하고, 사리를 수습하여 사리탑을 세우는 것이 정형되었다. 또 사리탑을 건립하거나 사리에 공양하면 무량한 복덕이 있다고 권장하여 사리신앙이 보편화되었다. 맹목적인 숭배와 신앙심을 경계해 운허스님과 전강스님은 다비후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하대 분석화학실에 의해 방사성원소인 프로트악티늄(Pa)과 핵융합원소로 쓰이는 리튬(Li) 등 12종이 검출되면서 "기가 농축된 것으로 수행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 현대만평

박구원




인과가 무섭지도…

## 목어

일부 기독교인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화폐가 불교 편향적이라며 화폐도안 변경을 요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1만원권의 용과 연꽃, '卍'자 문양, 5천원권의 봉황, 5백원짜리 동전의 학,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도 불교상징물이라는 것. 이들 기독교인들은 지난 2월에도 '현재 우리나라 화폐 도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는 그 민족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상징의 숲'이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의 머리말이다. 이 사전

### 1600년과 100년의 차이

항목속에는 기독교인들이 불교상징물이라고 주장하는 '용' '연꽃' '봉황' '학' '탑'도 들어있다. 이 사전풀이에 의하면 상상의 동물 용은 호국·호법신이다. 따라서 군왕과 자연스럽게 결합돼 있음을 나타내었다. 용안, 용상, 곤룡포 등이 그것이다. 신이한 영물 용은 길상·행운·입신출세를 상징한다.

봉황역시 상서로운 상상의 새다. 용과 함께 황후와 황제를 상징하며 현대에는 대통령의 문장으로 사용한다. 태평성세 경사 평화 영생불사 등을 나타내는 이 새는 성모마리아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도 상징한다. 이쯤되면 기독교인들은 돈만봐도 미안해질 것 같다.

신성 기품을 뜻하는 학은 오히려 유교 또는 도교적이다.

연꽃이 불교상징 꽃이고 탑이 불교건축의 하나이지만 이미 거기에는 민족의 숨결과 심성이 스며있다. 이제와서 수천년 이어져온 문화의 앙금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묻고싶다. 기독교인들은 한국인이 아니냐고. 햇여 1천6백년 한국 불교역사와 1백년 한국 기독교사의 차이에서 느끼는 열등의식이라면 이제라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고 기독교계는 이러한 일부 기독교인들을 설득, 그렇지않아도 어수선한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파문이 일지 않도록 미리 선처해 주길 당부한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숫타니파타〉

협찬 보현사 주지 혜화 TEL.(0557)645-6448

# 인 사 말 씀

귀의 삼보하옵고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경보 대종사 께서 지난 6월 25일(음5·10)오전 11시 40분 세계불교법왕청 법왕실에서 입적 하시고 7월 1일(음5·16) 동국대학교 대운동장과 경남 의령 일붕사에서 세계불교 법왕청장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수행정진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참례하여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월하 대종사, 찬다난다 대승왕, 전 대한불교조계종정 서암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석주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큰스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 큰스님, 각 종단원로 대덕스님, 세계각국의 조문사절과 정계·학계·교계·재계 등 사회 각계 대표와 사부대중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오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舍利親見法會및 四十九齋안내

지난 7월 1일 전 세계불교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하였고, 일붕 큰스님은 우리에게 영롱한 법신사리 100과를 남기셨습니다. 큰스님의 법신사리를 사부대중이 참배하도록 오는 8월 12일(음6·28) 월요일 오전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법왕청(일붕선원) 대법당에서 49재를 봉행하며 친견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배있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의 49재는 오는 8월 12일(음6·28) 월요일 오전 10시 법왕청(일붕선원)에서 봉행합니다.**

불기 2540년(1996). 7. 5.

**一鵬 京保 大宗師 世界佛敎法王廳葬 葬儀委員會**

共同法王 찬다난다(스리랑카 僧王)
葬儀委員長 서암 大宗師
門徒代表 정관 合掌

# "원형보존 최선…성역화 해야"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5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마애선각육존불
이호신 作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 남산성역화가 보존의 유일한 대안이다.

특별기획

## 경주남산 재조명

## 돌하나에도 조상의 숨결…"개발 행정에 불안"

## 공단·불법분묘·산림훼손 사전억제책 절실

남산이 지닌 불교적·역사문화적 가치는 지대하다. 금오봉과 고위봉 자락에서 흘러내린 40여개의 계곡에 115곳의 절터,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보물 지방문화재 등 35점의 문화재가 집중된 곳은 유일하다. 불교신앙의 원형이 간직된 곳이다. 또 유물유적의 성립시기도 6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러 약 4백여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밝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주남산이 국립공원과 사적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곳이라는 사실도 전혀 의아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관리와 브전의 기본자료가 되는 내방객수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3명의 인원(청소원 6명, 관리인 7명)으로는 104㎢에 40여개 계곡으로 이루어진 전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고속철 우회 안심못해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본래의 생명을 잃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된 경주의 다른 곳과 달리 관심권밖에 머물러 원형의 훼손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관리부재의 틈을 타 각종 유물유적의 원형훼손, 산림훼손, 불법분묘의 설치, 무분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남산이 지닌 문화유적의 가치를 훼손할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가 남산을 빗겨간다면 1천3백여년의 조상들의 신앙과 예술 삶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남산의 파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경주도심통과를 막아냈지만 아직 남산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남산을 뚝 떼어내어 서울의 종로에 옮겨놓으면 남산일 수 없듯이, 남산주변에 남산의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것도 또한 남산일 수 없습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 신경준 홍보부장의 지적이다.

남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같이 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 희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도 아니다. 문화유적의 보고라는 점에서 국립공원과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남산만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유일의 사적(史蹟) 국립공원이다.

남산의 석불 석탑은 인공조형물이면서도 남산과 절묘하게 어울리도록 조형되어 있다. 자연바위를 석탑의 기단으로 삼아 세운 것이라든가, 부처님 머리 부분은 선명하게 돋을새김하면서도 선으로 처리한 마애석불은 최소한의 인공으로 신앙심과 예술성을 표현해 자연과의 친화를 극도로 드러낸 걸작이다. 따라서 주변환경이 반 남산적인 것으로 둘러싸인다면 남산의 가치는 사라지고만다.

남산사랑모임 김덕수 회장은 인근의 울산지역 공단이 남산주변에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남산은 그 면모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산에 포함되면서도 자연경관 보존지구에서 제외된 동남쪽의 외동읍에 공단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울산은 평당 토지가격이 200만원에 이르는데 이곳은 9만원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남산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 지적에는 개발논리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립공원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과 52호 장경각이 있는 해인사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권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 계획 대부분은 지방재정 수익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주남산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남산은 불교의 성지이다. '겨레의 땅 불자의 땅'이다. 지난 80년 결성, 4차에 걸쳐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대회가 치뤄졌다. 당시의 성역화결사 결의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남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답변을 담고 있다.

"우리는 경주남산의 불적이 겨레의 가장 성스러운 자산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유기되어짐으로써 그 존귀한 가치가 침식되어 민족적 문화유산의 손실은 물론 우리 불자들의 신앙심에 오욕의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에 성역화 결사를 결쳐 신앙의 구심점으로서 민족정신의 뿌리로써 봉헌코자 한다."

당시 성역화결사본부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형균씨(불지사 대표)는 "20여 불교단체가 모여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본부를 구성하고 △불적의 연구와 조사, 파손된 불상과 탑 사찰의 복원 △매년 3월3일과 9월9일을 경주남산 순례의 날로 정하고 불자들의 합동순례 실시했다"며 "오래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남산성역화는 지금도 남산보호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후손에게 부끄러워서야

3월3일은 신라 충담스님이 남산 삼화령에서 부처님께 차공양을 바친 날을 기념한 다례행사로, 이후 부처님마을과 신라문화원 등 경주의 남산보호단체들이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매년 봉행해오고 있다.

윤경렬 선생은 남산의 보호방안에 대해 "현재 상태로의 보존이 최선"이라며 "원형복원이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연구성과와 조형 능력으로 또는 돈이 없어서 이만큼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남산은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조사가 선행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인류의 보배를 만든 조상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야 어찌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경주=정성운 기자



◇남산은 '겨레의 땅 불자의 땅'이다. 그러나 개발의 논리에 남산은 불안하다. (91년 4월 열린 제4차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대회)

## 시론

# 딸가진 어머니의 불안

며칠 전 보도된 세 어린 소녀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타락한 성도덕, 극심한 이기주의, 성차별 등등의 총체적 사회문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그 나이 또래의 여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어린 학생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가슴아프다.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암담하고 외로웠을까…. 피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무관심과 방치가 잔인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없고 죄스럽다.

### 우리사회 어디로 가고있나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수업중 출산한 여중생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동시에, 10대의 문란한 성도덕과 학교성교육의 부족 등을 지적함으로써 무분별한 10대를 개탄하고 성교육의 부실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치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다.



이 영 란
〈숙명여대 교수·법학〉

정부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바빠졌다. 학교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에 성교육과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과목을 신설하거나 현재 체육시간에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시간을 늘리고, 또 성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자료를 전국 각급 학교에 무상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을 떨고 있다.

물론 학교성교육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학교에서 성교육을 잘 시킨다고 성폭력 피해여성이 줄어들고 견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대증요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자세와 문제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언론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공격성, 폭력성이 생물학적, 생리적 근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하고, 다수의 범죄학자들 역시 폭력범죄의 원인이 유전적 원인보다는 환경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한다.

전문가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폭력환경이 폭력범죄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폭력이 허용되고 묵인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할 것 없이 폭력이 관습이나 문화처럼 되어버렸고,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 유치원 원장의 집승같은 짓에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성폭력이 격증하여 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다. 그 결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의 불안은 곧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여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매일저녁 딸의 귀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나마 돌봐줄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좀 낫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은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어디 성폭력 뿐인가, 학교폭력도 심각하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2천9백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49.8%, 여학생의 38.5%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폭행당한 학생 중 무려 65.5%가 폭행사실을 주민에 알리지 않고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피해자가 되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냉혹한 이기주의의 벽에 갇혀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

### 폭력환경부터 척결해야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워 해야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말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니 사회복지니 하지만 항상 말 뿐이고 일과성이고 전시적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환경을 척결하고, 퇴폐향락산업을 규제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성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도 법의 보호 밖에 버려져서는 안되며,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권리, 성폭력의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창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一鵬門徒會 召集公告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6월 25일 은사스님의 입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원했던 은제자 문도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하였으나, 황망중에 정담도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은제자 문도들은 흩어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은사님의 크신 생전의 원력과 유지를 바르게 봉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법왕청(일붕선원)에서 1965년도에 출발한 일붕문도회(은제자와 그 직계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를 하오니 개개인에게 통지하지 못하고 지면으로 공고하게 된 사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은제자 및 그 직계제자 문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1996년 7월 15일(음6·30)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법왕청(일붕선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우스님(02-379-2635)과 동성스님(02-736-258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1996). 7. 5.

일붕문도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
대표 정관 合掌



# 聲 明 書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신 일붕 서경보 대종사님께서 지난 6월 25일입적하시므로 세계불교법왕청 회원국 22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불교도가 일붕 큰스님의 업적을 애도하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 영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하였으며, 일붕 큰스님은 영롱한 법신사리, 100과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불교법왕청 한국본부에서는 전통불교의식에 따른 49재를 여법히 봉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불교법왕청은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 일붕 큰스님의 49재 이후 합법적인 수순절차에 따라 한국 본부의 입장을 밝힐예정입니다.

그러나 작금 우리국내 일부에서는 초대법왕 일붕서경보 스님의 업적을 기화로 2대법왕을 추대한다고 운위하면서, 일부언론에 까지 보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전에 성자처럼 꼿꼿한 정진력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신 일붕 큰스님의 悟道的 삶을 차마 욕되게 하는 작태 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한국불교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불교법왕청은 금번 사태에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사태가 세계불교법왕청과는 전혀 무관함을 전세계 불교도 및 우리국내 사부대중에게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들은 僧伽的인 양심에 따라 참회를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자중할 것을 통보하며 만약 改悛의 정이없이 동 성명서를 외면하고 무지한 작태를 계속할 시에는 부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0(1996). 7. 8.

세 계 불 교 법 왕 청

한국사무국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5-5호(낙원빌딩503호) 전화(02-745-1590)/팩스(742-1590)
스리랑카사무국 : 70-plrivena road, Mt-Lavimia SRILANKA tel 593902, fax 593901

공동 사무총장 김 광 태 (한 국)
공동 사무총장 위풀라사라 (스리랑카)

## 법회 안내

보현불교대학(051)244-3481

고승대덕초청 강좌법회
매일 오전11시
7월 20일 암도스님
21일 보현스님
22일 정우스님
23일 무진장스님
24일 반월스님
25일 성법스님
26일 상훈스님
27일 회암스님
28일 월강스님
29일 천운스님

달마사(02)521-500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서예법회 매주 목·금 오후2시

호압사(02)803-4779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사자암(02)825-1046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학생법회 매주 일 낮 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정토포교원(02)737-0853

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30분
아미뜻다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청년정토법회 수 오후7시30분
거사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토회랑단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라훌라(중고등) 매주 일 오전8시

원각사(0392)33-389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마회 매월 14·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 10일 오후7시
거사림회 매월 둘째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연대선원(0417)551-2010

일반법회 초·보름(음)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월 오후8시

문수사(042)282-5918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법회 둘째, 넷째 일 오후7시
신도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디지털불경 공동 제작
### 혜묵·선우 스님





## "모든 경전 CD롬에 담겠어요"

"올해안으로 법구경과 백유경 등 10여종의 경전을 담은 '디지털 불경 2·3'을 계속해서 펴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불교성전, 숫타니파타, 밀란다왕문경을 CD롬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 일반인들도 불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 불경1'을 펴냈던 혜묵스님(불교문헌자동화연구소, 사진 왼쪽)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우스님(美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주지)은 내친 걸음에 모든 경전을 CD롬에 담아 안방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열의를 내비쳤다.

현재 입력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경전선정과 효율적인 자료배열 등의 부수적인 일만 남겨놓고 있다는 혜묵스님과 선우스님은 다단계의 검색프로그램을 통한 완벽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명우 기자

'체험 삶의현장' 출연
### 송석구 총장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지난 15일 KBS1 TV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해 범종 만들기에 도전했다.



### "일천배 심정으로 범종 만들었죠"

경기도 평택 범종사 공장에서 에밀레종을 빼닮은 무게 2톤, 길이 2m의 대형 범종을 만든 송총장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진흙을 다지면서 종장의 잔소리를 들기도 했다"면서 "마지막 작업으로 녹인 쇳물인 횟물을 종틀에 붓는 순간만큼은 일천배하는 심정으로 종장과 일심동체가 됐다"고.

## "교양대학 각종학교 인가 추진"

전국불교교양대 대표자협
### 김 재일 대표



"포교원이 이번에 제시한 학제, 학사일정의 통일안과 포교사의 선발 관리안은 각 교양대학의 지역여건과 운영현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5일 양일간 개최된 조계종 등록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에서 결성된 '전국 불교대학 대표자협의회' 대표 김재일씨(동산불교대학)의 지적이다.

조계종 포교원과의 원활한 협의, 불교대학간의 정보교류,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창구로써 역할을 담당키 위해 구성된 협의회는 45개 교양대학이 참여하고있다.

"교육체계의 틀을 잡아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체계를 잡기위해서는 포교원과 각 교양대학간의 의견교환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재일씨는 포교원과의 유대강화, 교양대학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함께 "교양대학의 각종학교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 "부처님 가르침 생활속에 구현"

MBC 불교연구회 창립
### 유 희 근 초대회장

"처음 몇몇 사람들에게 불교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정서에 잠재되어 있는 불교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 7일 봉선사에서 창립법회를 겸한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MBC불교연구회의 유희근회장(해설위원)은 창립까지의 어려웠던 과정보다 불교가 지닌 넉넉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1년에 두차례 성지순례와 매월 한번씩의 정기법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봉행할 것입니다." 82년 한국기자상 부상으로 받은 여행권으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불교성지 순례를 한 유회장은 "그때의 감동이 언젠가는 불교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서원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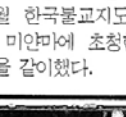
5월부터 창립준비에 들어가 42명의 도반을 한데 모으는 성과를 이뤘냈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운 기자

## 교 차 로

### 사랑의 나눔 바자회



보각스님(삼전종합복지관 관장)은 오는 9월 18일, 19일 양일간 복지관에서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에 스님은 바자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인 또는 제조업체등의 물품후원을 기다린다고.

### 해인사 주지 임명장 받아



성법스님은 지난 8일 총무원에서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임명장을 받았다. 스님은 그동안 주지 직무대행으로 일해 왔다.

### 24일 불교 진흥원서 법문



혜담스님(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은 오는 24일 오후2시 (재)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에서 법문한다.

### 미얀마 대사와 교류협의

법혜스님(한국·미얀마 친선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주한 미얀마 우폰민대사와 만나 문화 경제 종교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합의하고, 오는 11월 한국불교지도자 2백여명을 미얀마에 초청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PC·인터넷 공개교육

혜계스님(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는 지난 14일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지원 청년불자를 대상으로 'PC사용 및 부디피아 인터넷 접속방법' 등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 역사 바로알기 수련대회



혜진스님(나눔의집 원장)은 오는 8월3일~4일, 8월10일~11일 두차례에 걸쳐 역사바로알기-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름수련대회를 나눔의집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 전승련 대의원 총회

부겸스님(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회장)은 지난 18일 조계사내 교화사무국에서 제3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진흥원 이사장에 유임



서돈각박사는 지난 8일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에 유임됐다.

### 문화재연구소장으로 승진



김동현씨(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장)는 지난 10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으로 승진, 임명장을 받았다.

### 자원절약 자원화 캠페인



박윤흔씨(한국자원재활용운동본부회장)는 오는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제15대 국회의원 및 직원들에게 재생지 명함과 재활용 세탁비누, 환경책자를 증정하는 자원절약자원화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 불교청소년운동돕기 모금



명호근씨(대불련총동문회 이사장)는 대불련동문 및 불교청소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02)723-9811

### 보르헤스 문학 강연



김홍근씨(문학평론가)는 17일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에서 주최한 문예아카데미 행사에서 '보르헤스:포스트모더니즘의 비조'를 강연한다. 김씨는 본지에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연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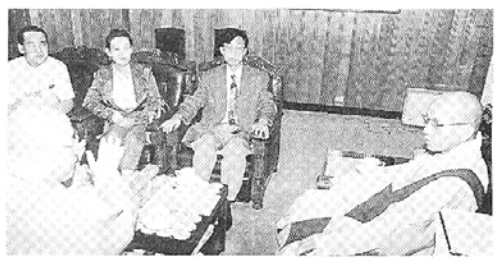
### 방산불교회 임시총회



이양길법사(직지사 연수원장·방산불교회 회장)는 지난 4일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방위산업체 불교신도들로 구성된 방산불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 인 사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박부권



## 월주스님, 연길 '민족종교위' 일행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5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가 초청한 중국 길림성 연길시 민족종교 사무위원회 부단장 주진우씨, 과원 리선씨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를 잘 살피고 돌아가 양국간의 불교우의에 밑거름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대구·경북 불교방송 후원법회 성황

대구·경북불교방송 설립 후원법회가 지난 5일 대구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5개본사 주지스님을 비롯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불교방송은 이달말경 대구연주소와 팔공산송신소가 완공되고 진각회관에의 지국입주가 끝나면 9월안으로 시험전파를 발사할 예정이다.

## 게시판

▲한악무료보시=화생당 한약방(약사 청법스님)은 오는 8월15일까지 위장질환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을 무료 보시한다. (0343)72-4283

▲불교기초강좌=대구구도회는 오는 22일부터 8일간 구도회 법당에서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교수(동국대) 근일스님(부석사 주지)을 초청, 제41회 불교기초과정 강좌를 개최한다. (053)654-8533

▲후원자 모집=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비의 집(지부장 무공스님)은 무의탁 불우노인 무료급식소로, 허기지고 지친 이웃들을 위해 쌀·현금기탁자 자원봉사자 등 후원자를 모집한다.(053)255-3248

▲불교문화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오는 28일 오전8시 무등경기장 건너편 주차장에서 이순규 법사를 안내자로 함양 장수사, 거창박물관등의 코스로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28-9098

▲문체부, 우수학술도서 지원=지원대상은 95년 9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발행된 초판도서며, 선정분야는 총류 역사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지원금은 1종당 2백50만원이며 50종 내외가 지원된다. 7월31일까지 출판금고사무국서 접수. (02)732-1434

▲수강생모집=수효사(주지 무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성훈따주기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02)313-3037

▲문화기행=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오는 8월1일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김제 망해사 등지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마감은 오는 20일까지. (051)466-4080

▲여름수련대회=까치마을(촌장 법전스님)은 7월21~24일, 7월24일~27일 여름수련대회를 연다. 장소는 김천북암 연수원. (02)838-3385

▲어린이 불교학교=조계사(주지 현근) 어린이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한다. 여름캠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전주 송광사에서 실시한다. (02)736-9043

▲사십이장경 법회=대한불청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매주 금요일 저녁7시30분~9시까지 간해교육원에서 '사십이장경' 법회를 실시한다. (02)730-9108

부음 안병호씨((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총재)가 지난 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안씨는 청교련 초대회장, 이사장등을 역임, 청소년 교화사업에 전념해 왔다.




## 『韓國의 佛畵』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간행 계획

1. 규 격 : 타블로이드판형(25.7 x 34.8cm)
2. 면 수 : 250쪽 내외(각권 130여점의 탱화 수록)
3. 제 작 : 전면 컬러, 양장
4. 발행기간 : 1995년 10월 ~ 2005년 12월
5. 발행권수 : 全 40여 권 예정(전국 교구 본사 소장 탱화, 국내외 국공립 박물관 및 개인 소장 탱화)

### 수록 내용

1. 각 교구별 불화 / 後佛幀·菩薩幀·神將幀·掛佛·各部幀·影幀·道場莊嚴
2. 부 록 / 각 불화의 畵記, 한국불화에 관한 논문 각권 1편씩 수록

### 「韓國의 佛畵」 편찬위원

朴石鼎 / 善住山房 佛母, 重要無形文化財 第48號 丹靑匠
黃壽永 / 東國大 總長(前), 大韓民國 學術院 會員
韓炳三 / 國立中央博物館長(前), 文化財委員
鄭永鎬 / 韓國敎員大 國史學科 敎授 兼 博物館長, 文化財委員
吳潤植 / 東國大 歷史敎育科 敎授 兼 博物館長, 文化財委員
張忠植 / 東國大(慶州캠퍼스) 博物館長(前), 東國大 考古美術史學科 敎授
李頂宇 / 通度寺 布敎堂 九龍寺 住持, 聖寶文化財硏究院 理事長
金梵河 / 通度寺 聖寶博物館長, 聖寶文化財硏究院長, 文化財委員

모연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 연구원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모연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본 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서울 중구 묵정동 18-27 대학문화원 305호, 전화 (02)275-6830, 팩스 (02)275-6831

### 「韓國의 佛畵」 刊行을 위한 募緣文

학국의 사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은 그 속에서 사장된 채 알게 모르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불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은 우리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 발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본 연구원에서는 수년에 걸쳐 전국의 교구 본말사를 중심으로 불화의 보수와 함께 조사 정리를 기하여 왔습니다. 상당수에 달하는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이미 조사된 불화들이 본래의 장소에서 망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조사된 자료를 집대성하여 『한국의 불화』로서 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 전국의 불화를 집대성함으로써 전문학자의 참고는 물론 불자들의 신앙심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선인들이 이룩해 놓은 빛나는 전통을 잘 보존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교문화의 선양과 보존을 위한 보람찬 이 불사에 다함께 동참하시어 선조의 문화유산을 자손만대에 전하고, 이 인연공덕으로 자타가 성불하시기를 간곡히 발원합니다.

불기 2540년 7월

社團法人 聖寶文化財硏究院 理事長 頂宇 / 院長 梵河 合掌

韓國 傳統繪畵의 精髓, 5千餘点 幀畵의 集大成

# 韓國의 佛畵

### 1996년 7월 현재 간행 목록

韓國의 佛畵 1 通度寺 本寺篇 上(96년 1월 간행)
韓國의 佛畵 2 通度寺 本寺篇 中(96년 3월 간행)
韓國의 佛畵 8 直指寺 本末寺 篇 上(96년 3월 간행)
韓國의 佛畵 9 直指寺 本末寺 篇 下(96년 3월 간행)

### 근간 예정

韓國의 佛畵 3 通度寺 末寺篇 下(96년 10월 간행 예정)
韓國의 佛畵 4 海印寺 本末寺篇 上(96년 12월 간행 예정)
韓國의 佛畵 5 海印寺 本末寺篇 下(96년 12월 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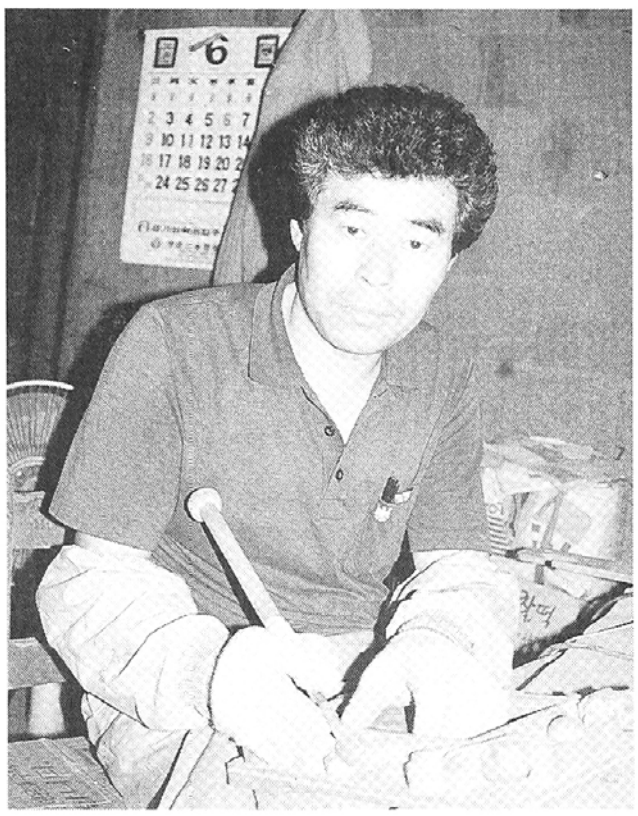
한국의 불화 400여권 중 이미 간행된 불화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낱권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급가 / 각권 70,000원
보급처 / 동국역경
(☎ 269-6746, 269-2972)

# "돌의 성품 다 버려야 진짜 벼루"

## 산문밖의 禪

紫石벼루제조 **신명식** 씨



## "돌을 달래며 칼질하다 보면 마음조차 잊어버려요"

## 돈욕심 버리고 '명품만들자' 생각하니 심미안 열려

도도히 흐르는 영춘강과 천길 병풍으로 버티고 선 암벽들이 절경을 이룬 마을.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선 마을을 에워싼 경치에 감복을 한다. 그 다음으로 감탄스러운 것이 이 마을에서만 나는 자석(紫石) 벼루다. 흔히들 벼루하면 오석벼루를 연상하지만 붉은 빛을 내비치며 강직한 성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자석벼루다.

### 20살부터 붉은돌 인연

"시절인연에 따라야죠.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세상사 아닙니까. 그 편한 마음에서 내 일이 일답게 되더라구요."

명맥이 끊어졌던 자석벼루를 다시 세상에 드러낸 신명식(46·영춘벼루공예 대표)씨. 의외로 그는 시절타령을 먼저했다. 가만히 듣고보면 푸념이 아니라 세상사에 도가 트는 소식 같기도 하지만.

신씨는 요즘 남에게 팔 물건 만드는 일보다 보여만 줄 물건 만드는 일이 더 신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장사라면 그동안 할만큼 했고 시절인연도 불황의 연속이라 '이제 내 작품을 만들자'고 마음 먹은 것이다. 25년을 해 온 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니 새로웠다. 붉은 돌에 살아 꿈틀대는 용을 새겨 넣으며 명품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는 돈 벌이에 바쁠때는 기능인이었다가 이제사 예술하는 사람으로 자리다잡아 앉았지만 누가 봐도 늦은 나이는 아니다.

조각칼이 닿기전에 문양을 먼저 봐야 하는 심안(心眼)은 쉽게 떠지는 것이 아니다. 세월을 이기는 인내가 농익어 자신도 모르게 다져진 장인이 아니고선 그런 눈을 갖기 힘든 것이다. 칼질을 하며 돌을 달래야 하고 그런 가운데 정교한 문양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게 돌일이다. 그래서 일단 일에 들면 눈은 눈이 아니고 마음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밑그림 대로 칼이 먹어주지도 않고 돌이 깍여 주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의 상황을 토대로 마음속의 문양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넓고 큰 심안이 그걸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환갑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며 새로운 문양과 기법을 개발해야죠. 환갑이 되면 멋지게 전시회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일에 일생을 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환갑 때 까지라지만 그건 바램이고 누군가 나의 칼을 물려 받는 날까지 이 일을 놓을 수는 없겠지요. 사실 돌을 벼루로 만든다는 것이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어려운 경지라 믿어야 해요. 그저 돌을 다듬어 이름만 벼루라고 붙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벼루가 된 돌은 벼루일 뿐이지 돌이었을 때의 성품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무작정 단양을 찾았었다. 26년 전의 일이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신씨는 부친이 농사 틈틈이 만드는 오석벼루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제법 짭짤한 부업이었던 것이다. 돌다듬는 일이 싫지 않았던 그는 어느날 부친으로부터 "네 조부님께서 일제때 단양땅으로 가셔서 붉은 돌을 떼어 와 벼루를 만드셨는데 최고로 팔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궁금증에 견딜 수 없었다. '그 붉은 돌이 어떤 것이길래.' 스물의 나이는 그를 궁금증에만 사로잡아두지 않았다.

"무작정 단양으로 왔어요.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자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향산리 가재골에서 옛 광산터를 찾았어요. 30여 미터를 파내려 가니 자석이 나오더군요. 양수기로 물을 퍼내가며 자석을 떼어 보령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바로 이거다' 하시더군요. 그후 아예 영춘으로 집을 옮겨와 오늘까지 벼루 만드는 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자석을 발견하고 작업에 들어갔을때 신씨는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돌의 성질을 잘 모르고 강도가 높아 연장이 잘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씨는 아이를 달래듯 자석과 친해지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연장도 더 단단한 것으로 특별히 주문해 쓰면서 조금씩 자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한다는 것은 화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많은 시간의 노심초사로 터득했다는게 신씨의 고백이다.

### "맥 이을 후학 없어요"

"지금도 마음이 심란하면 연장을 들지 않습니다. 돌과의 일심이 되지 않으면 작품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석은 그 강도 때문에 스스로 금이 가 있다. 그래서 큰 원석은 얻기가 어렵다. 가공하기도 어렵고 희귀한 반면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최고가 된다. 벼루의 생명인 강도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신씨의 조각솜씨가 보태져 '좋은 바탕의 좋은 작품'을 이뤄내는 것이다.

지난 세월, 처음 자석벼루를 재현하던 때의 어려움은 재현 이후의 호황이 보상해 주었었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무엇보다 해마다 두차례씩 청와대에 납품을 했었다. 교직자등에 대한 대통령 하사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한때 30여명의 일꾼을 부리기도 했고 한달에 다섯번은 광산에서 원석트럭을 몰았던 신씨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대뜸 시절타령부터 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서가 아니다.

"누군가 이 맥을 어어야 할텐데 장담을 못하겠어요. 나에게 기술 배워간 젊은이는 백여명이 넘지만 진득하게 이 일로 보람을 찾을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수출도 줄고 국내 시장도 줄었어요. 중국산 벼루들이 워낙 싸게 몰려 드니까요. 좋은 물건보다는 싼것, 외제에 더 마음주는 세상에 우리같은 사람 한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씨는 중국산 벼루에 대해 크게 경쟁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싸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지만 결국 진품이 제대로 대접 받게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 집념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평소 생활하면서 참으로 혼돈스러운 일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집착과 집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념이 강하다'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성취욕이 강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집착도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닐는지요.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이 집착인지, 집념인지 알수없군요. 또 꼭 이뤄야만 할 중요한 일이라면 집념이든 집착이든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하경림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답** 집착이나 집념이나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비록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일이라도 다 유위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집착을 여의라, 놓아라하는 것은 무위를 일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놓는다는 생각조차도 놓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먹어야하고 자야하고…또 돈도 벌어야하고 사랑도 나누고 하지 않나요. 방하착이라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된다, 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그것 또한 집착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욕망을 나무랄 수도 없구요. 넓게 보면 보살의 서원도 욕망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집념이라든가 욕망이라는게 나를 얽매는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의 진면목을 발견해 대자유인으로 살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우선 종문서 · 노비문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내가 전자에 입력된 것으로해서 옴짝달짝 못하고 그 관념의 세계에 갇혀 지낸다면 그게 바로 종문서 노비문서인데 그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너를 보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하느냐? 우선은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불어 죽는 도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관념의 칠통을 콱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마치 감옥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지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한껏 해보아야 종놀음이요 감방 안에서 하는 짓에 불과하게 됩니다.

방하착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죽는 도리요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도리를 이름입니다. 무위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착을 떼라했는데 그러면 집념은 뭘까? 성취하려는 욕망은 뭘까? 이러신다면 그건 유위법의 놀음이지요. 유위법으로 아무리 사량분별을 해보아도 그렇게해서 얻은 답은 다만 알음알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간도리로야 잘나고 못난게 있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쁜 게 있지만 출세간의 도리에선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발견하려거든 믿고 맡기고 몰락 놓아버려라, 그길밖에 없다라고 누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요? 결과는 왜 따집니까? 부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마음을 무량보배의 창고와 같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기로하면 되었지 무엇을 따지려하겠습니까? 따지고 싶거든 따지는 그것, 따지는 그 놈을 관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늘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어 주인공 자리에 몰락 놓고 여여한 대장부 발걸음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놓고가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한 도리가 있다면 그 도리가 바로 주인공자리이니 나를 형성시켜 놓은 그 주처에다 일체를 맡기라는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방하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다 놓고 어찌 살란 말이냐 반문하는데 그러면 티끌 한 점 붙을 자리없이 다 놓은 부처님은 어찌 사셨으며, 부처님을 거지 중의 상거지라고 하지 왜 인천의 스승이요 삼계의 도사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위법-세간의 법에 갇혀 살지만 놓고가는 삶은 유위법과 무위법이 계합된 자리에서 대자유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왕 한 철 살고갈 요량이라면 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종문서 태워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라 하겠지요.

거듭 말하지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지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공 네가 알아서 하라고 턱 맡기고 그저 열심히 사세요. 그런 자세로 놓고 또 놓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구나 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옛 선사들 말씀에 백척간두진일보라…나무가지 붙잡은 손을 탁 놓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놓으면 있습니다. 비우면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1996년도

# 불전국역 연수과정 및 연구과정생 모집요강

## 제 2기 연구과정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대상 :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 (1) 본 연구원 연수과정 수료자
(2) 일반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전문강원 중강 이상 자격자
(4) 불전 번역에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4.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 소정양식 응시원서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다. 전문강원 중강 경력 증명서 라. 이력서 1부
마. 사진 5매(반명함판) 바. 제출 원서대 및 전형료
〈원서대 : 2,000원, 전형료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 96.7.23(화)~8.3(토)
②접수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전화 : 929-9991)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나. 서류심사 및 면접
①일시 : 96.8.18(일) ②장소 : 본 연구원 교학부
③시간 : 오후 2시 30분~5시
다. 합격자 발표 96.8월 21일 (개별통고 및 본 연구원 게시판)
라. 등록
①일시 : 8월 22일(목)~8월 24일(토) ②장소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①일시 : 8월 26일(월) 오후 7시 ②장소 : 중앙승가대학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 2년(4학기) 나. 강의시간 : 오후 7시~9시
다. 강의과목 : 매 학기별 개설강좌 변동됨
* 96년도 가을학기 개설강좌

| | 월 | 화 | 수 | 목 |
|---|---|---|---|---|
| 개설강좌 교재 담당교수 | 한국불교특강 (열반경종요) 운제스님 | 유식사상특강 (유식요석) 송천우교수 | 화엄사상특강 (청량소초) 혜남스님 | 종범스님 |

라. 가을학기 강의 시작 : 9월 2일

## 제 5기 연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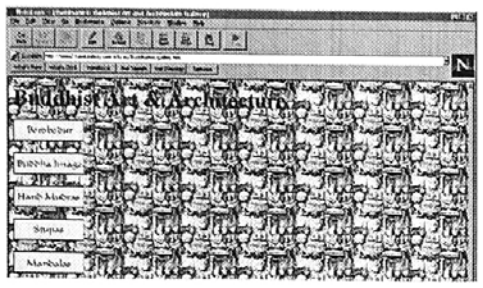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대상 :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 (1) 정규대 이상 졸업자 (2) 강원 졸업 이상 자격자
(3) 한역 위주의 연구소 및 단체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4) 불전 번역에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6) 중앙승가대학 2년 이상 수료자
4.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 소정양식 응시원서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스님은 강원 졸업증명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사진 5매(반명함판)
마. 제출 원서대 및 전형료 〈원서대 : 2,000원 전형료 :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 96.7.23(화)~8.3(토)
②접수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전화 : 929-9991)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나. 서류심사 및 면접
①일시 : 96.8.18(일) ②장소 : 본 연구원 교학부
③시간 : 오전 9시 30분~12시
다. 합격자 발표 96.8월 21일 (개별통고 및 본 연구원 게시판)
라. 등록
①일시 : 8월 22일(목)~8월 24일(토) ②장소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①일시 : 8월 26일(월) 오후 7시 ②장소 : 중앙승가대학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 2년(4학기) 나. 강의시간 : 오후 7시~9시
다. 강의과목 : 매 학기별 개설강좌 변동됨
* 96년도 가을학기 개설강좌

| | 월 | 화 | 수 | 목 |
|---|---|---|---|---|
| 개설강좌 교재 담당교수 | 외전연구 (명자) 권영대교수 | 중관사상연구 (삼론현의) 이태승교수 | 유식사상연구 (상종필요적해) 송천우교수 | 종범스님 |

라. 가을학기 강의 시작 : 9월 2일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전화 : 929-9991 FAX. 953-2876

## 불교사이트 여행




### 부다넷 '불교예술과 건축'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 인도 네시아 불교예술과 그 상징성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세계적인 불교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부다넷(BuddhaNet, 호주)이 제공하는 '불교예술과 건축'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해 사원을 장식하고 있는 불상·수인·탑·만다라 등의 사진과 더불어 각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의 전경 사진과 1835년에 사원 내부에서 발굴된 부조조각 사진이 가장 볼거리. 또한 보로부두르 사원의 9층 꼭대기에 건축된 스투파(塔)의 모습과 그 상징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어, 불교 건축예술의 식견을 함양하는 한편 석탑 기초자료로도 유용하다. 이외에도 9가지 수인(mudra)·만다라·불상 등 각각의 형상과 그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크자카르타 북서 평야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약 8세기경부터 100년에 걸쳐 건축했던 고대 사원으로 인도네시아의 관광명소이다. 따라서 한번쯤 방문해 고대 불교예술이 담고 있는 상징성을 이해하고 佛香을 느낄 수 있는 사이트이다.

### 세계최대 보로부두르사원 유적 볼만

'불교예술과 건축' 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2.hawkesbury.uws.edu.au/BuddhaNet/gallery.htm'

## 철학·종교 과학 종속화 우려

### 사회비판·정신순화기능 잃어

찰스뮬러교수 논문서 지적

"과학적 방법론의 가치가 지나치게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철학과 종교는 결국 과학과의 동등성을 잃고 종속될지도 모른다."

찰스 뮬러(일본, 도요가루엔大) 교수는 최근 논문 '신앙:현대적 위기'에서 현대과학은 종속돼버린 종교는 사회적 순기능인 비판과 정신순화 기능이 상실되어 '옴진리교'와 같은 맹목적인 종교집단 출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뮬러교수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니체(독일) 알티저(미국) 니쉬타니(일본) 등이 '종교·철학의 부재시대' 도래를 예견했다고 말하며, 일본이 세계 대전기간 중에 유교와 제국주의를 적당히 결합시킨 종교교육을 신설한 역사적 실례를 들어 종교의 위기를 말했다.

또한 뮬러교수는 "과거에는 종교가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현대에 이르러 종교 보다는 물질주의가 사회윤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라프(미국)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8·90년대 경제적인 침체기를 맞이해 미정부는 인문계열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이공계열 지원금은 확대한 새로운 국가정책을 시행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사회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고, 과학적인 방법론이 삶의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는 상황"이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물질문명 교육재무장으로 극복"**

뮬러교수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종교적 당파성에서 탈피해 도덕적, 종교적인 교육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에 종교를 포함시켜 현대인이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정신적인 자각(自覺)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앙:현대적 위기'는 'http://www2.gol.com/users/acmuller/dayoril.htm'에서 원문을 구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95 동국대 불교학 박사논문

# "간화선 인도 선사상과 다르다"

### 김호성씨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김호성씨(동국대 강사)는 박사학위 논문 '선관(禪觀)의 대승적 연원 연구'에서 중국에서 발달된 선불교의 연원이 고대 인도의 철학적 전통인 禪觀이며, 이 선관의 전통을 독자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선불교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주요 대승경전의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김 씨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논거로 제시한 것은 〈유마경〉

### 중국禪 마조이후 흐름 달라져
### 인도 대승경전 선교회통론 입증

〈화엄경〉〈금강경〉〈능가경〉 등의 경전에 대한 논리적·철학적·수행적 입장. 김법사는 논리적 입장의 논거로 금강경에서의 '즉비(卽非)의 논리'(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라고 이름한다)는 결국 空의 논리이며, 화엄경의 '상즉(相卽)의 논리'(하나(A)와 전체(B)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로 A와 B는 서로 부분이 됨(相入)과 동시에 동일하다는 것)로 A와 B 모두 空이므로 A와 B 사이에는 상입상즉(相入相卽)이 성립함을 제시했다.

철학적 입장에서는 원시불교의 무아설(無我說)과 금강경의 무상(無想)을 통해 空의 철학적 입장을 살피고, 이러한 입장이 〈유마경〉의 법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돈오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경〉〈유마경〉의 空은 〈화엄경〉〈능가경〉의 성(性)으로 이어지며, 이는 性이 선불교의 언어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행적 입장에서는 이들 경전 모두가 회통론(會通論)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능가경의 경우 인간존재를 청정과 오염(汚染)의 두가지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불교적 인간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인간관은 돈오와 점수(漸修)를 둘 다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돈오점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강경과 유마경 등은 선불교가 갖고 있는 사회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사상은 인도의 대승불교 경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볼 때 중국 초기의 선종에서는 인도 대승불교의 선사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종 교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더 후대에 이르러 간화선의 임제종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중국 선종은 인도 대승불교의 사상적 입지(立地)에서 점차 멀어져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간화선 위주의 중국 선불교가 선관을 바탕에 깔고 있는 불교의 원류임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논지를 내세웠다.

# "초기경전 현대과학이론 포괄"

### 전재성씨 '초기불교의 연기성 연구'

전재성씨(한국불교대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초기불교의 연기성(緣起性) 연구'에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인과성은 흄적인 원리와 붕게적인 과학철학적 인과형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게 된다)와 약멸차즉멸피(若滅此卽滅彼·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의 원리를 부가함으로써 생각한다면 선 자체가 바로 조건이 되며, 따라서 모든 사건이 소멸하지 않는 한 생성을 계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존재의 계기와 조건에의 의존성을 중요시 한 서양의 경험론 철학자 흄의 원리와 조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닌 수동적 법칙성을 생산성의 원칙으로 전환해 존재론적인 면모를 보여준 붕게의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과성의 원칙에 붓다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도입해 인과세계에서 강한 인과적 결정론(숙명론)이나 비결정론(우연론)을 주의깊게 배격한 것은 바로 이 수반적

### "우주 보편적 법칙 인과론서 출발
### 숙명론·우연론적 사고 철저 배격"

조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건성과 수반성이 모두 함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우선 조건성이란 어떤 조건에 의해 결과가 수반된다는 것이며, 수반성이란 원인과 결과가 함께 생겨나는 동시적인 것과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계기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인과론은 이 두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씨가 착안해 낸 것은 '수반적 자유'. '선을 행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는 불교적 논리에서 이 두 관계가 바로 수반적 자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 자체도 번뇌임을 자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초기경전의 연기론은 단순히 흄의 경험주의적인 약유차즉유피(若有此卽無彼·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와, 단지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쌍가바드라적인 존재론적 수반성의 토대인 약생차즉생피(若生此卽生彼·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에만 입각해 있지 않으며, 연기에는 조건성과 수반성이 모두 함축돼 있는 테라바다적 입장이 초기불교의 인과성을 오히려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 학/술/단/신

### 동양사상주제 국제토론회

**8월27~28일 힐튼호텔**

동아일보와 중국 인민일보는 오는 8월 27~28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동양사상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국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베트남 등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동아시아 3국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 동양문화 속에서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에 대해 발표한다.

### '한국학보' 제83집 펴내

일지사는 최근 회화사, 건축사, 조각사 등 한국미술사학 연구 50년을 돌아본 〈한국학보〉 제83집('96년 여름호)을 펴냈다.

특히 '한국학 연구 50년 점검-한국미술사학 편'에서는 '해방 50년 한국회화사 연구'(홍선표) '한국 건축사 연구 50년'(이강근) 논문을 통해 일제시대 이후 왜곡된 회화사와 맥이 끊긴 건축사학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다루고 있다.

##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백양사

향적당

義天敎海從窮通(의천교해종궁통)
獅子窟中無異獸(사자굴중무이수)
象王行處絕狐跡(상왕행처절호적)
皎日昇空無翳点(교일승공무예점)
百億須彌列面前(백억수미열면전)
峰巒透出插青天(봉만투출삽청천)
浮雲薄霧何能到(부운박무하능도)
一拳拳倒黃鶴樓(일권권도황학루)
一踢踢飜鷺鷥洲(일척척번앵무주)
有意氣時添意氣(유의기시첨의기)
不風流處也風流(불풍류처야풍류)

馬駒喝下喪家風(마구갈하상가풍)
四海從玆信息通(사해종자신식통)
烈火焰中撈得月(열화염중로득월)
巍巍獨唑大雄峰(외외독서대웅봉)

옳은 뜻 밝은 도리 막힘없이 통함이여
사자가 사는 곳엔 다른 짐승 살 수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
밝은 해 떠 오름에 어둠이 사라지듯
겹겹이 쌓인 수미 눈 앞에 나타나고
높고 높은 봉우리가 푸른 하늘 치솟으니
뜬 구름 엷은 안개 어찌 능히 이를손가
한번의 주먹질로 황학루가 무너지고

## 밝은 해 떠오르니 어둠 사라지네

발길질 한번 함에 앵무주가 뒤집히니
기상이 있을 때엔 기상을 더해 주고
풍류가 없는 곳엔 풍류가 찾아든다
망아지 할 소리에 돋은 가풍 사라지니
사해가 이를 좇아 소식이 통하고
맹렬한 불길 속에 찾던 달 건졌더니
높고 높은 영웅봉에 외로이 자리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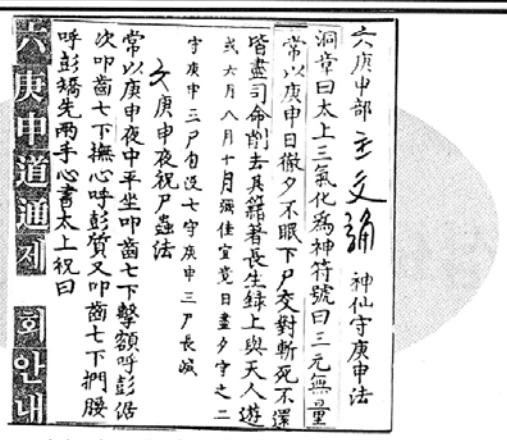
**해설** 매우 긴 내용의 이 주련은 법열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법열이란 법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행함으로 얻는 위없는 기쁨을 말한다. 또 진리를 체득한 후에 누리는 기쁨을 법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법이나 진리란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주법계에서 둘도 없는 법을 깨달은 이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선사들의 오도송들이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언어 그 자체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작자를 알 수 없는 이 주련의 내용도 매우 활달한 기상으로 일관되고 있다. 법의 본체가 되어버린지라 분별하고 따질 것도 없다. 상식과 타산을 초월한 것이다. 한번 주먹질과 발길질로 황학루와 앵무주가 무너지고 뒤집히는 것도 사고의 틀을 벗어난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황학루와 앵무주는 중국의 역대 풍류객들이 노닐고 찬탄해 마지 않던 절경이다. 말이 활구들을 토해내고 사해로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경지 역시 진리를 터득한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다.

향적당의 주련은 깨달은 자의 노래지만 그 노래를 듣는 우리들도 마치 깨달은 사람이 된듯한 감동을 준다. 그 감동 속에 있는 동안은 우리도 깨달은 중생인 것인가.

〈안동 경안중 교사〉


부적 제작 비법 공개

부적을 아무나 제작하거나 사용을 하면 무서운 재앙이 본인으로 받거나 당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부적을 쓰거나 작법을 하시는 분은 六庚申 기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면 듣지도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丙子年 第3회 기도 법회시 공개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부적의 비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입제일 : 1996년 7월 21일 (음 6월 초엿세 6일) 밤 10시**
**해재일 : 1996년 7월 22일 (음 6월 초이레 7일) 밤 해시 중복일**
**회 비 :5만원**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국민은행 039-21-0511-461**

明堂은 과연 明堂인가?

**기문둔갑으로 보는**
**양택과 음택의 땅사주법**

사람도 사주팔자가 있듯이 땅이나 건물에도 땅의 사주팔자가 있고 대문과 방의 위치에 따라 富와 貴가 결정 되듯이 모든 땅이나 건물, 집에도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吉兇 方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明堂일지라도 본인과 좌향이 맞지 않으면, 출세간에 지장이나 가정 불화등 집운을 관찰, 카운셀링을 하시면 출세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821-6622,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약사선원장 태일거일거사 합장

보리수마을 사랑의 가정 캠페인 慶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 개원 祝

올해마저도 고생스러운 바캉스를 보내시렵니까?
가족의 참다운 의미를 찾으시렵니까?




# 사랑의 가정... 여름 행복 찾기 선언!

보리수마을 개원기념
## 여름가족캠프

♥ 가정의 행복은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

**행사 개요**

- 주 최: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
- 기 간:1996년 7월20일~8월 10일 (7차)
- 장 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 대 상:불자가족 및 일반가족
- 참가비용:180,000원(4인가족 기준)
  - 초과시에는 대상별 1인당 별도가산
  - -성인 및 청소년 :25,000원
  - -초등학생 및 유치부:15,000원
- 객실규모:15평, 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 시설 현황
  - 수양시설:참선 및 명상실, 강의실 및 교육실
  - 의료시설:진료실(의사,간호사,약사), 물리치료실, 약국
  - 편의시설:대식당, 세탁건조실, 노래방, 편의점, 오락실
  - 레져시설:해수및 온천사우나, 헬스센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산림욕장, 산책로
  - 여가시설:자연농원(과수 및 채소재배단지), 자연학습장
  - 캠프시설:보리수 캠프장, 해변캠프광장(남애 해수욕장)
  - 기 타:셔틀버스 정기운행(강릉 및 속초시내)

**행사 일정**

- 제1차:7월 20일~23일
- 제2차:7월 23일~26일
- 제3차:7월 26일~29일
- 제4차:7월 29일~8월1일
- 제5차:8월 1일~ 4일
- 제6차:8월 4일~ 7일
- 제7차:8월 7일~10일

**문의 및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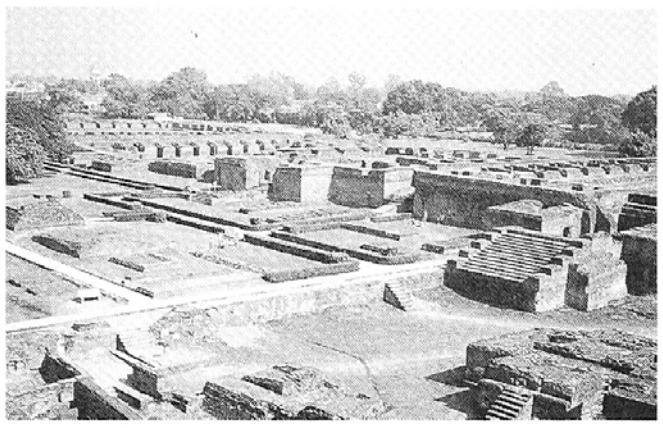
- 보리수마을 행사운영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84-2 평화B/D 302호
  Tel.(02)417-4716~8 Fax.(02)203-517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최 충 렬
  국 민/ 810-21-0378-901
  기 업/ 132-025610-02-012
  농 협/ 082-02-147424
  우체국/ 011825-0074504

교 통 : 도로/영동고속도로—강릉—7번국도(20분소요)—주문진—남애 해수욕장입구(보리수마을 안내) 항공/속초 40분 · 강릉 45분 소요

# 이상형은 보살 …인류에 열망

보르헤스의 ⑳ 불교강의

## 대승불교 ②



◇대승불교의 교학적 체계를 다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용수는 북인도 날란다에 대승원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후 5~7백년 후인 5세기 전반에 날란다에 세워진 날란다사원은 대학기능을 수행하며 매우 번창했다. 사진은 날란다 대학터.

## 용수보살이 中論 통해 空사상 확립 '대승선양'

## 수많은 부처님 인정…자비화신 미륵불 기다려

대승불교의 가장 유명한 스승인 나가르주나(용수 · BC 2~3세기)는 북인도 날란다에 대승원을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 여기서 확립된 교리는 후일 동아시아 여러나라로 전파된다.

대승불교는 이 세상이 실재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반면 소승불교는 세상의 외관(外觀)은 일시적이고 허망하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Skandha)는 실재한다고 가르친다. 대승불교에서는 수행하는 그가 열망하는 열반까지도 환(幻)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만일 모든 것이 공이라면, 사성제니, 팔정도니, 업이니, 윤회니, 승단이니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나가르주나는 두가지 차원에서 진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하나는 인습적인 진리로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또 하나는 절대 진리로서 니르바나(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주를 거울에 비친 반영(反影)에, 메아리에, 그리고 꿈에 비유한다. 우리들은 사랑과 증오로부터, 노심초사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질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부정(否定)의 방법들을 통해 중도(中道)를 설파했다. 파괴도 없고, 불멸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파괴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으며, 단일(單一)도 아니고 복수(複數)도 아니며,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특성상 나가르주나의 공론(空論)이 출현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때, 나는 철학자임이 분명하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아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76)도 결국 무아론(無我論)을 주장했다.

원시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각자(覺者)를 불이 꺼진 등에 비유한다. 나가르주나는 말하기를 원래 없던 것이 어떻게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느냐고 한다. 열반의 세계는 공의 세계이며, 현상세계를 넘어선 그 세계에선 이미 삼사라(俗世)가 니르바나라는 것이다. 자성(自性)이 공함을 깨달은 자는 니르바나에 이른다. 광대한 우주조차도 그와 똑같이 공한 것이다. 자(自)와 타(他)의 구분이 녹아 없어진 세계가 바로 니르바나라는 것이다.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특수한 과정도 부정된다. 나가르주나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렇게 썼다.

> 걸어 온 것에도 길은 없고
> 걸어야 할 것에도 길은 없다
> 그러나 걸어온 것과 걸어야 할 것 없이는
> 길 또한 없을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엘레아학파의 제논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결코 과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화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궤도의 각 순간마다 정지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지상태가 비록 무한히 많다고 할지라도 모인다고 해서 결코 움직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원전 4세기경 디오도로 크로노스(Diodoro Cronos)는 "벽은 무너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벽돌들이 잘 결합되어 있을때 벽도 굳건히 서있다. 벽돌이 무너지고 없다면 이미 벽 또한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논지들이 단순한 궤변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크로노스와 제논과 나가르주나는, 현실이란 우리가 논리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일깨우려고 했던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사물의 본질이 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부정적 방법을 강조했던 것 같다. 그 이전의 학승들은 모두 부처님의 전지(全知)만 강조해 왔다. 이와 반대로 그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갠지스강이 있고 또 그 각각의 갠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쳐도 그 수는 부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물의 수보다는 적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상지혜〉라는 책에 적혀있기를, 모든 것은 단순히 이름 뿐이며 본성은 공하고 또한 '최상의 지혜'조차도 이름일 뿐이며 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아라한(Arhat)을 든다. 그는 성자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업을 쌓지 않아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입적하면 바로 열반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자신의 무한한 전생을 반추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Bodhisattva)을 이상형으로 본다. 그는 수많은 생과 사를 거쳐 언젠가는 붓다가 될 운명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성불 못지않게 현세에서의 자비행을 소중히 여긴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도 전생의 어느 순간에 호랑이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몸을 보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고독한 성자인 프라티에카 붓다(Pratyeka Buddha)의 경우도 있다. 그는 스승의 도움없이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전달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 경전에는 그를 중요한 꿈을 꾼 벙어리나 밀림을 홀로 종횡하는 코뿔소에 비유한다.

대승불교는 여러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일련의 이름들을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세계의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분이다. 각 부처님들은 그가 속한 세계에 따라 체격이나 나이가 다양하게 정해진다. 모든 부처님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있다. 즉 몸에 서른두개의 성상(聖相)이 있고, 발에는 백팔개의 성흔(聖痕)이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이룩하고자 가장 열망하는 것은 모든 인류사이의 형제애이다. 이 땅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Maitreya)로서 서기 4457년에 출현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자비의 화신' '사랑의 충만자'이다. 그는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이땅에는 이미 그가 계시한 성전이 존재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대승불교도들에겐 미륵불이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7세기 초엽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를 순례하였을 때 어느 계곡에서 엄청나게 큰 금박목조 미륵불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조각가는 세번이나 천상에 올라가 친견한 후에 그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미륵불에 관한 설화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를 현장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절에서 미륵불탱화 조성을 위해 크게 불사를 벌이고 수년간 기도하였다. 어느날 이름모를 낯선 사람이 찾아와 그림을 그리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등과 물감을 방에 들인 뒤, 안에서 문을 잠구어 버렸다. 여러 날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찬란한 불화만이 걸려 있었다. 그날밤 한 승려의 꿈에 미륵불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은 사라진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박 찬 〈시인〉



## 남의 잘못 보면서 자신 다스려

### "연작시 '서래봉 가는 길' 언제쯤 회향할까"

몇년전 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 한 시인에게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시로 써볼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연작시 '서래봉 가는 길'이라는 시를 몇편 써 발표하기도 했다.

그 시들을 발표하고 나서 약간(?)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너무 '무엇인가'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더 쓰지 못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지금도 자나깨나 그 연작시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솔직히 그 시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래 생각한 것들을 충분히 시로 형상화해내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한갓 글장난이나 하는 내 따위가 어찌 그 '위대한 길'을 시로 써낼 수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 때문이다.

요즘 그나마 내 시에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왜 '서래봉 가는 길' 같은 시를 쓰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계속 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시를 쓴다는게 너무 힘들고 또 요즘은 특히 시가 잘 써지지 않아 아주 괴롭다. 그래도 그런 자괴감이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곧 다시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불혹'을 넘어 '지천명'을 바로 눈앞에 둔 요즈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 우리네 생활 도처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을, 나쁜 사람(정말 나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만)을 만나도 나름대로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 질 나쁜 상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 그리고 '이놈의 직장, 어서 빨리 때려치워야 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가 찢어버렸다 한다. 그러나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자. 혹 그로부터 배울 것은 없는지, 당장에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참을 수 없겠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면 이런 생각도 떠오를 것이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앉으면 저런 식으로 부하를 다스리진 않을 것이다.' 소소한 일 같지만 이 또한 '배움'이 아닌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감정이 앞서 울컥 화를 내기도 하고 밤새 부화를 삭이기 위해 씨근대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추스리려 애를 써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그게 꼭 화를 낼 일이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수많은 날을 후회하기도 했다.

'수행'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닦아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뜻에서는 '수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산사에서 스님들처럼 참선을 하거나 정진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든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것이다.

시인이 되고 난 후 어쩌다 젊은 시절을 얘기할 때, 나는 문학도보다는 철학도였다는 것을 더 말하곤 했다. 사실 대학시절, 나는 문학보다는 철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 철학과 학생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내가 '시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시'가 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인'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 시 쓰는 일은 내게는 일종의 '수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시를 위한 시'를 써본 적이 없다. 철학을 하듯, 스스로를 '갈고 닦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는 시와 내 자신이 같기를 바란다.

만일 내 시에 '문학적 향기'가 있다면 바로 그같은 향기가 내게서도 배어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다. 시인으로서 삶을 마칠 때까지 그같은 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언제일까,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서래봉 가는 길' 연작시를 다시 써 시집으로 묶고 싶다.


확실한 부동산 최고의 투자대상 !
"동대문 시장 內 전문도매상가"

삼우텍스프라자 SAMWOO

"실투자액 4000만원선 (무담보 융자 3000만)"
→ 투자 1년 후 2~3억 이상 형성
보 1억여원 월 250~350만




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 상가인
아트프라자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원단, 부자재 상가중
초일류 1등으로
삼우텍스를 개발합니다.

안전성과 최대 수익성을 보장받는
6가지 핫 -포인트 !

1. 각종 세금 면세의 장점
2. 최적의 대중 교통 수단
(지하철 1,6호선(동묘역)
환승 본건물 직통 연결
예정)
3. 40년만에 최초 국내
독점개발 시스템
(최첨단 물류시스템 즉
원가 경기절감의 극대 효과)
4. 어떤 부동산보다 단기의
최고 수익률
(투자액의 20배 수익
3~5년 기점 형성 예상)
5. 분양가 상당 저렴
(주변 상가의 50%의 이하)
6. 완벽한 주차장 구비
(1,500대 동시주차)

투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❶ (주) 한국부동산 신탁 수탁관리로 안정성 보장
❷ 벽산건설 책임시공 공사 지체 보상금 제도 실시
❸ 365일 TV 융단 홍보및 이벤트 행사
❹ 조기상권 활성위해 유통 사업본부 가동
❺ 1개 점포→주변 점포의 3-4배 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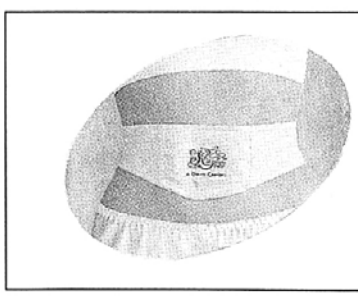
★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 노후대책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상담역=
☎ (02-264-3383)
개발사업부 부장 김남일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불자 여름보내기 베스트10 **특집-여름휴가**

# 청정삼매 들면 더위 사라지고…

휴가와 방학이 시작됐다. 모두들 일상생활에서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얻고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불자들이 신심도 돈우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불자 여름보내기 베스트 10을 추천한다. 〈편집자 주〉

## 백팔배

스님들은 절을 수행정진 그리고 예법으로서뿐 아니라 건강법으로도 권하고 있다. 전신운동이므로 각종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절만큼 간편하고 좋은 운동은 없다는 것이다. 108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신운동의 효과이다. 관절과 근육이 강화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은 기도의 방편이다. 절과함께 염주 한알한알 돌리면서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절은 두 무릎과 두 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이다. 하심(下心)과 지극한 공경의 표현이다. 전신운동이니 육체의 고통이 따른다. 따라서 참회의 방편으로 절수행이 불자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여기에 운동까지 되니 금상첨화이다. 가족과 함께 매일 아침 108배 수행, 10분이면 된다. 이번 휴가부터 시작해보자.

## 참 선

좌정하고 자신을 찾는 참선수행은 인격도야를 제쳐놓고서라도 불자라면 한번쯤 정진해 봄직한 수행법이다. 선수행은 특히 누적된 스트레스를 단박에 풀어버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번 휴가에는 '가자 참선의 세계로'라는 서원을 세워보자. 시원한 '선의 바다'에 자신을 맡겨 삼매에 들어보자. 스님들은 분명히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우선 새벽시간이나 적당한 시간을 정하자. 산사를 택하면 더욱 좋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10~20분 정도의 간격으로 시작해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스님들은 조언한다.

이런 노력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계속된다면 서서히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강해지는 등 자신의 변화를 곧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전독송

강원에서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시간씩 소리내 강경을 한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 읽는것은 천양지차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법구경, 아함경, 화엄경 등 어떤 경전을 택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의 경전을 수행삼아 일정시간을 정해 마음을 다해 소리내 읽노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그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에게 설하여 주는 공덕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다. 경전을 독송하면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듣게되는 유정무정의 모든 것들의 업이 소멸된다고 한다.

독경은 곧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이다.

## 염불정근

무더운 여름 염불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만나보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예배 찬탄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번뇌가 저절로 소멸되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나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염불은 어렵지 않은 수행방법중에 하나다. 염불에는 고요하게 정신을 통일하여 부처님의 장엄한 상호를 연상하면서 그 가르침과 공덕을 일념으로 응집시키는 관상염불과 불보살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칭명염불이 있다.

하루에 몇차례씩 일정한 시간을 정해 108염주등을 세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등의 명호를 부르면서 보살의 길을 되새겨 보자.

## 성보참배

불자들에게 성보문화재는 관람 차원이 아닌 참배의 의미가 더 크다. 성보에 깃든 역사와 가치를 안다면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 여름 휴가기간 벼르고 있던 사찰로 성보문화재 답사 배낭여행을 떠나보자.

실속있는 역사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답사지역과 성보에 관한 기초자료를 입수,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고 떠나야. 또한 현장에서는 참배한 성보에 대해 기록장을 만들도록 한다. 이런 과정으로 여행을 한다면 틀림없이 깊고 넓은 답사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행은 혼자도 좋지만 가족끼리 혹은 법우들이 모여 팀을 이루어 가면 더욱 좋다. 성보사찰 참배는 문화재 답사와 사찰참배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스님친견

'올 여름에는 평소 뵙고 싶었던 스님을 친견해보자'

명산에는 언제나 큰스님이 있다. 푸른 신록이 넘실대고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산을 찾는 것은 육체를 맑게하고 스님을 뵙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또 불교에 처음 입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절에 가고 스님뵙는 재미가 솔솔했던 그 시절 계사스님을 친견해보면 그리운 옛 향수를 떠올릴 수 있고 흐려진 초발심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맑은 얼굴과 절도있는 몸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스님의 모습에서부터 한방울 한방울 귓청에 떨어지는 스님의 법문은 세속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청량수가 되어 올 여름을 풍성하고 시원하게 해 줄 것이다.

## 불서읽기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방울이 흐르는 삼복. 불서읽기도 수행의 한 방편이다. 용맹정진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밀쳐두었던 목록을 펼쳐보자. 어렵다는 선어록을 곱씹듯이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평소 난독하던 불교교리서를 체계있게 통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존경하는 스님의 법어집을 새겨가며 읽는 것도 좋겠다.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불과 1.2권. 지난해 한국출판문화협회가 조사한 국민독서실태 결과이다. 특히 3.40대 직장인의 독서량은 평균치를 밑돈다. 놀랍게도 불자들은 이보다 더 못미치는 0.9권이다. 가끔 신문의 출판란에 소개된 책을 수첩에 메모해 두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 여름 불서읽기 수행자들이 늘기를 기대한다.

## 발우공양

요즘 발우공양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생태적인 식사법으로 알려져 실천하는 가정이 늘고있는 추세다. 이번 여름휴가를 '발우공양 생활화의 시작'으로 삼아보자.

발우는 불자들의 밥그릇이다. 제일 큰 밥그릇과 찬, 청수, 국 등 모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발우공양의 의미는 크게 4가지다. 모든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공양, 철저히 위생적인 청결공양, 조금도 낭비가 없는 절약공양,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고양시키는 공동공양.

부처님은 음식공양에 대해 "불도를 이루기위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라"했다. 자세한 발우공양 방법은 수련대회나 불교서적, 가까운 사찰의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자.

## 오후불식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먹거리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고급화로만 치닫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류 등의 과다 섭취로 인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장애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출가수행자들은 탁발해서 얻은 음식을 오전중에 한끼만 먹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탁발을 생활수단으로 정한데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는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독소인 아만과 아집을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인 것이다.

재가불자들도 마찬가지다. 휴가기간만큼 오후불식해보자. 오후불식을 통해 농사의 소중함과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휴가일 것이다.

## 봉사활동

여름철에 휴가기간이 몰려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 도리어 짜증하나 더 얹고 휴가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염된 마음을 자연에서 잊으려 하지 말고 주위에서 씻어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남을 위하는 봉사활동이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많다. 일단 가까운 복지시설이나 병원을 찾자. 그곳에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래에서 환자목욕, 청소 등 사람의 손길이 가야만 하는 일들이다.

소외된 이들의 손한번 잡아주고 이야기상대가 되어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된다. 물론 자녀와 함께 찾도록 하자. 또한 사찰에서의 봉사활동도 좋다.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하나되는 체험을 해보자.



◇휴대하기 간편한 포켓용 불서는 작지만 내용이 알차 피서여행길에 좋은 벗이다.

## 포켓용불서와 여행 정신 재충전 '절호찬스'

### '무소유' '보리수 잎' '훨훨…' 등 가볍게 읽지만 깊은 뜻에 감동

여름 휴가철이다. 모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의 바다에 풍 빠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일도 알찬 휴가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여행가방에 몇권의 불서를 휴대하고 떠나는 여름 피서. 휴가의 참뜻인 재충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휴대품이다.

휴가 때는 부담없는 책이 좋다.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알찬 내용을 지닌 포켓용 불서가 제격이다. 단행본으로 나온 포켓용 불서와 문고판 불서를 중심으로 휴가철에 읽을 만한 책을 살펴본다.

단행본 포켓북 중 가장 있기있는 스테디셀러로는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성철스님의 법어집 〈영원한 자유의 길〉이 꼽힌다. 세계와 삶에 대한 지적 통찰로 심산유곡의 불심, 고색창연한 불교사상을 혼탁한 속세에 풀어내는 법정스님의 에세이를 담은 〈무소유〉는 1984년 이달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는 등 일반인에게 더 인기가 있다. 백련선서간행회가 편찬한 〈영원한 자유의 길〉은 '자기를 바로 보자'고 설한 성철스님의 30년 설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법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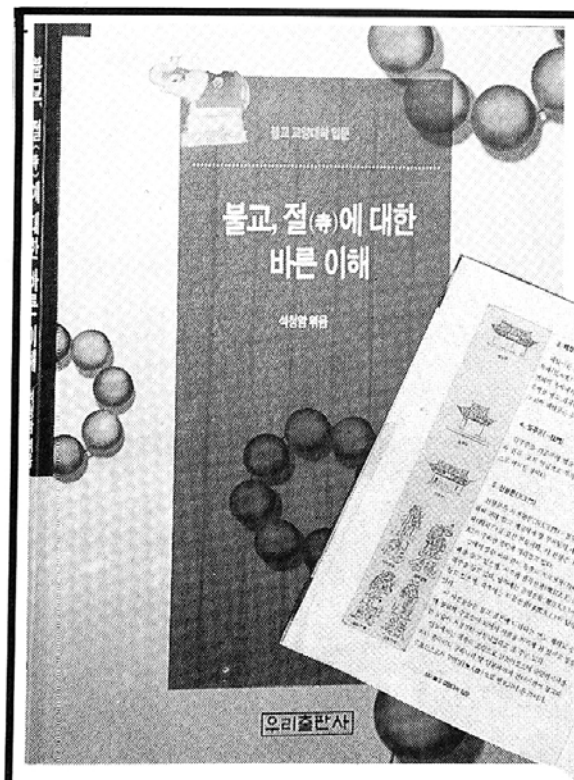
4·6판 포켓북 가운데 읽을 만한 불서로는 서암스님의 법어집 〈훨훨 털고 같이 가세〉와 홍주스님의 장편소설 〈하산〉이 눈에 띈다. 〈훨훨 털고…〉는 안과 밖에 따로 없고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을 깨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생활참선을 전한다. 〈하산〉은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계와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 구도자로서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사된 자전적인 소설이다.

문고판 불서로는 '읽기쉬운 경전' 시리즈와 '불일소책'이 돋보인다. 〈법구경〉 〈금강경〉 등 가장 많이 읽히는 32가지 경을 10권의 소책자에 담은 알기쉬운 경전시리즈는 순한 글로 자세히 번역되어 있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쉽게 접하게 한다. 또 법정스님이 특유의 탁월한 필치로 〈법구경〉을 번역한 〈진리의 말씀〉 등 모두 16권이 나와 있는 불일소책도 불교의 핵심을 간편하게 전하는 양서다.

이밖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은 답사여행의 길잡이로, 고요한소리의 '법륜·보리수잎' 시리즈는 남방불교의 안내서로 적합하다.

◇여름휴가 때 읽을만한 포켓용 불서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알기쉬운 경전시리즈(1~10권) | 경전연구모임 | 불교시대사 |
| 무소유 | 법정 | 범우사 |
|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 훨훨 털고 같이 가세 | 서암 | 정토 |
| 진리의 말씀(법구경) | 법정 역 | 불일 |
| 밖에서 찾지 말라(보조선사 법어) | 보조 | 불일 |
| 붓다 꺼지지 않는 등불 | 장 부아슬리에 | 시공사 |
| 고려고승한시선 | 이원섭 | 동국역경원 |
| 법륜(10권)·보리수잎(30권) 시리즈 | | 고요한소리 |
| 하산 | 홍주 | 불지사 |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불교 교양대학 입문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제 입니다.

96년 6월 17일 출판 6월 23일 2차 출판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 입니다.
- 이 교재는 불교을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그려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 하신다면 전화로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의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정가 :6,200원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금하선원 금하선원법우회 : 총무부 총무 장묘진성 합장

특집-여름휴가 근세고승 체취 감도는 사찰여행

# 絶景·禪風속에 속진 훌훌…
# "그 절에 가고싶다"

마음만 앞세우지 말고 거창하지도 않은 계획으로 올 여름휴가를 진짜 뜻있게 보낼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물자들에게 사찰여행을 권하고 싶다. 생생히 남은 근세 고승들의 체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고찰이면 더 좋을 것이다. 머리를 식혀주고 마음을 맑혀주는 자연속의 사찰로 떠나보자. 〈편집자 주〉



▲초입부터 시원한 계곡이 5백미터나 펼쳐지는 청계사는 근세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경허스님의 출가사찰이다.
▶한암스님이 봉은사에서 상원사로 올때 짊고 온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살아나 자랐다는 오대산 중대 시자암 단풍나무.



## 청계사

### 경허·금오스님 선풍 드날린 곳
### 서울근교 고찰…초입부터 계곡

서울과 안양 성남을 조망하는 주봉 망경대(618m)가 아스라한 청계산 서남쪽의 화훼단지 마을을 지나 계곡 따라 오르는 길. 130여년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 소년(경허선사)이 오르던 그 길이다. 그 길의 끝에 청계사가 있다. 신라때 초창된 청계사는 긴 세월 중창과 소실을 거듭하면서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않았다. 청계사(靑溪寺)란 이름 그대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원한 계곡을 5백미터나 껴안고 있어 도시근교에서 고찰을 찾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무애행으로 세상을 일깨운 경허스님의 출가사찰이며 오늘날 불교계의 기라성같은 인물들을 제자로 배출한 금오스님이 만년에 주석하며 선풍을 드날린 곳. 청계사에 가면 극락보전의 목조삼존불과 숙종대의 동종, 사적비 등 볼거리가 많다. 오가는 길에 서울대공원, 경마장, 반월저수지 등도 들릴 수 있다. 차편은 인덕원 사거리에서 성남행 버스가 자주 있다.
(0343)26-2670

## 성전암

### 성철스님 8년 산문불출 수행처
### 파계사·동화사·갓바위도 참배

팔공산은 경북제일의 영산으로 동화사 파계사 등 유명사찰이 많다. 대구 영천 군위를 두루 싸안고 웅장히 선 팔공산의 대구시쪽으로 동구 중대동에 성전암이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3대 참선도량중의 하나로 꼽히는 성전암. 그 명성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선수행자들의 근행이 무언으로 느껴지지만 우리 시대의 걸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철스님의 생애와도 긴밀한 곳이다.

성철스님은 전쟁후 시절이 어수선했던 1955년 성전암에 들어 문앞에 겹으로 철조망을 치고 산문불출(山門不出)의 수행을 시작, 생식으로 수행하며 장좌불와 8년을 보냈다.

현재는 시원스런 설법으로 유명한 철웅스님이 산문불출을 주석하고 있다. 두 스님의 구도의 지가 고스란히 배인 성전암에 가려면 승용차나 택시(동대구 역에서 1만원정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성전암 가는 길에 파계사, 동화사는 물론 갓바위까지 두루 참배할 수 있다. 시간여유가 있다면 팔공스카이라인과 자연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맛을 준다.
(053)982-3600

## 상원사

### 6·25때 훼손위기 막은 한암스님
### 적멸보궁서 108배 필수 코스

계곡 골골이 문수동자와 세조대왕의 이야기가 그림처럼 떠오르는 오대산 상원사는 산내에서 6.25때 전화(戰火)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절이다. 1·4후퇴 당시의 초토화 작전 앞에 한암스님이 맨 몸으로 맞서 상원사를 지킨 이야기는 유명하다.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었으나 한번도 권위를 행세하지 않고 산사에서 수행에만 전념했던 한암스님. 봉은사조실 시절 전국에서 찾아오는 납자들을 향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二兎에 맘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며 상원사로 간 스님은 1951년 3월 대중설법후 좌탈(坐脫)해 상원사와 영원히 한몸이 되었다.

상원사에 가면 반드시 참배해야 할 곳이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상원사에서 1.5km 산을 오르면 나타나는 보궁에서의 108배는 꼭 해봄직 하다. 국보 제37호인 '상원사범종'과 국보 제221호인 '목각문수동자상'은 상원사가 자랑하는 성보중 성보. 산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영산전에는 세조가 희사한 〈고려대장경〉 39함이 보관돼 있고 너와지붕의 소림초당도 특이한 건축이다.

승용차로 갈 경우 영동고속도로 상진부IC에서 6번 국도를 이용해 월정사를 지나 9km 더 가면 된다. 진부에서 매일 12회 월정사행 버스가 있으나 첫차와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상원사까지 가지 않는다. 월정사 입구에 여관이 2곳 있으며 민박도 많다. 월정사와 상원사 중간에는 산장도 한군데 있다.
(0361)56-6753

## 도솔암

### 효봉선사 '無'자 화두 경내 가득
### 한려수도와 어우러지는 법향

한산도와 비진도 용화사 충렬사 충무해저터널등 수려한 절경의 한려수도. 육상뿐 아니라 수상관광으로도 볼 것이 많은 충무에서 이름 자체가 불교적인 미륵산에 오르다보면 석조물로 유명한 관음전을 지나 천지봉 아래 도솔암에 이른다. 943년 도솔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도솔암은 해인사 가야총림 초대방장을 지낸 효봉스님이 6·25 직후 이곳에 주석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던 곳. 창건이후 초음(初音)·자엄(慈嚴)스님 등 고승들이 수도하며 후학들을 지도해 한때는 남방제일선원(南方第一禪院)으로 불렸던 도솔암은 이후 효봉 구산 일각 법정스님과 시인 고은씨 등이 수도해 유명한 법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도솔선사가 수도했다는 토굴과 그 아래 보문전, 칠성각, 종각, 요사채만이 남아 있으나 절구통 수좌로 알려진 효봉선사의 '無'자 화두가 아직도 경내에 감돈다. 도솔암에서 아래로 굽어보면 충무항과 한산도, 거제앞대의 바다가 삼중주를 이루며 들려주는 아름다운 법향을 만끽할 수 있다.

충무시내에서 용화사행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좌측으로 5백미터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다. 숙박도 시내에서 멀지 않아 별 불편함이 없다. (0557)43-3787

## 원명암

### 용성·고암·해안스님 수도도량
### 주위엔 수려한 암봉…일출 장관

전국에서 몇 안되는 산상무쟁처(山上無諍處)의 한 곳으로 대둔산 태고사, 백암산 운문암과 함께 호남지방의 3대 영지(靈地)로 손꼽히는 곳이 원명암이다.

전북 부안군 산내면 중계리 변산 쌍계봉 아래에 있는 수려한 이 암자는 봉래선원이 있어 근대의 고승인 행암 용성 고암 서옹 해안 소공스님 등이 수도한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눈앞에 멀찍이 청상인 의상봉이 바라다 보이고 오른 편엔 내소사를 안고 있는 가인관음봉이 솟아 있으며, 그 사이에 천층봉 와우봉 사자봉 등의 암봉들이 아름다움을 다투며 등산객들을 끈다. 이렇게 수려한 내변산을 한눈에 내려다 보고 있는 외에도 찬란한 일출광경과 8분 거리에 있는 낙조대(법왕봉)에 올라 바다에 지는 황홀한 일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밤에는 이를 그대로 밝고 청명한 달에 매료되어 시정을 돋우게 한다.

특기할 만한 문화재는 없으나 부속암자인 묘적암 위쪽에 있는 2기의 부도가 주목된다. 이 부도중 왼쪽에 있는 석종형 부도가 유명한 부설거사의 사리탑이라고 전한다. 부설거사는 재가에서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남았으며 보살행으로 정진해 성도한 유명한 신라후기의 거사.

교통권은 부안읍에서 내변산 박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 산내리나 중계리에 내려 등산로를 이용하면 된다. 등산로는 4km, 100분 소요. 부근에 내소사와 실상사지도 볼 수 있다. (0683)82-7890

## 집에서 만드는 전통건강음료

### 갈증해소·장기능 강화



**제호탕**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허해지는 여름철에 매우 적합한 건강음료이다. 〈동의보감〉과 〈방약합편〉등에 '더위를 피하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단오날에 제호탕을 음용하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다'고 했다.

◇재료: 오매육 6백그램 초과 40그램 백단향 20그램 축사인 20그램 꿀.

◇만드는 법: 오매육은 굵게 갈고 초과 백단향 축사를 각각 곱게 갈아서 꿀과 함께 끓여서 졸인다. 연고상태가 될때까지 10~12시간 정도 증탕한 뒤 항아리에 담아두고 먹을때 찬물이나 얼음물에 타서 먹는다.

### 폐를 깨끗이 하는 약효



**생맥산** 〈동의보감〉에 의하면 사람의 기를 돋우며 심장의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깨끗이 하는 약효가 있다. 맥문동은 폐를 튼튼히 하고 기침과 천식을 예방해 주는데 열로 인해 폐가 상해 마른 기침이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때 사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다.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재료: 맥문동 60그램 인삼 35그램 오미자 25그램 황기 4그램 감초 4그램 황백 0.8그램 물 1.8리터.

◇만드는법: 인삼을 살짝 씻은후 보자기에 싸서 잘게 부수고 오미자와 맥문동은 살짝 씻은 뒤 황기, 감초 황백을 함께 넣어 달여서 차게 해 마신다.

### 혈압조절 간장대사 촉진



**냉오미자** 오미자는 진해 거담 혈압강하작용이 있고 심장활동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간장대사를 촉진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복용하면 갈증이 제거된다. 오래도록 잘 치유되지 않는 해소에도 좋다. 새콤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만드는법: 오미자를 깨끗이 씻어서 미지근한 정수(淨水)물과 1:3 비율로 하루동안 담가둔다. 엔만큼 물이 우러나면 고운 베에 걸러 시럽을 넣어 차게 해 마신다.

### 불면증·빈혈등에 효능

**솔바람차** 솔잎에는 당질과 단백질 지방 칼슘인 철분 비타민 A·C 등이 많이 있으며 위장병 불면증 빈혈 천식 부인병 등에 좋다. 특히 산소와 무기질이 풍부해 등산시 피로가 올 경우 솔잎을 따서 생식하면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 솔향기가 미종처럼 코끝에 와 닿고 발효된 맛이 허물을 톡 쏜다.

◇만드는법: 솔잎(조선솔)을 깨끗이 씻어서 오지항아리에 물과 설탕을 함께 넣어 밀봉한다. 8할 정도만 채워야 한다. 1달정도 두어 즙이 우러나면 차게 해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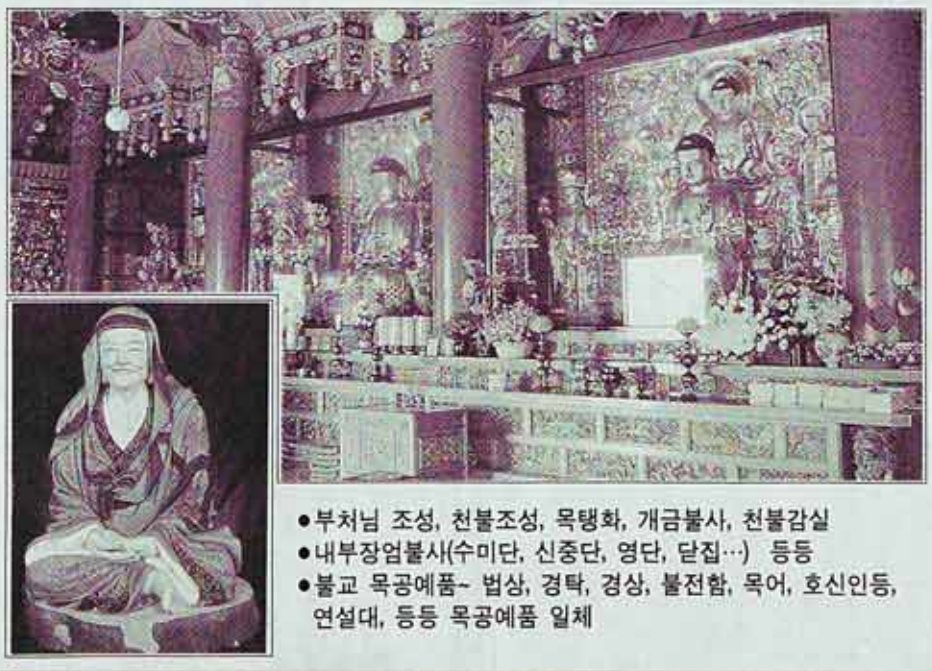
### 허파·신장을 튼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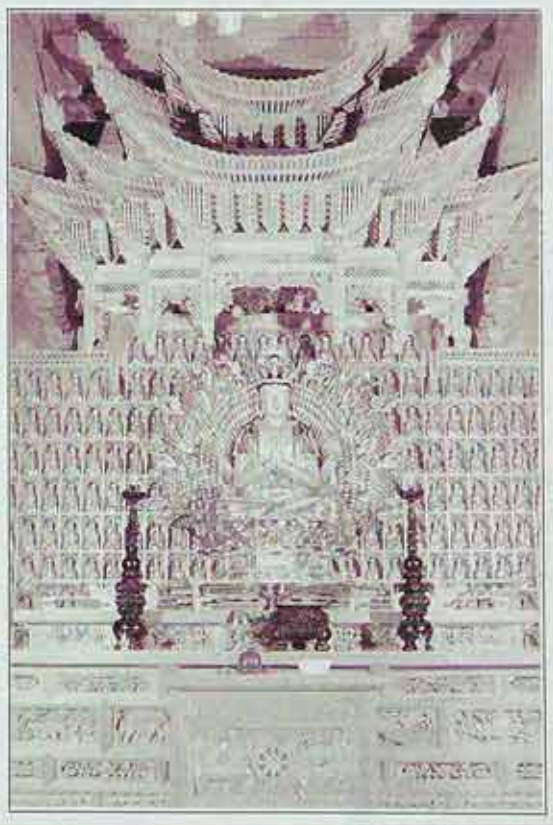
**무추재차** 더덕은 옛부터 사삼(沙蔘)이라 하여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위 허파 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 우유를 첨가한 음료가 무추재차다. 더덕의 맛과 향이 짭짜래 하면서도 그윽하게 우러난다.

◇만드는법: 더덕과 차가운 우유를 믹서에 넣고 간다. 여기에 소금이나 시럽을 넣어 마신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 다시 푸는 경서

###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⑤

到了這個時候 祖師們不得已
도료저개시후 조사문부득이
採取以毒攻毒的辦法 教學人參公案
채취이독공독적판법 교학인참공안
或是看話頭 甚至于要數定一個死話頭
혹시간화두 심지우요교정 일개사화두
教爾數得緊緊 剎那不要放松
교이교득긴긴 찰나불요방송
如老鼠穿棺材相似 緊定一處 不通不止
여노서천관재상사 교정일처 불통부지
目的在以一念 抵制萬念
목적재이일념 저제만념
這實在是不得已的辦法
저실재시부득이적판법

이러한 시절을 맞아 조사님들이 부득이하게 독으로써 독을 쳐부수는 법을 취하여 학인들에게 공안을 참구하라고 가르쳤다.

혹은 화두를 보아라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의 죽은 화두를 파고 들게 하니 괭괭하게 찰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씹고 또 씹도록 가르쳤다.

마치 늙은 쥐가 나무 상자를 갉아 구멍을 내듯이 정해진 화두 하나만 파고들되 통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한) 목적은 한생각으로써 만념을 억제함에 있으니 이는 실로 부득이한 방법이었다.

간끽반적시수 간천의적시수
看走路的是誰 看睡覺的是誰
간주로적시수 간수각적시수
都是一個樣子
도시일개양자

실은 모두 다 같은 것이며 흔한 보통 것이며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하면 경을 읽는 것은 누구며, 주문을 외우는 것은 누구며 부처를 경배하는 것은 누구이며,

밥 먹는 놈은 누구며 옷을 꿰는 것은 누구며, 길을 가는 놈은 누구며 잠자고 깨는 놈은 누구냐 하는 것이

모두 같은 모양의 화두인 것이다.

誰字下的答案 就是心
수자하적답안 취시심
話從心起 心是話之頭
화종심기 심시화지두
念從心起 心是念之頭
념종심기 심시념지두
萬法皆從心生 心是萬法之頭
만법개종심생 심시만법지두
其實話頭 卽是念頭 念之前頭就是心
기실화두 즉시념두 념지전두취시심

누구냐 하는 물음의 답은 마음이다.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은 이 말의 머리이다.

생각도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은 이 생각의 머리이다.

만법은 다 마음을 따라 생기니 마음이 이 만법의 머리이다.

실은 화두란 곧 염두이며 생각의 앞머리에 마음이 있다.

直言之 一念未生以前 就是話頭
직언지 일념미생이전 취시화두
由此 爾我知道 看話頭 就是觀心
유차 이아지도 간화두 취시관심
父母未生以前的本來面目 就是心
부모미생이전적본래면목 취시심
看父母未生前的本來面目 就是觀心
간부모미생전적본래면목 취시관심
性卽是心 反聞聞自性 卽是反觀觀自心
성즉시심 반문문자성 즉시반관관자심

곧이 곧대로 말하면 한 생각 생기기 이전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도를 알려면 화두를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곧 관심인 것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이란 바로 마음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을 본다함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다.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관하는 것을 돌이켜 제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龍 眼

## “무엇이 경을 읽고 잠자고 길을 가는가 말 생각등 만법 앞머리에 마음이 있다”

如惡毒在身 非開刀療治 難以生效
여악독재신 비개도료치 난이생효
古人的公案多得很 後來專講看話頭
고인적공안다득흔 후래전강간화두
有的看死屍的是誰
유적간타사시적시수
有的看父母未生前 如何是我本來面目
유적간부모미생전 여하시아본래면목
晩近諸方多用 看念佛是誰 這一話頭
만근제방다용 간념불시수 저일화두

이는 악독이 몸에 있을때 칼로째서 치료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과 같다.

옛 사람의 공안은 많기도하나 후에 와서는 오로지 화두로 보라고만 가르쳤다.

흔히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누구인지 보라,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지를 보라는 것들이다. 최근에 와서는 제방에서 흔히 쓰기를 염불은 누가 하는지를 보라는 것 하나뿐이다.

其實都是一樣 都很平常 幷無奇特
기실도시일양 도흔평상 병무기특
如果要說 看念經的是誰 看拜佛的是誰
여과이요설 간념경적시수 看拜佛的是誰
간지주적시수 간배불적시수
看喫飯的是誰 看穿衣的是誰

이 말의 머리이다.

생각도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은 이 생각의 머리이다.

만법은 다 마음을 따라 생기니 마음이 이 만법의 머리이다.

실은 화두란 곧 염두이며 생각의 앞머리에 마음이 있다.

直言之 一念未生以前 就是話頭
직언지 일념미생이전 취시화두
由此 爾我知道 看話頭 就是觀心
유차 이아지도 간화두 취시관심
父母未生以前的本來面目 就是心
부모미생이전적본래면목 취시심
看父母未生前的本來面目 就是觀心
간부모미생전적본래면목 취시관심
性卽是心 反聞聞自性 卽是反觀觀自心
성즉시심 반문문자성 즉시반관관자심

곧이 곧대로 말하면 한 생각 생기기 이전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도를 알려면 화두를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곧 관심인 것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이란 바로 마음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을 본다함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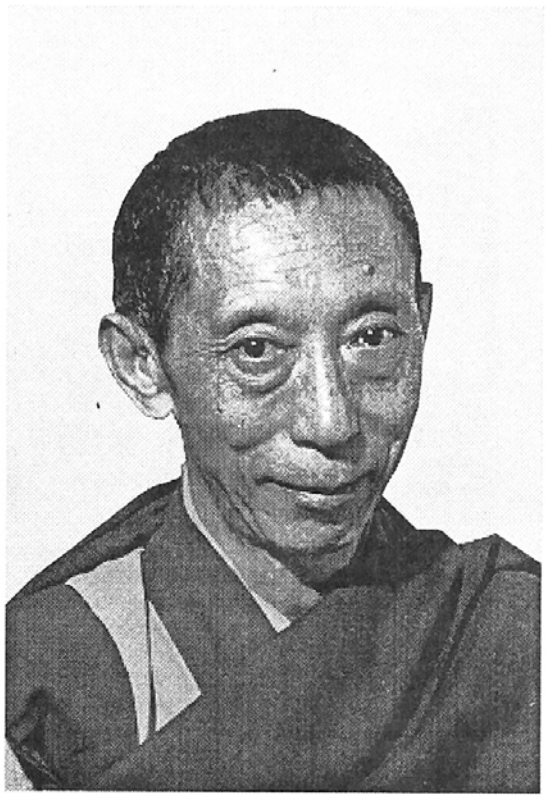
성품은 곧 마음이다.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관하는 것을 돌이켜 제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龍 眼

★ 여름특집

# “부처님 말씀 행복의 열쇠”

## 게쉬 켈생 기얏소 〈英 대승불교센터 원장〉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며 수행의 초석으로 삼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불교와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매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과 접맥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본래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곤혹스런 관계, 금전적 궁색,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않는 주변여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 그릇된 생각과 지각(知覺)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지각은 그릇된 의지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심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올바른 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불교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옳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심상은 올바른 서원을 통해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심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비심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히도 기교적인 가르침만을 배울 뿐 불교와 일상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질적 기술적 발전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각(大覺)한 이의 가르침인 불교의 주요 핵심은 ‘지혜’와 ‘자비’ 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불성을 일깨워주고, 지혜는 장애물로부터 우리의 불성을 해방시킨다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범부(凡夫)는 이 말을 들고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 일상의 평화와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 보고 듣고 마음에 상 만드는 미혹에서 집착생겨

### “자비는 불성을 일깨워주고 지혜는 장애물로부터 불성 해방”

불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몸·말·생각이 현혹된 허상이란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마음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를 통해 마음에 상(想)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각된 마음은 마치 구름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 충실히 따른 감각적인 마음과 보다 섬세하고 미묘하며 통찰력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마음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반면 통찰력 있는 마음은 섬세하고 미묘함에 가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미묘하지만 통찰력 있는 마음은 근본적인 의식 혹은 명확하고 밝은 마음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로 영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윤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통찰력 있는 마음을 오직 죽음에 임하여 지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처님은 ‘공’에 대해 매우 폭넓은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기초하여, 나는 지금부터 매우 간단한 예를 통해 ‘공’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공’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로 인해 아무리 쉬운 설명이라 할지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그것이 가진 형상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책이란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책을 볼 때, 책과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책은 우리의 외면에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은 본래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책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과는 분리된 책을 찾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책이 바로 책의 본성이며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비록 현실에 있어서 책이 본래부터의 존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았을 때 우리의 무지는 본래부터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책을 인식하는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저 없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우리는 집착을 가지게 되고 ‘내 책’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착의 마음은 무지입니다. 또한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대상물의 본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궁극적인 성질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코 몸의 각 부위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비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주변의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현상이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공’하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미혹된 대상물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혹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력**

· 기얏소는 1931년 티벳에서 태어나, ‘태벳대사원’에서 19년간 트리장린포체로부터 사사 받았다. 그후 ‘히말라야사원’에서 20년동안 수행에 전념했다. 1977년에 이르러 영국을 방문한 기얏소는 ‘마주쉬르 대승불교센터’에 머물며 지금까지 서방에 불법을 전하고 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제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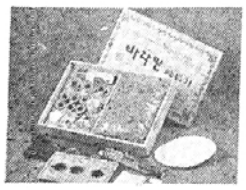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드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로교육(학생 각종 스님)
● 무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5-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창원지회 (0551)62-0076
제천단양지회 (0443)46-3023
의성부지회 (0351)873-0532
경주지회 (0561)772-3255
강릉 : (0391)645-2117
거창지회 : 0598-42-8534 광암사

봉축 **’96 新 금강 영험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봉축 佛紀2540년
부처님의 손에
시계바늘이 놓여 있어
시공을 초월하여
전지 만능의 조화를 부리는
호신불 시계입니다.

놀라운 신통력! 부적교환 첨단신제품

귀하의 품격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부적버클교환용
• 오스트리아산다이아
• 1년간 A/S
• 3기압 빌수방충
• 고강도 크리스탈
• 18K Gold Crown
• 특수 IPG 금징도금
• 18K 금용두

138,000원 남·여한쌍

**1. 소원 성취 부적**
버클엔 소원성취 부적을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룩합니다.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을
이 칠성부를 봉안하면 무병, 장수, 부귀영화의 부적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를 추가제작하여
삼재가 든사람은 삼재가 끝난 때까지 몸에 지니면 삼재 팔란이 물러갑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업번창
• 무병장수
• 운전자무사고
• 합격소원성취
• 삼재소멸
• 심신안정
• 일체재난구제
• 영험의 신비체험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138,000
할부시 계약금:₩18,000
매월 30,000원×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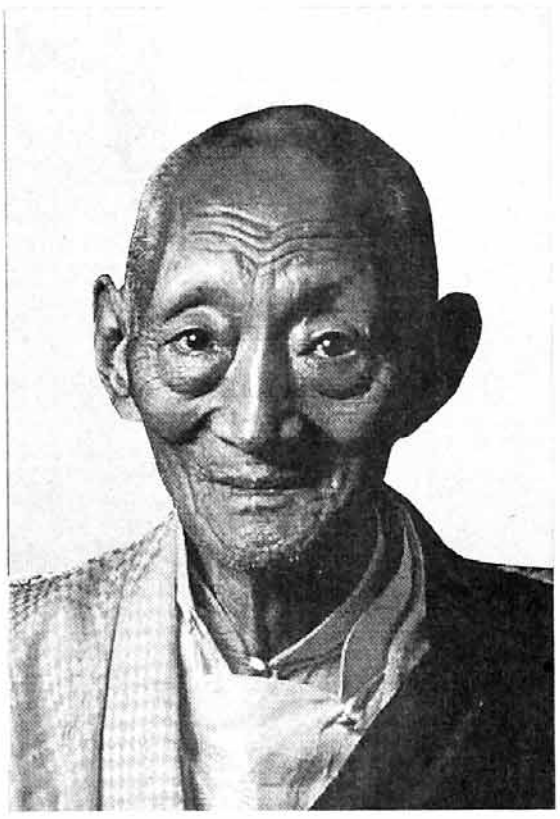
구입문의: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지상법석 ★

# "자비심은 수행의 결정체"

##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면 일체사물 내 몸처럼 사랑

칼루 린포체 〈美 다르마센터 원장〉



칼루린포체는
· 1905년 티벳에서 태어났다. 14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으로 더욱 잘 알려져있으며 16대 캄마파인 리페돌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현재 세계 각지에 '다르마 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칼루린포체는 최근까지 뉴욕을 비롯해 14개 '다르마 센터'를 개원했다.

수행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부처님은 수행을 거쳐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친절을 배우고 이를 통해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궁극적으론 대승불교의 가장 큰 진리인 '자비심'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이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항상 큰 원을 그리며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통해 고양된 정신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리켜 이성적으로 명확한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교란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 혹은 자각(自覺) 등의 여러 덕목 중에서 '자각'이야말로 불교에서 지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불자가 '자각'의 중요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시금 '자각'에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단지 이성적으로 명료한 마음이라기 보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숭고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이란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해 숭고한 사랑을 배우고 자비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을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 조금씩 가르침에 접근
### 끊임없이 노력하면 '내면' 보게돼

매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기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차는 화차를 선두로 각각의 객차들이 견고하게 연결돼 한 목적지를 향해 줄달음질합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우리가 견지해야할 수행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모든 사물을 궤짝고 이것들과 떨어질 수 없다는 듯이 포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차의 속성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타인과 사물과 내적으로 교류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주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이 바로 대승경전에서 일컫는 '인드라넷(indranet)'입니다. 인드라넷은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마치 거울처럼 바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체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기주의 산물인 자아에 집중하고 단지 자신의 경험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드라넷 처럼 타인을 비롯 모든 사물과 정신적인 교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스스로 자아와 동일하게 보이는 모든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수행은 무한한 관계 무한한 깊이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에 이르러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은 무한히 깊은 곳에 신비스럽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을 보는 과정을 거쳐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과 더욱 견고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완벽한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실체는 조각이 나있으면서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다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다라의 둥근 원과 오묘한 선으로 구획된 다양한 문양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다라를 가리켜 '기도하는 바퀴'라고도 합니다.

수행을 통해 보여지는 자신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수없이 뻗어 있는 선, 상호관계라 부를 수 있는 주변 선을 따라 눈을 옮겨 봅시다.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선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 할 때, 타인과 사물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분리하고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고립성·이기성으로부터 탈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평화를 이끄는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수행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확히 보고 열린 마음을 통해 자각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지혜의 바다를 건너 무한히 열려 있는 자신의 마음과 이로 인해 열린 타인의 마음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유영하듯 헤엄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한 부처의 마음'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완벽한 부처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제 '사랑' '자각' 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비'만이 결정체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자비'를 체득하는 과정과 더불어 자비심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할 때 날카로운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이성적인 지성보다는 온 생을 통해 끊임없는 지속되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불자(佛子)'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 불교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회 닿는 데로 부처님의 고명(高名)을 듣고, 부처님이 생존했던 황금시대의 추억을 즐겨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에도 불구하고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며 '의구심' 마저 갖고, 설사 수행을 하더라도 습관에 젖어 행한다면, 화통한 지성을 지닌 그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긴 시간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지닌 우주적인 자아의 본성에는 우둔하면서, 발빠른 지성이 우리 보다 앞서가서는 않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몸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佛法)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심결에 지나친 불법, 즉 불성을 분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자신의 불성에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77

김 성 구

## 반야심경과 물리학 (14)

###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반야'의 경지
### 현대 물리학도 '일체 즉 유심조' 해설

반야심경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 관해 설명한 글이 아니다. 관자재보살이 얻은 반야지로 볼 때 보이는 세계를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오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분별지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현대물리학이 자연의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중성의 발견 덕분에 경전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물리학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경전이 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물리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서있다. 심경이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중 불구부정은 물리학을 떠나 신앙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것이 불구부정의 직접적인 뜻이라면 이말은 생명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본능과 어긋난다.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얻고 알맞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알맞은 것은 좋아하고 깨끗하게 보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더러운 것으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구부정은 보통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반야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뜻이다. 반야의 차원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일체의 학문적 접근을 불허하는 신앙과 깨달음의 차원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학문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원자(原子)의 차원에서 볼 때 나고죽고 씩는 모든 것이 단지 원자들의 배열만 바뀌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기에 생물 무생물을 통털어 물질계 전체를 놓고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명체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구부정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경전이 말하는 바는 전체를 하나로 보라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명체 하나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상에 집착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다. 불구부정은 일체즉 유심조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말이다. 전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실험적인 증거가 실제로 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창조하여 보는 것이라는 현대물리학의 해설을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죽을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예를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PodlsKy)와 로젠(Rosem)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을 EPR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결과를 얘기하겠다.

EPR이 제시한 실험은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점이 있어 1982년에야 실제로 실험을 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전체가 하나이며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창조해서 보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의 옳은 것이다.

불구부정 — 전체가 하나이며 일체즉 유심조

반야심경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 관해 설명한 글이 아니다. 관자재보살이 얻은 반야지로 볼 때 보이는 세계를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오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분별지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현대물리학이 자연의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중성의 발견 덕분에 경전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물리학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경전이 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물리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서있다. 심경이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중 불구부정은 물리학을 떠나 신앙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것이 불구부정의 직접적인 뜻이라면 이말은 생명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본능과 어긋난다.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얻고 알맞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알맞은 것은 좋아하고 깨끗하게 보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더러운 것으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구부정은 보통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반야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뜻이다. 반야의 차원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일체의 학문적 접근을 불허하는 신앙과 깨달음의 차원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학문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원자(原子)의 차원에서 볼 때 나고죽고 씩는 모든 것이 단지 원자들의 배열만 바뀌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기에 생물 무생물을 통털어 물질계 전체를 놓고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명체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구부정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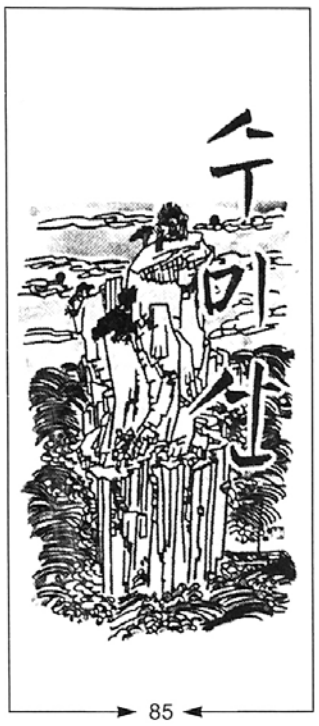
경전이 말하는 바는 전체를 하나로 보라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명체 하나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상에 집착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다. 불구부정은 일체즉 유심조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말이다. 전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실험적인 증거가 실제로 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창조하여 보는 것이라는 현대물리학의 해설을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죽을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예를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PodlsKy)와 로젠(Rosem)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을 EPR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결과를 얘기하겠다.

EPR이 제시한 실험은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점이 있어 1982년에야 실제로 실험을 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전체가 하나이며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창조해서 보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의 옳은 것이다.

전체가 하나이며

# 고은 불교대하소설



85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의 무욕도는.

날마다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모든 바다 위 파도소리의 일부가 부딪치는 섬의 바위와 옹기종기 다부지게 견디어낸 나무들이었다.

차츰 이 섬에도 강렬한 여름 햇볕이 내리꽂히는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한낮의 그런 현상과는 달리 해가 질 무렵은 갑작스럽게 바다안개가 낙조를 대신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차례 가벼운 지진이 지나갔다. 지붕이 좀 흔들려서 재작년의 이엉 쪽 억새묶음이 풀썩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인담이 슬쩍 조는데도 그 졸음을 깨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한동안 태평성대와 같은 평온으로 에워쌓인 이 섬에서도 이따금 이양선(異樣船)이 지나가는 광경을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 그 배들은 청나라 배나 왜국 수적(水賊)의 배와는 그 규모가 월등한 것이다. 으리으리한 돛대가 세개나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선복마다 대포가 설치되고 선체도 나무가 아니라 시꺼먼 철판으로 된 것이었다. 화통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라도 마치 그런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항진하는 것이었다.

벌써 40여년전부터 이런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무욕도 앞바다를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과연 인담이 지난번 서하문집 간행 때문에 육지에 건너갔다가 제주도에 영국의 함선이 닻을 내리고 제주도 돼지들을 몽땅 잡아갔다는 소문도 들은 바 있다.

아무래도 인담은 한번 더 건너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멀리 지나가는 이양선을 우녀 소석들도 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청나라 배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뜻이 입을 열자마자 그런 말로 된 셈인가.

요즘 인담은 스승 담인을 꿈속에서 만난 이래 제대로 수행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입정(入定) 때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 물 건너 세상

"잠자거나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인을 생각하구려. 잠이나 자려거든 옛날 동해 낙산사 중 조신(調信)이 잠들었다가 꾸는 꿈속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말을 지난 날의 수원과 수월을 꾸짖으며 했던 인담이 아니던가. 잠이 없는 인담에게 자꾸 잠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야 그 잠 때문에 스승을 꿈속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며칠 뒤 인담이 우녀에게 말하였다.

"건너갔다 오겠오. 세상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풍랑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호호."

"아무튼 궁금한 세월이오."

"누가 말리던가요. 다녀오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철선 한 척이 있어야지…겨우 떼배나 낙배따위로 다니다니요. 호호."

인담이 섬에 남아있던 낡은 낙배 한 척을 단단히 묶어두었다가 밧줄을 끌러 타고 육지로 건너갔다. 사흘 말미였으나 닷새만에 그는 후줄그레해져서 돌아왔다.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곡식과 몇가지 긴요한 것들도 실어온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학(邪學)이 백성사이에 은밀히 퍼져가고 있고 사학뿐 아니라 괴질도 퍼져가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하였다.

사학은 주로 청나라 쪽에서 배로 건너오는데 그들의 배후에 이양선의 힘이 있다 하였다. 그런 이양선은 불란서의 것이고 그것과는 달리 영국의 철선은 조선 서해안의 이곳저곳을 측량까지 해간다는 것이었다.

또 인담은 그가 서산과 합덕 일대를 다녀오는 길 위에는 송장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으나 누구 하나 그것들을 묻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한다.

그뿐이 아니었다. 인담도 서산 신도로부터 받은 엽전 한 꾸러미를 그 아래 걱정재에서 지키고 있던 도적떼에게 빼앗겼다 한다. 그 도적 가운데는 한양의 망나니도 하나 끼어있어서 그에게 걸리면 영낙없이 목이 날아간다 하였다.

우녀들로서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 흉흉한 세상에 대한 실감이 없었다. 섬의 생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아니 그들의 수행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실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세월이 오는 것 같은데…충청도지방 유림(儒林)에서 엄금하는 양명학(陽明學)이 젊은 선비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백성들은 사학에 사로잡혀 있고…사학이라 하지만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받는 일이 마치 무덤 속의 일 같아서 포졸들의 사나운 기찰도 잘 피하는 모양이오. 우리 불법도 그동안 유학에 배척받은 바 된지 몇백년인데 이로부터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인담은 아직 풋나기인 소석까지도 들으라고 우녀에게만 가만히 말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다.

아무렇지 않던 낮에 갑작스러운 먹구름장이 몰려와 번개오· 천둥으로 위협하고 세찬 소낙비로 바다와 섬을 두들겨 패는 일까지도 인담의 말을 반영하는 것인양 처절한 지경이었다.

우녀가 다른 말에는 관심을 아끼다가도 길 가의 송장 얘기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무지 이 나라는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길 가의 송장 칠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는 필시 전쟁중이 아니면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인담과 우녀는 터럭 하나도 서로 익숙한 바였다.

"나 당분간 쉬겠소. 우녀님께서나 소석이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던지 벙어리 염불-참선-을 하던지 하구려."

"정녕 화상께서는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것입니다. 내가 낫게 할 법력(法力)이 없으니 그대로 둘 수 밖에요."

"왜 그런 법력이 없겠오. 그러나 나를 내버려두구려."

들처럼 광광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잔물결인들 그 작은 소리들을 안개가 빨아들임으로써 그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때는 바다속의 고기들도 바다위의 사정을 짐작하는 본능 때문에 좀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헤엄쳐가는 일도 삼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속은 그래도 정지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조류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는 힘이 다 빠져 있었다.

인담이 벌떡 일어나 재빨리 낙배 매어둔 곳으로 갔다. 가다가 바위끝에 발등을 다쳐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될 여지도 없었다.

그는 안개속의 그 소리 난 곳을 짐작하며 노를 저었다. 노젓는 소리만이 그에게는 초조함과 함께 가장 마음 든든한 이웃이었다.

"어느 쪽이요?"

라는 인담의 큰소리가 보내어졌다. 하지만 대꾸가 없었다.

그는 더럭 겁이 날만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조해야할 신념에 불탔다.

"사람 살려요."

이 말이 바로 그가 저어가는 배 뒤쪽에서 날줄이야.

그가 안개속을 뒷걸음해서 한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한 물체란 꽤 큰 돗배였는데 돛이 내려져 있었다. 바로 그 뱃전에 한 상투장이 사내가 늘어져 있는 것이 흡사 송장이었다.

배와 배를 비끌어 맨 다음 인담은 그 배로 건너가 사내의 숨결을 짚어보았다. 숨이 남아 있었다. 아주 세찬 손바닥으로 늘어진 사내의 따귀를 갈겨댔다.

어디 그 뿐인가. 명치 끝에 주먹을 앵겼다.

"어이쿠!"

하는 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나왔다. 살아난 것이다.

"누구요?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하셨답니다. 소인은 개성인삼 잠상(潛商)이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림 · 조향숙

### "邪學이 은밀히 퍼지고 괴질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니 우리 불법도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 인담은 낙배를 저어 사내를 구했다 "당신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소인은 개성인삼…"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의 말을 농반 진반으로 주고받는 것이 소석에게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해묵은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사람이 평등한 동료로서의 도반도 아님에 틀림없었다.

"가세나."

라고 우녀가 그런 소석을 불러 그들의 처소로 갔다.

인담은 이렇게 해서 한동안 먹고 자고 할 따름이었다. 마치 무욕도량의 한 심심하기 짝이 없는 가축이라도 될 것 같이.

바다안개가 자욱한 저녁무렵이었다. 저쪽 안개 속에서 문득 어떤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안개에 눌린 것 같은 바다는 마치 연주 직전의 어전(御前) 궁중 아악공(雅樂工)에 의해서 바다 위와는 달리 끊임없이 숨쉬며 움직여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가 엇비슷하게 노래했던가. 세상 떠나기 직전의 임제(臨濟)였던가.

흐름따라 머물지 않는 도리를 묻는다면
참된 살핌 가 없음이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리(沿流不止問如下 眞照無邊說似他)

아무튼 바다 위 안개속은 일체 한마디 말은 없었다.

인담이 그런 안개속에서 딱 한번인가 들린 어떤 소리를 뒤쫓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인담으로서는 낚싯줄의 찌가 한번 움직였다는 착각 때문에 낚싯대를 잡고 여차하면 끌어 올리려는 것처럼 긴장하는 것 같았다.

좋은 책의 산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는 한국불교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큰스님들의 삶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첫 시도입니다.

※ 계속 발행됩니다.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1 해당 인물의 사상을 전공한 한글세대 작가들이 집필한 본격고승평전
2 광대한 자료조사와 장기간에 걸친 집필
3. 한글세대를 위한 이름딴고 정확한 문체 사용
4 깨달음과 학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큰스님들의 거룩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평전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승 총망라
6. 주인공 소개 및 연표 낱말 찾이보기 등 참고서지 첨부

열린기획, 앞선 디자인, 생명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김시습 편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사 지눌 편
3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거사 편
6 하늘이여, 땅이여/이차돈 편
7 부처눈에 부처, 돼지눈에 돼지/무학대사 편(근간)
8 푸른 암자의 노래/초의선사 편(근간)
9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경허선사 편(근간)
1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나옹화상 편(근간)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 김시습 편
역사의 유치함을 역설나 현실의 제약처럼여다
현실의 제약적, 이념당이 없음으로 해여 우리는 개의 순응하게 역사 속에 순응을 본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전변 확연다기 많아진 배경 없는 눈보라와 비바람에 결코이 찢겨본석
그게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 보조국사 지눌 편
고려 후기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정한 시대였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붕교 또한 적 갈등을 많은 채 보편의 차원을 망적하고 유지들은 호화로운 생활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책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은 물론 한 인간의 순수하고 숭고한 정신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진실의 소리는 비록 처음에는 작다 하더라도 미혹케는 한 시대를 올리게 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 성철 스님 편
성철 큰스님은 '부처님 법답게 살자'라는 선불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참고할 한을 부친 큰빛.
또한 한국불교를 이끌고 지도하는 동안 스스여 되신 후 예언식로 스님들의 공부 도량으로 거듭난 금옥처.
노년에 이르러서도 젊은 날과 변함없는 수행으로 불도를 이은 참수행자이다. 이 책은 현대 한국불교은 근거들이신 성철 스님의 생애에 여러가지 일화를 소개하며 존엄하신 스님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렸다.

풍금치는 큰스님 — 용성 스님 편
용성 스님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은 후 어려운 경전을 쉽게 읽히기 위해 역경 사업에 힘쓰는 한편 도심속 포교당을 세워 신앙에의 행계적인 접선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불교 의식을 한글로 행하기도 했으며 처음으로 찬불가를 지어 불교 민중에 널리 부르게 했다

허공에 매달린 물병 — 부설거사 편
미적적으로 부설거사가 병을 내리쳤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병은 산산이 깨져 버렸어야 했는데도 깨진 병의 형태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 이럴 수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두 도반에게 무설이 말했다.
수행은 말이나 글보다 실천 공행(躬行)함이 중요하오.

하늘이여, 땅이여 — 이차돈 편
우리는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 채 살고 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과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 나라 역사의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이차돈이 아닐까 한다. 하도 하도 아르지 않는 생물과 같은 존재 말이다.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양장본 / 각 230면 내외 / 각권 6,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날마다 좋은날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신국판/300면/값6,000원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사는 일이 불자의 생활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의 무욕도는.

날마다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모든 바다 위 파도소리의 일부가 부딪치는 섬의 바위와 응기종기 다부지게 견디어낸 나무들이었다.

차츰 이 섬에도 강렬한 여름 햇볕이 내리꽂히는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한낮의 그런 현상과는 달리 해가 질 무렵은 갑작스럽게 바다안개가 낙조를 대신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차례 가벼운 지진이 지나갔다. 지붕이 좀 흔들려서 재작년의 이엉 쪽 억새묶음이 풀썩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인담이 슬픽 조는데도 그 졸음을 깨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한동안 태평성대와 같은 평온으로 에워쌓인 이 섬에서도 이따금 이양선(異樣船)이 지나가는 광경을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 그 배들은 청나라 배나 왜국 수적(水賊)의 배와는 그 규모가 월등한 것이다. 으리으리한 돛대가 세개나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선복마다 대포가 설치되고 선체도 나무가 아니라 시꺼먼 철관으로 된 것이었다. 화통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라도 마치 그런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항진하는 것이었다.

벌써 40여년전부터 이런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무욕도 앞바다를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과연 인담이 지난번 서하문집 간행 때문에 육지에 건너갔다가 제주도에 영국의 함선이 닻을 내리고 제주도 돼지들을 몽땅 잡아갔다는 소문도 들은 바 있다.

아무래도 인담은 한번 더 건너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멀리 지나가는 이양선을 우녀 소석들도 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청나라 배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뜻이 입을 열자마자 그런 말로 된 셈인가.

요즘 인담은 스승 담인을 꿈속에서 만난 이래 제대로 수행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입정(入定) 때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 물 건너 세상

"잠자거나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인을 생각하구려. 잠이나 자려거든 옛날 동해 낙산사 중 조신(調信)이 잠들었다가 꾸는 꿈속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말을 지난 날의 수원과 수월을 꾸짖으며 했던 인담이 아니던가. 잠이 없는 인담에게 자꾸 잠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야 그 잠 때문에 스승을 꿈속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며칠 뒤 인담이 우녀에게 말하였다.

"건너갔다 오겠오. 세상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풍랑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호호."

"아무튼 궁금한 세월이오."

"누가 말리던가요. 다녀오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철선 한 척이 있어야지…겨우 때배나 낙배따위로 다니다니요. 호호."

인담이 섬에 남아있던 낡은 낙배 한 척을 단단히 묶어두었다가 밧줄을 끌러 타고 육지로 건너갔다. 사흘 말미였으나 닷새만에 그는 후줄그레해져서 돌아왔다.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곡식과 몇가지 긴요한 것들도 실어온 것이다.

"나라야 이름이라도 달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나라를 맡은 임금이나 신하 할 것 없이 한양이나 오적까지도 오로지 백성을 탐학하는 노릇밖에 못하니…."

"언젠가 동지사(冬至使) 일행이 연경(燕京)에 다녀오는 길에 아편 흡연하는 기구를 몰래 들여왔다가 혼쭐이 났다 하는데 진작부터 좌의정과 좌의정 소실이 함께 아편을 빨아 그 몽환경(夢幻境)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자자하더이다."

"이미 기울어 져야 할 것이리면 기울어 져야겠지요."

인담의 우수(憂愁)에 따라 우녀까지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 서로 부부는 아니지만 오래 함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용모도 닮아가고 성정(性情)도 서로에게 다가가 나중에는 누가 누구인줄 모르는 것만을 남겨 두고 있는지 모른다.

한다. 그 도적 가운데는 한양의 망나니도 하나 끼어있어서 그에게 걸리면 영낙없이 목이 날아간다 하였다.

우녀들로서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 흉흉한 세상에 대한 실감이 없었다. 섬의 생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아니 그들의 수행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실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세월이 오는 것 같은데…충청도지방 유림(儒林)에서 엄금하는 양명학(陽明學)이 젊은 선비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백성들은 사학에 사로잡혀 있고…사학이라 하지만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받는 일이 마치 무덤 속의 일 같아서 포졸들의 사나운 기찰도 잘 피하는 모양이오. 우리 불법도 그동안 유학에 배척받은 바 된지 몇백년인데 이로부터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인담은 아직 풋나기인 소석까지도 들으라고 우녀에게만 가만히 말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다.

아무렇지 않던 낮에 갑작스러운 먹구름장이 몰려와 번개와 천둥으로 위협하고 세찬 소낙비로 바다와 섬을 두들겨 패는 일까지도 인담의 말을 반영하는 것인양 처절한 지경이었다.

우녀가 다른 말에는 관심을 아끼다가도 길 가의 송장 얘기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무지 이 나라는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길 가의 송장 칠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는 필시 전쟁중이 아니면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 "邪學이 은밀히 퍼지고 괴질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니 우리 불법도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학(邪學)이 백성사이에 은밀히 퍼져가고 있고 사학뿐 아니라 괴질도 퍼져가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하였다.

사학은 주로 청나라 쪽에서 배로 건너오는데 그들의 배후에 이양선의 함이 있다 하였다. 그런 이양선은 불란서의 것이고 그것과는 달리 영국의 철선은 조선 서해안의 이곳저곳을 측량까지 해간다는 것이었다.

또 인담은 그가 서산과 합덕 일대를 다녀오는 길 위에는 송장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으나 누구 하나 그것들을 물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한다.

그뿐이 아니었다. 인담도 서산 신도로부터 받은 엽전 한 꾸러미를 그 아래 꺽정재에서 지키고 있던 도적떼에게 빼앗겼다

## 인담은 낙배를 저어 사내를 구했다 "당신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소인은 개성인삼…"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의 말을 농반 진반으로 주고받는 것이 소석에게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해묵은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사람이 평등한 동료로서의 도반도 아님에 틀림없었다.

"가세나."

라고 우녀가 그런 소석을 불러 그들의 처소로 갔다.

인담은 이렇게 해서 한동안 먹고 자고 할 따름이었다. 마치 무욕도량의 한 심심하기 짝이 없는 가축이라도 될 것 같이.

바다안개가 자욱한 저녁무렵이었다. 저쪽 안개 속에서 문득 어떤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안개에 놀린 것 같은 바다는 마치 연주 직전의 어전(御前) 궁중 아악공(雅樂工)들처럼 굉굉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잔물결인들 그 작은 소리들을 안개가 빨아들임으로써 그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때는 바다속의 고기들도 바다위의 사정을 짐작하는 본능 때문에 좀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헤엄쳐가는 일도 삼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속은 그래도 정지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조류에 의해서 바다 위와는 달리 끊임없이 숨쉬며 움직여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가 엇비슷하게 노래했던가, 세상 떠나기 직전의 임제(臨濟)였던가.

흐름따라 머물지 않는 도리를 묻는다면
참된 살림 가 없음이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리(沿流不止問如下 眞照無邊說似他)

아무튼 바다 위 안개속은 일체 한마디 말은 없었다.

인담이 그런 안개속에서 딱 한번인가 들린 어떤 소리를 뒤쫓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인담으로서는 낚싯줄의 찌가 한번 움직였다는 착각 때문에 낚싯대를 잡고 여차하면 끌어 올리려는 것처럼 긴장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는 힘이 다 빠져 있었다.

인담이 벌떡 일어나 재빨리 낙배 매어둔 곳으로 갔다. 가다가 바위끝에 발등을 다쳐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될 여지도 없었다.

그는 안개속의 그 소리 난 곳을 짐작하며 노를 저었다. 노젓는 소리만이 그에게는 초조함과 함께 가장 마음 든든한 이웃이었다.

"어느 쪽이요?"

라는 인담의 큰소리가 보내어졌다. 하지만 대꾸가 없었다.

그는 더럭 겁이 날만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조해야할 신념에 불탔다.

"사람 살려요."

이 말이 바로 그가 져어가는 배 뒤쪽에서 날줄이야.

그가 안개속을 뒷걸음해서 한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한 물체란 꽤 큰 돗배였는데 뭍이 내려져 있었다. 바로 그 뱃전에 한 상투장이 사내가 늘어져 있는 것이 흡사 송장이었다.

배와 배를 비끌어 맨 다음 인담은 그 배로 건너가 사내의 숨결을 짚어보았다. 숨이 남아 있었다. 아주 세찬 손바닥으로 늘어진 사내의 따귀를 갈겨댔다.

어디 그 뿐인가. 명치 끝에 주먹을 앵겼다.

"어이루!"

하는 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나왔다. 살아난 것이다.

"누구요?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하셨답니다. 소인은 개성인삼 잠상(潛商)이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림 · 조향숙

좋은 책의 산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는 한국불교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큰스님들의 삶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첫 시도입니다.

※ 계속 발행됩니다.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1. 해당 인물의 시상을 찬공한 한글세대 작가들이 집필한 본격고승평전
2. 방대한 자료조사와 장기간에 걸친 집필
3. 한글세대를 위한 이름답고 정확한 문체 사용
4. 제불조사 학문의 금지법을 벗어올린 큰스님들의 거룩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공헌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승 총망라
6. 주인공 소개 및 연표, 날말 찾아보기 등 참고사항 첨부

열린기획, 알선 디자인, 생명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김시습 편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사 지눌 편
3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거사 편
6 하늘이여, 땅이여/이차돈 편
7 부처눈에 부처, 돼지눈에 돼지/무학대사 편(근간)
8 푸른 암자의 노래/조신선사 편(근간)
9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경허선사 편(근간)
1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서산대사 편(근간)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 김시습 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 보조국사 지눌 편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 성철 스님 편
풍금치는 큰스님 — 용성 스님 편
허공에 매달린 물병 — 부설거사 편
하늘이여, 땅이여 — 이차돈 편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양장본 / 각 230면 내외 / 각권 6,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날마다 좋은날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신국판/336면/값6,000원
날마다 좋은날의 의도록 사는 일이 불자의 생활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 책방 여시아문이 제안하는 '시원한 여름 보내기'

# "한 권의 불서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산이 되고 바다가 된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00 - 33 (우편번호 110 - 170)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직통)
팩스 : (02)737-0696(전용)



중급교리 반야심경
### 최상의 지혜
석우스님 지음
404쪽/값 5,500원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것이 낫고 아는것 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흑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불자이면서도 아직 가슴 저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깨침이 오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깨달은 경험은 있으나 깨달은 바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관음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 720-1147~8



알기쉬운
### 천수경강의 반야심경
이지환 엮음
320쪽/값 6,000원

엄불의 마음, 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천수경을 하룻밤에 다섯번만 외워도 백천만 억겁에 지은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목숨을 마칠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이끌어 원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고 마음이 밝아질 것이며 드디어 정각을 이룰것이다.**

관음출판사 주소 :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 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 책방 여시아문 통신 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은 불자 여러분의 불교 서적 구입과 건전한 독서 문화 창달을 위해 회원 가입 '통신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구입하시고 싶은 불서가 있으시면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받으시고자 하는 도서를 신속히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전**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 책방 여시아문이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 현대불교신문사 및, 책방 여시아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737-0695(책방 여시아문 직통)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밝혀줄 172가지 이야기
### 행복한 마음
김정섭 지음
523면 / 값 5,900원

**행복한 마음**

저자 자신이 행복으로 가는 구도의 길에서 얻은 진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동서고금의 성전과 고전, 민담, 신화 등에서 가려 뽑은 172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 삶의 여정에서 막히고 맺혔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얻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삶의 근본 이치를 밝히고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을 가르친 마음 수양의 길잡이

김영사 주소 : 종로구 가회동 170-1 전화 : 745-4823(대표) / 팩스 745-4826



신비한 성자 · 성지의 세계 살아있는
###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
박지명 지음
312쪽 / 값 8,000원

**인도와 희말라야의 정확한 안내서**

인도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는 실질적인 명상과 수행의 지침서라 할수 있다. 그들의 종교, 관습, 그리고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면 인도와 히말라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깨침의 소리 주소 : 광진구 자양동 223-11 전화 : (02)444-3575,5310 / 팩스 (02)3436-1064



조계선종소의어록집
### 古鏡
퇴옹 성철 편역
753 쪽/값 15,000원

**古鏡이란 고불과 고조의 말씀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함장한 우리의 본래면목입니다.**

큰스님 떠나신 자리에 출간된 古鏡이 우리들의 자성을 회광반조하고 본래면목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돈오선풍의 뜻깊은 이익중생이 되도록 정진하고 정진해야겠습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총판(대원사) : 757-6717~ 9



### 윤회의 비밀
지나 서미나리 지음
/ 백련선사 간행회 옮김
354쪽 /값 5,500원

**삶의 고난 ! 그원인은 어디에**

에드가 케이시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닌 온갖 삶의 고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투시함으로써 그 고난의 원인이 먼 전생에서 비롯되는 카르마 때문임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윤회나 환상은 실재하는 것일까 ?

[윤회의 비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간직한 책이다.

도서출판 장경각 총판(대원사) : 757-6717~ 9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 법화경강설
釋能嘉 편역
값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大興企劃 주소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 팩스 : 733-1016



人間 · 釋迦
### 인간 · 석가
다카하시 신지 지음
김해석 옮김
상 · 하권
각권 값 6,500원

○ 인간석가의 일대기 !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연생의 사람들이 과거세의 말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면 ?
○ 독창적인 불교사상가이자 과학자인 저자

도서출판 미리내 전화 : 279-2669/ 팩스 234-1450



무비스님 과 함께하는
### 불교공부
무비스님 지음
393 쪽
값 8,000원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에 있어서 참으로 보람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불교공부를 통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사 주소 :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732-2403~ 4, 722-7679 / 팩스 : 739-7565



만해의 불교사상
### 푸른 산빛을 깨치고
전보삼 편저
285 쪽/ 값4,500원

이 한권의 책에 만해 정신의 원천이 있고 그 근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가장 강조하여야 할 만해의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는 단 몇 편의 논문에 지나지 않는 오늘의 성과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반성과 각성을 통하여 만해 한용운의 불교철학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

민족사 주소 :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732-2403~ 4, 722-7679 / 팩스 : 739-7565



불광선문총서47
### 艸衣茶禪集
통광 역주
299 쪽/값 8,500원

**茶神傳 , 東茶頌 , 禪門四辯漫語**

차와선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경지를 구가한 조선 후기의 대선사 이자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선사 다인과 참선납자에게 불후의 고전으로 내려오는 다신전 동다송 선문사변만어를 한데 엮은 역작

불광출판부 전화 420-3200 / 팩스 420-3400



### 만화 화엄경 ❶~❾
각색 · 임기준
그림 · 조성연
각권 값 5,000원

아름다운 행동으로 부처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선재동자는 여러 나그네로서 구도여행을 떠난다. 선세 분의 덕 높은 스승을 만나며, 그 밖고도 험한 길에서 광대한 자연을 만나며 그들과도 대화를 나눈다. 이제 우리는 크나큰 세계에 눈을 뜨며, 선재를 삶의 든든한 길 동무로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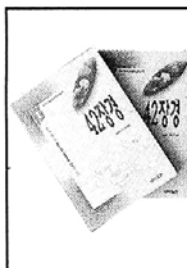
불교만화사 주소 : 종로구 공평동 130-2 송원빌딩 3층 전화 : 723-8426~7



### 읽기쉬운 경전시리즈 ① ~ ⑩
경전연구모임 편
각권 2,800원

① 법구경/사십이장경
② 육아경/선생경/수마제녀경/재경/식정인연경/아나빈저경
③ 금강경/승만경 ④ 유마힐소설경
⑤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⑥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
⑦ 삼세인과경/부모은중경/우란분경
⑧ 보현행원품/관세음보문품/법망경보살계본
⑨ 지장본원경/악사본원경/정수멸죄경
⑩ 조탑공덕경/조상공덕경/시등공덕경/욕불공덕경/우요불탑공덕경/제덕복전경

불교시대사 주소 : 종로구 관훈동 197-28 전화 : 730-2500 / 팩스 : 723-5961



### 42장경
오쇼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욱 옮김
신국판 · 전 2권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분께 드립니다.**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꽃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성하출판 전화 : 778-6826 ~7 / 팩스 : 778-6828



슬버림경전시리즈 ③
### 강해설법 지장경
석해공 著
334쪽 / 값 5,500원

**고통받는 육도중생을 모두 해탈시킨 후에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다며 대자비력을 펼치시는 지/장/보/살/님!**

해동제일 지장도량 총효사 주지 석해공스님의 <지장경>은 인간이 어떻게 업장을 소멸하고, 어떤 선업을 쌓으며 어떻게 참다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 품 한 품마다 한문원문과 역문 그리고 설법으로 총 13품을 구성.**
- **영험설화와 비유설화, 신앙수기도 기록**

도서출판 솔바람 주소 :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3층 전화 : 720-0824 / 팩스 : 722-8760



무문관으로 배우는
### 선어록 읽는 방법
秋月龍珉 · 秋月眞人 著
신국판 양장 / 값 12,000원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중국에서 선종은 당 · 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와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이적인 해석함에 있어 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 · 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등을 모태로한 주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도서출판 운주사 주소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 720-9372~3 / 팩스 : 723-0646



모든 불교서적을 한눈에 !
### 1996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도서출판 운주사 발행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모든 불교서적을 주제별, 출판사별, 제목별로 총정리한 목록입니다. 운주사로 발송용 우표 (일반690원, 등기 1,390원)를 동봉하여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주소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 720-9372~3 / 팩스 : 723-0646



###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김원각 글
값 6,000원

**부처님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불교방송 「신행 365일」의 필자이며 동국대학교 역경원 역경위원인 시인 김원각이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뽑아낸 120가지 이야기에 간단한 주석을 붙인 불교우화집. 부처님이 우리에게 애써 들려주고자 했던 깊은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삶의 우화**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김원각글 / 값 5,500원**

책만드는집 전화 : 3272-8967 팩스 : 3272-8969



### 영가 천혼 법어
석성우 · 김규대 엮음
값 15,000원

**제 갈 길 못가고 헤매는 수많은 영가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진들의 연속!
그로 인하여 제 갈 길 못가고 헤매는 수많은 영가들!
그 지승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은 무엇인가?
신라시대부터 현존의 스님까지 50분의 선지식들이 영가를 천혼키 위해 설한 법어집!

토 방 주소 : 종로구 견지동 39-2 상운중심 401호 전화 : 722-4588~9 / 팩스 : 722-4589



THE LAST WORD
### 부처님의 유언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400쪽 /값 7,000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같은 최후의 유언 !

이 유언은 부처임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벽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태일출판사 주소 : 성북구 삼선동 4가 36 전화 : 927-2831 / 팩스 : 924-3236



알기쉬운 불교 시리즈
### 영한대역 불교성전
석해운 옮김
672쪽/값 15,000원

**부처님의 지혜는 대양처럼 넓고 그 마음은 대자 대비하다.**
**부처님은 형상없이 절묘하게 나타나시어 자비에 찬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책에는 2,500여 년 동안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보존해 온 불경 5,000여 권 속에서 그 정수를 뽑아 실었다.**
**이 책에 실린 부처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뜻깊게 다룬다.**

현암사 주소 :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 365-5051~6 / 팩스 : 313-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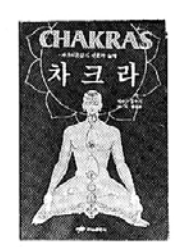


알기쉬운 불교 시리즈
###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값 13,000원

중생이 생활속에서 겪는 여러가지 일에 관해 때에 따라서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부처인 내가 말한것을 따르는 자는 진실한 나의 제자다. 부처인 내가 말한 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군의 권속이다. 부처의 경과 율을 따르는 이는 대 보살임을 알라.**
대반열반경 제 7. 사정품 〈12-64상〉

현암사 주소 :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 365-5051~6 / 팩스 : 313-2729



차크라 명상의 이론과 실제
### 차 크 라
하리시 요하리 지음
이의영 옮김
272쪽 / 값 8,000원

**차크라 〈CHAKRAS〉 에너지 전환의 중심부위**

- 사미디에서 모든 감각은 제 기능을 멈추고 신체는 나무토막처럼 움직 임이 없는 사실태로 남게 된다.
- 눈으로 본것, 귀로 들은 것, 코로 냄새 맡은 것, 혀로 맛본것, 피부로 느낀것 등은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감각의 물체는 신성한 존재로 변형되어 의식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남출판사 주소 : 강남구 신사동 541-18(애경 빌딩 301호) 전화 : 512-5787(代) / 팩스 : 517-3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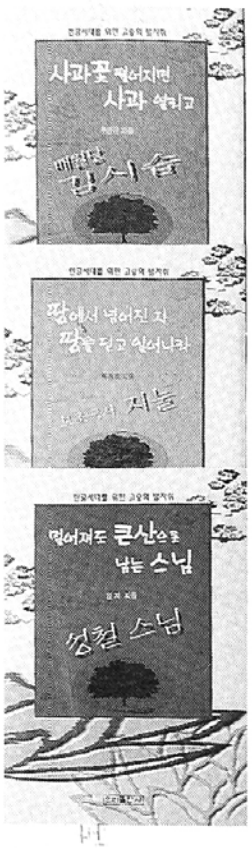


●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
### 돌부처
이근후 박사 지음
신국판/265쪽/값6,500원

**10여년간 남산의 돌부처와 함께한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돌부처 순례기 !!**

남산의 한 골짜기에서 홀연히 맞닥드린
돌부처의 미소
'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

출판사 여시아문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代) / 팩스 : 737-0697




# 한글세대 '고승시리즈' 눈길

## 김시습·보조국사·성철스님편 3권 출간

### 생애·사상 현대적 조명…총10권 계획

### 젊은 필자들 집필…자료토대 사실적 묘사

한글세대의 눈길을 끌만한 산뜻한 고승시리즈가 나왔다.

최근들어 '우리 것을 알자'는 문화적 욕구가 출판 영상 등 여러 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겨레의 큰스님들이 보여준 거룩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 시리즈가 첫선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10권으로 간행될 총서 중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매월당 김시습편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우봉규 저), 보조국사 지눌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류동호 저), 성철스님편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일지 저) 등 3권.

1600년 한국불교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큰 스님들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한 우리출판사(대표 무구)의 이번 고승시리즈는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삶을 살아간 고승들의 생애와 문화적 업적, 인간적 면모를 친근하고 알기 쉽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런 불교입문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하기 간편한 4·6판형이란 점도 부담없이 읽히기에 적합한 점이다. 특히 각 저자들이 모두 해당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전공한 30대의 젊은 전문필자란 점도 주목을 끈다. 사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 묘사로 어려운 고승들의 법어를 쉽게 풀이해 한글세대에 맞는 감각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젊은 작가의 역량이 요구된 것.

제1권 〈사과꽃 떨어지면…〉은 동화사에서의 깨달음 이후 1947년 청담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결사를 결행, 왜색화된 한국불교의 기강을 바로잡고 파계사 성전암에서의 8년간의 장좌불와로 수행인의 참모습을 보인 성철스님의 일생을 그렸다.

우리출판사는 9월까지 △용성스님편 〈풍금치는 큰스님〉(박상률 저) △부설거사편 〈허공에 매달린 물병〉(장은선 저) △초의선사편 〈푸른 암자의 노래〉(이미령 저) △무학대사편 〈부처 눈에 부처, 돼지 눈에 돼지 보인다〉(노희순 저) △이차돈편 〈하늘이여, 땅이여〉(우봉규 저) △경허선사편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김진무 저) △나옹화상편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김경춘 저)를 완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쁘라산나빠다 | 짠드라끼르띠 지음

### 용수보살 '중론' 주석서…원문도 실어




화제의 책

우리는 무명(無明)으로 인해 그 어떤 것이 마음 바깥에 실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은 동일한 것을 두고 그것이 실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다는 두 극단으로 내달을 수 밖에 없다. 〈중론〉은 이런 두 극단을 무너뜨려 모든 것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모든 것이 마음임을 보여준다.

짠드라끼르띠(月稱; 600~650)의 〈쁘라산나빠다〉는 용수의 〈중론〉을 주석한 책이다. 다른 주석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려한 문체와 해박한 지식은 물론, 유일하게 〈중론〉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담고있다는 게 장점. 짠드라끼르띠는 후대 티벳에서 쁘라상가학파의 창시자로 숭앙되고 있다. '쁘라산나빠다'는 '명료한(쁘라산나) 언어(빠다)'란 뜻이다. 역자는 박인성씨(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민음사 1만5천원〉

---

문화재 다루기 | 이내옥 지음

### 유물·고미술품 다루는 실무지침서




화제의 책

문화재는 종류도 많고 재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성질과 구조적 특징을 잘 파악해 거기에 알맞게 다루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손상을 입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내옥 학예연구관(국민대 강사)의 〈문화재 다루기〉는 섬세한 유물 및 고미술품을 다루는 다루는 실무 지침에서부터 여러가지 보관방법과 개개의 물질별 다루기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책이다.

특히 오늘날 빈번해 진 문화재 대여과정에서 어떻게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인가 등을 다뤄, '가짜 총통' 사건으로 문화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요즘 더욱 눈길을 끈다.

저자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머물면서 그들이 문화재를 다루고 보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열화당 1만원〉

---

### 일본문화의 원형이 된 우리 고대문화의 이모조모를 현장감있게 소개한 책 2권이 동시에 나왔다. 주강현씨(경희대 강사)의 〈우리문화의 수수께끼〉(한겨레신문사)와 양지승씨(진도실업고 교사)의 〈역사를 버린 나라 일본〉(혜안)이 그것.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역사를 버린나라 일본'

## 한일고대문화 안내서 2권 나와

〈마을로 간 미륵〉의 저자 주강현씨가 쓴 〈우리문화…〉는 금줄 없이 태어난 세대를 위한 우리 문화론이다. '미륵의 손가락에 숨은 뜻은' 등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화현상 15가지를 골라 재미있게 기술했다.

〈역사를 버린…〉은 일본문화의 원형이 된 일본속의 우리 고대문화의 현장을 구석구석까지 답사하며 쓴 역사 에세이물. 저자 양지승씨는 "일본인의 의식 속에서 역사는 버려졌다. 대부분의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형성된 한반도 멸시관 때문에 선조들을 버리거나 숨겨놓았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밝히고 있다.

---

## 출판소식…

### 출판·인쇄업 설립 자유화

올해중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35년만에 폐지돼 출판사 및 인쇄소 설립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를 설립할 때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출판사의 납본의무도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김기석 법제처장 주재로 96년도 법령정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 작년 1억4천만권 발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발간한 〈96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문화체육부에 납본된 일반도서는 2만7천4백7종에 총 1억4천4백18만3천6백7부로 출판불황탓에 94년보다 각각 7.2%, 5.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서는 5.8% 감소한 249종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443종이다.<본지 61호 참조>

---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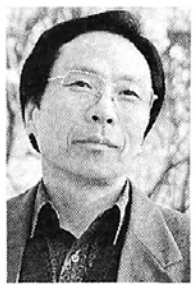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법 정 | 샘 터 |
| 2 | 그 마음을 바쳐라 | 김재웅 | 용 화 |
| 3 | 전생여행 | 김영우 | 정신세계사 |
| 4 |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 편집부 | 정 토 |
| 5 | 훨훨 털고 같이 가세 | 서 암 | 정 토 |
| 6 | 평화로움 | 틱낫한 | 장경각 |
| 7 | 금강경강의 | 무 비 | 불 광 |
| 8 | 달을 듣는 강물 | 김진태 | 해 냄 |
| 9 |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 정승석 | 대원정사 |
| 10 | 나를 보게 하소서 | 현 장 | 민족사 |

구입문의:(02)737-0695

---

명사추천 불서100선

## 혜초 '왕오천축국전'



안 문 길 〈소설가〉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천백여년 전 당나라로 간 신라의 유학승 혜초는 불사(佛師)인 인도스님 금강지의 권유로 열 아홉의 어린 나이에 천축국 구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당나라 광주에서 배를 타고 동천축국에 도착, 중·남·서·북 등 다섯 천축국을 답파하고 그 외곽의 여러 나라를 돌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 만리 대장정의 구도여행이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눈에 비치고 가슴에 닿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들을 〈왕오천축국전〉이란 책으로 남겨 놓았다. 교통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언어라든가 생활 풍습, 지리에도 밝지 못했을 그 옛날, 오직 두 발과 구도의 신념만으로 수 만리 대장정을 감행한 혜초스님의 강인한 의지와 불심에 마음이 숙연해짐은 물론 민족적인 자긍심마저 들게 한다.

'중천축국에서 남쪽으로 3개월 남짓 걸어가면 남천축국 왕이 사는 곳에 이른다. 그 나라 왕은 8백 마리의 코끼리를 소유하고 있다. 영토가 매우 넓어 남쪽으로는 남해,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 서해에 이르고 북으로 북·동천축국과 경계하고 있다.' ((왕오천축국전) 중에서)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가 중국 감숙성 돈황의 막고굴에서 가져간 여러 상자의 고서 가운데 발견된 〈왕오천축국전〉은 한 장의 두루마리였으며 상중하로 된 원본을 줄여서 쓴 절략본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프랑스 파리 국민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6천여 자의 짧은 글이며, 문학적 깊이라든가, 학문적 면밀함이 부족하다는 혹자의 지적도 있으나, 군더더기 말이 없이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에서 오히려 장문의 상상력을 펼치게 한다. 학문적으로도 그 당시 인도 불교의 정황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속·지리·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있다는 것을 들어 왔지만 실상 글을 대하게 된 것은 대학생이 되어서였다.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한 문고판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흥미를 가져왔던 만큼 곧 글속에 매료되어 속인에 지나지않는 나로서도 스스로 끝없는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착각에 빠져 들었다.

그 후 혜초스님의 족적을 따라 좀더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해 구상에 구상을 거듭한 끝에 〈소설 공무도하가〉를 탄생시키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소설 공무도하가〉는 〈왕오천축국전〉에 우리나라 시가와 설화 등을 접목시켜 꾸민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 하겠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인도여행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아직 때묻지 않은 세상을 접해 보려는 생각에서이리라. 그리고 쉽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다만 왕오천축국전을 읽어 보고 혜초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면 시공을 초월하는 멋지고 유익한 여행이 될 것이다.

## 간결한 문체로 적은 '구도의 길'

## 시공초월 선사의 발자취 여행

---

### 새로나온 책…












▲실크로드 사막을 넘은 모험자들(장 피에르 드레주 저)=초기의 불교신도는 상인이었다. 처음에 불교는 중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상인, 사신 또는 외국 포로나 망명자, 세랑크(동투르키스탄)를 다녀온 중국인을 사이에 퍼졌다. 동·서양 문명의 교류는 비단길, 향신료길, 도자기길 등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 탐험가들에 의해 이뤄졌다.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제4권. 〈시공사 6천원〉

▲반야의 가르침(송지호)=지혜의 삶을 인도하는 〈반야심경〉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경전의 설화와 설법까지 곁들여 자연스럽게 숨은 뜻을 파악하게끔 했다. 저자는 조계종 금당사 송지호법사. 〈대흥기획 6천원〉

▲취꽃 향기 너에게 주리라(황정원 저)=구도자로서의 관조와 성찰, 시인의 감성이 조화를 이룬 황정원 시인의 에세이집. 삶과 세상에 대한 예리한 성찰과 담담함,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따뜻한 감성이 돋보인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소설 관음사(윤형복 저)=시공을 초월해 전개되는 역사상의 고승·인물들의 행적과 신라 백제시대를 넘어 조선에 이르기까지 관음보살의 오색주와 함께 전개되는 한 인간의 역정이 흥미롭다. 〈삼원사 6천원〉

▲종교심리학 下(메리 조 메도우·리차드 D. 카호 저)=종교학과 심리학의 융합을 시도한 종교심리학의 명저. 종교적 현상을 우선 과학적인 심리학의 방법을 이용해 이해한 후 더 이상 설명이 부족할 때는 초월적 혹은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민족사 9천5백원〉

---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인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사 찰 안 내
절(포교당)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당 :25평 전세: 3300만원
연락처 (032) 656-7523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처료및교육내용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광고·출판 대행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문의와 상담을 전국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 광고대행 ◈ 신문대행
◈ 기획출판 ◈ 고급인쇄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편집,제작도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비전 전화(02)737-8891~3 팩스(02)737-8894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법륜사):대웅전 문짝 단집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단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단집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 찰 운 영 하 실 분
위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지: 1400평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방 3개)
사무실: 12평( 방2개)
주차장 : 200평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 완비 지장보살 기도 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卍 대승생활불교강좌 卍 제5기 개강 : 7月25日
1. 불교학 기본교리, 불교건강 ●매주 수요일 저녁6시 ~
2. 예불의식과 재불공 49재구병시식등 ●매주 목, 금요일 저녁 6시~
3. 풍수지리학, 주택 건물 감정, 묘지쓰는법 5운6기 명리학 사색궁합, 운세 길흉법
●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
*연구반, 고급반, 매주 화 수 저녁 7시~
◇강좌시간 : 각반 각 3개월, 선착순 30명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 분, 스님, 대학생 ,전공하실분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52-10 (서초역~2분)
구변호사회관뒤~홍부네슈퍼~소니(sony앞)
■ 접수문의 : 대표전화 (02) 523-0241, 마산분교 (0551) 52-4259
대한불교 대승종 대승생활불교대학

# 건강백세 ⑰

**뇌 (뇌졸증—③)**

**부분마비** 뇌출혈의 후유증이나 피떡이 혈관에 걸려서 일어나는 혈전성의 경우에 지장받는 뇌 부분의 기능에 따라 부분마비가 오게 된다. 한쪽 수족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세들이 온다. 혈전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피떡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전이 없어 애를 먹이기도 한다. 처음 증세는 별로 심한 것 같지 않은 중풍이 의외로 오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청혈제를 투여하면서 기혈을 회복시키는 약재와 마비를 풀어주는 구풍재를 결복시켜야 한다. 침구치료 역시 병행하는 편이 배가한다.




## 청혈제·침구치료 병행 마비해소
## 음식조절·운동으로 합병증 예방

보통 침구치료에서 우환좌취(右患左取) 좌환우취(左患友取)니 하여 장애가 보이는 반대측에 시침을 하는데 이는 뇌손상부위의 반대측 수족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현대의 학의 이론과 부합된다고 보겠다. 곡지(曲池) 수족삼리(手足三里) 합곡(合谷) 백회(百會) 풍지(風池) 임읍(臨泣) 중완(中脘) 등은 적절하게 응용하면 탁효를 보는 요혈(要穴)들이다.

**합병증** 장기간 와병하는데다 내장기 역시 부분마비가 오기 때문에 변비, 소화불량, 마비된 부위의 위축성퇴행증이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음식물의 선택과 마비부분에 대한 적절한 운동을 게을리 않아야 한다. 특히 마비된 부분은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조장치나 특수요법이 필요하다. 중풍변비에 소풍순기환은 특효를 볼수 있는 처방중의 하나이다. 침구요법은 중풍의 예방과 후유증치료에 탁효를 나타내 평소에 침구치료를 외면했던 사람조차도 중풍을 당하면 고려해 보는 치료수단이 되어있다. 그러나 발병후 약 15~20일간 치료해서 크게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침구의 매일 집중치료는 삼가해야 한다. 원기손상이 심해 역효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발병초와 응급기를 경과한 후 각종 후유증치료가 장기화될 상황이 되면 마비된 부분의 마목화를 막고 기혈순환을 돕는 정도로 간격을 두면서 시술해야 한다. 보법 사법을 막론하고 장기적 침치료는 기를 많이 소모한다. 보조요법으로 지압이나 맛사지 요법도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오리피, 오리혀, 기타 특효가 있다고 알려진 민간약재, 동물 등의 사용은 그 효력의 학술적 입증도 문제이려니와 환자나 가족을 현혹하여 물심양면의 고통을 강요되는 경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해로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뇌혈관이 회복되어야 후유증이 해소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용혈청혈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야 다소라도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 죽음을 이긴 어머니 ㊦

**주부신행담**



그림·이준석

## 어머니 위암소식에 슬픔이 북받쳐
## 늦은밤 법당찾아 폭포같은 눈물을 쏟았다.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잊혀졌던 부처님의 이름을 꺼내 주신건 시아버님이셨다.

어느날 느닷없이 내미는 종이봉투 속에 먹기좋은 크기의 말랑말랑한 인절미가 들어있었다. 평소에 떡을 좋아하는 내 생각이 나서 절에서 조금 얻어왔노라고 하셨다. 그때 처음 아버님이 절에 다니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기엔 꽤 먼 거리인 문산에 있는 절이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될 때까지 끝내 지켜지지 못하였다.

내가 결혼한 이듬해였다. 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낀 아버님은 기어이 입원을 하셔야 했고 몇 번의 대수술을 감당하시면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셨다. 와중에도 당신 손자 이름을 미리 만들어 주셨고 작은녀석이 잘라진 발음으로 '하부지'를 소리 낼 즈음 아버님은 이승의 인연을 정리하셨다. 투병중이던때에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사후에 당신 이름을 절에 맡겨 달라고.

묘하게도 인연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서 풀리고 있었다. 꽃꽂이를 배우고 있던 시누이가 강습선생님을 따라 실습나간 절을 가족에게 소개했고 우린 흔쾌히 아버님 49재를 그 곳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전답사를 다녀온 가족들이 절이 무척 맘에 든다고 이야기 할 때에도 나는 별다른 느낌없이 지나쳐 버렸다.

그즈음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아이 왼팔꿈치 관절이 부러지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골절 수술 후 입원치료 기간중에 아버님 49재를 맞게 되었고 불가불 큰아이와 나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속상하고, 죄송하고, 우울한 심정이야 어찌 형언할 수 있을까.

여하튼, 극히 자연스런 계기로 우리 가족과 부처님과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불제자로서의 이름표를 가슴에 붙히고 열심으로 절에 다니는 신입생이 되셨다.

부처님과의 만남 이후 내게 변화가 찾아왔다. 분주한 시간을 틈내어 그분 말씀을 읽고 느껴가며 풍요해진 무형적 만족감에 저으기 놀라고 있었다.

아직은 두아이 치닥거리에 절에 오를 기회가 쉽지않은 터라 아쉬움은 그리움으로 채워놓고 일년에 한번 사월초파일만은 세상이 두쪽나도 상관없다는 일념으로 아이들 챙겨 손잡고, 등에 업고 들뜬 설레임까지 가슴에 포개업고 숨을 몰아 절에 올랐다. 부처님 만나는날 기분이란 초등학교 첫소풍때, 며칠전부터 잠못이루던 기대감과 아주 비슷하였다.

구구절절 좋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창한 신도인냥 흉내를 내지만, 솔직히 참된 말씀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만을 그리워하는 철없는 신도임을 짐짓 미안해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 생활속에서 참으로 어이없이 끔찍한 불행이 찾아들었다. 친정어머니가 암이란 진단과 함께 시한부 삶을 선고받으신것이다. 급성위암이 간까지 전이되어 손쓸겨를도 없이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어머니의 고통앞에 잔인한 슬픔은 눈물마저 돌려 앉혔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노환에서 오는 합병증쯤으로 알고계셨기에.

30여년간 슬퍼했던 숱한 눈물의 곱절도 넘는 눈물을 마구 헐구고 훔치고 다녔다. 그 기막히는 서글픔은 어떤 수식어로도 설득력이 없으리라. 고작 할수있는 일이란 위장한 웃음으로 치료약의 효과를 강조하는것과 뒤돌아 오면서 펑펑우는 일밖에.

세상이 멈춰지고 시간은 먹빛인채로 올려다 본 하늘은 강물이었다.

주체못할 슬픔에 허우적일때 부처님은 홀연히 내게 오셨다. 아니, 절실한 무엇이 그 분을 찾아 부른것일까.

무턱대고 그분을 향해 달음질쳤다. 좌우가릴 여유도 잊은채 밤 늦은 시각에 산길을 헤쳐올라 법당문을 열었다. 발을 들이는 동시에 내 눈에서는 폭포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 경 희 〈수원시 송죽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㊳**

♦ Whosoever exalts himself and despises others, being mean by his pride,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깔보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n outcast,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 Brahmana;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by deeds one becomes a Brahmana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바로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 Know ye this in the way that this example of mine (shows): There was a Kandala of the Sopaka caste, well known as Matanga

나는 다음에 실례를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 This Matanga reached the highest fame, such as was very difficult to obtain, and many Khattiyas and Brahmanas went to serve him.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성을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 He having mounted the vehicle of the gods, (and entered) the high road (that is) free from dust, having abandoned sensual desires, went to the Brahma world.

그는 신들의 마차에 올라타고 허망한 욕망의 티끌로 부터 자유로운 대도(大道)에 들어서 범천의 세계로 가게 되었소.

* despise (v) 깔보다, 경멸하다
* sopaka (빠알리어)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
* fame (n) 명성, 명예
* vehicle (n) 마차
* deceive (v) (거짓말 따위로) 속이다
* mendicant (n) 탁발승, 거지

오증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돈 황 ㊂**
이노우에 야스시 作

## 과주성엔 절이 많았다. 조행덕은
## 강론을 듣고 경전번역도 하였다

홍경으로 향하는 조행덕은 하나의 슬픔을 안고 있었다. 감주를 절령한 직후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공포에 떨고 있는 위글왕족의 왕녀였다. 조행덕은 그녀를 숨겨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는 사이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고 그녀 역시 그랬다. 그녀는 조행덕이 홍경으로 향하기 전날 조행덕에게 '기다릴테니 돌아와 달라'고 했고 조행덕은 '그러겠다'고 했다. 여인은 몸을 허락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기까지하는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

홍경은 큰 도시였다. 조행덕은 그곳에서 원하던대로 서하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홍경 외곽의 절에서 서하문자를 익히며 서하글자와 한자와의 대조표를 만드는 일도 도와야 했다. 1년 반이란 시간을 홍경에 머무른 조행덕은 다시 감주로 돌아 왔다.홍경에서 그는 대조표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혼자 거리를 쏘다니기도 했다. 그런동안 그는 주왕례와 위글왕녀에게 한 약속이 새삼스러워져 감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주왕례는 "위글여자가 죽었으니 더 이상은 묻지 말라"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했고 조행덕은 절망했다. 왜 죽었냐는 질문에 대해 애써 회피하는 주왕례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바가 느껴 졌으나 이미 그녀가 이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사실인 듯 했다. 그러나 조행덕은 길에서 우연히 그녀와 조우했다. 그녀는 서하의 젊은 통솔자 이원호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조행덕은 주왕례의 험상궂은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위글여인은 조행덕을 모른체 했고 다음날 자결했다. 조행덕은 새로운 아픔을 곱씹어야 했다.



그림·심민섭

주왕례의 부대는 이동을 했다. 감주성을 함락시킨 이후 숙주성을 함락시켜 그곳에서 주변의 군소 군대와 싸움을 치르는 세월에 묻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 과주로 옮겼다. 서하에 대해 과주성의 태수 조연혜가 항복을 해 왔고 주왕례의 부대는 그곳을 향해 가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과주성에서 조행덕은 불교를 만났다. 과주성 태수 조연혜는 불교에 깊이 귀의한 사람이었고 성안에는 절이 많았다. 조행덕은 절에서 〈법화경〉 강론을 듣기도 하고 경전을 가져다 탐독하기도 했다. 성안은 살만했으나 성 밖은 온통 사막인 그곳에서 조행덕은 실컷 경전을 읽었고 불전의 번역일도 하게됐다. 그는 서하어로 경전을 번역하길 희망하는 조태수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고 홍경에서 함께 대조표를 만들었던 학자 여섯명을 차출해 오기까지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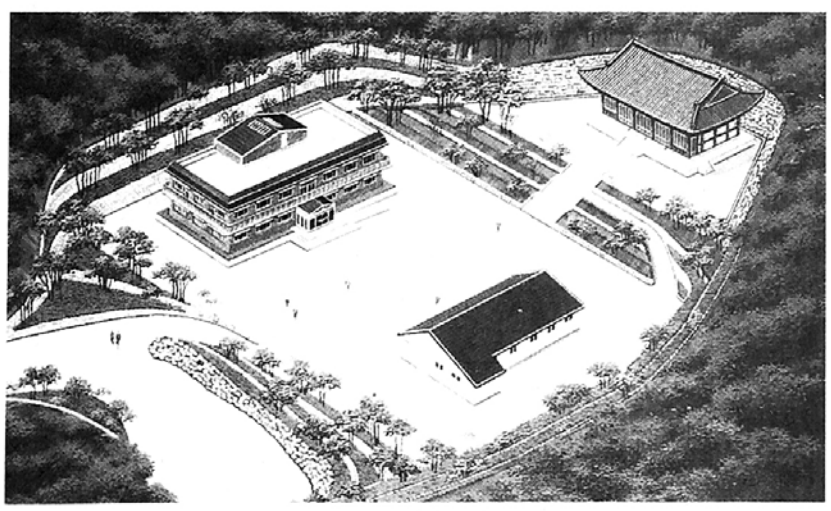
학자를 데리러 홍경을 다녀오며 조행덕은 울지광이란 젊은 대상과 인연을 맺었다. 그 대상의 틈에 끼어 홍경을 다녀 왔기 때문이었는데 울지광은 무척 지만심이 강한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장사꾼이었다.

그가 홍경을 다녀와 경전번역 작업을 하는사이 주왕례의 부대는 다시 소규모의 전투에 동원 되곤 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 다보수련원 개원 안내

◆ 多寶修練院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 거사 흉상 제막식 ◆



귀의삼보하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청정수련도량 多寶寺 多寶修練院의 건립공사를 마치고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거사 흉상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 돈 각

**일시:** 불기 2540년 7월 20일(토) 오전11시

**장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 당일 아침 7시 정각에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불교방송)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참하실 불자님은 7월 15일까지 연락하여 주시면 좌석을 지정하여 드립니다. (연락처/02-719-1855)

財團法人 大韓佛教振興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02-719-1855, 6 FAX/02-719-5052 ■ **다보수련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 17-1 TEL/0445-33-7789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 다보수련원 개원 기념 '96 여름수련회

다보수련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모든 불자들이 스스로 청정해지겠다는 서원을 통해 지계와 보시의 실천지침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신행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전개되고 있는 "청정운동-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96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구 분 | 기 간 | 모집인원 | 신청마감 | 대 상 | 동참금 |
|---|---|---|---|---|---|
| 지도자수련회 | 8. 5~8. 7 | 70명 | 7. 25 (목) | 신행단체지도자 | 본원부담 |
| 1차 수련회 | 8. 12~8. 14 | 70명 | 8. 2 (금) | 성인 누구나 | 오만원 |
| 2차 수련회 | 8. 19~8. 21 | 70명 | 8. 9 (금) | 성인 누구나 | 오만원 |

◆ 초빙강사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제언"
권기종 박사(동국대 교수) ····· "대승 불교의 요체"
김정빈 선생(소설 '단' 작가) ····· "부처님 당시 수행법의 실제"

◆ 준비물
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운동복 4. 동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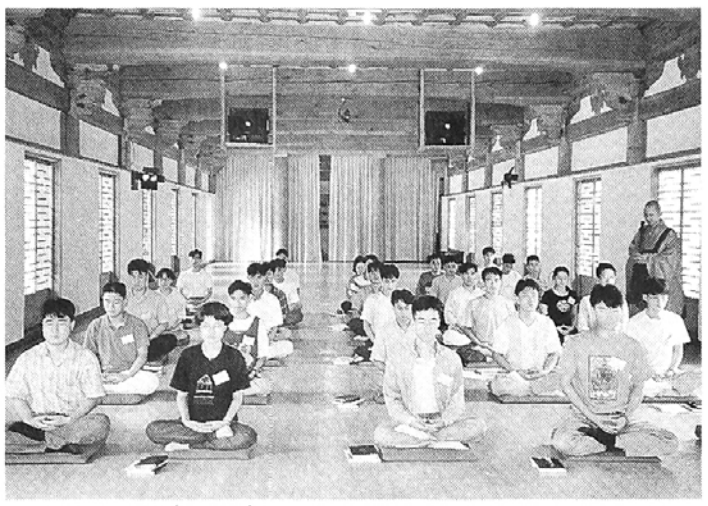
◆ 참가신청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02-719-1855, 괴산 다보수련원 0445-33-7789

**다보수련원 이용안내**
불교신행단체의 이용뿐만아니라 불자가정과 일반인에게도 항시 열려 있습니다. 이용 15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는 30일전)

## 호기심으로 동참…108배·좌선…진지해진 눈망울

# "학점보다 소중한 자기반성 기회"

**동대생 33명 「2박 3일 직지사생활」**



◇단기출가를 통한 '산사생활'에서 좌선에 몰입해 있는 동대생들. 직지사에서의 3일은 불교의 정신세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한여름속의 가을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깊은 산중 직지사 설법전.

좌선을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는 학생들마다 다리를 곧추세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날(5일) 난생 처음으로 해본 108배와 몇시간의 좌선으로 다리에 '알'이 밴 것이다.

손을 씻은 후 다시 설법전에 모였다. 둘째날 점심시간. 발우를 앞에 두고 나란히 둘러앉은 학생들은 이미 세번의 경험을 한탓인지 발우공양 예법에 익숙한 듯 손놀림이 매끄럽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환경오염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불교가 이렇듯 진작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었음에 탄복하는 눈치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황악산 직지사에 개설된 1학점짜리 교양과목 '산사생활'. 이 과목을 수강한 33명의 동국대 학생들은 법요집을 하나씩 들고 좌정한 채 지도교수 현각스님(동국대 교수)의 새벽예불 및 108배 참회, 강의(반야심경, 부처님 생애)와 좌선, 발우공양으로 이어지는 산사일정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양과 휴식시간도 잠시. 하늘같은 학교선배 이양길 법사(직지사 연수원장)의 강행군 강의 앞에 학생들은 또다시 긴장한다. 부처님세계와 믿음, 불성 등 기초적인 불교 신앙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다. 그러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과 108배를 올린 탓에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이법사의 죽비소리가 계속해서 허공을 가르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자신을 추스리려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곧바로 이어진 오후 좌선시간.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초가 되어 버릴듯하던 학생들의 자세는 거의 흐뜨러짐이 없었다. 무엇을 화두로 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지극한 삼매에 빠져 있다.

입제식을 마친 첫날 저녁, 이번 '산사생활'을 수강하게 된 동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을 즐기고(?) 있다. 학생들의 산사생활 마지막 밤은 이렇게 그들의 갖가지 발원을 담아 황악산 골짜기를 덮었다.

7일, 직지사를 떠나기 직전 경내를 둘러보며 참가학생중 유일한 1학년생인 최현선양(불교학과)은 "좌선과 108배가 제일 힘들었지만 불교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2박3일의 소감을 말한다. 4학년 선배인 안영실양(회계학과)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같은 수련회에 또다시 참석하고 싶다"며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직지사=한명우 기자

## 청소년 게시판

### 대불청 지도자연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8월2일~4일까지 전주 송광사에서 제13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교육에는 1백50여명의 불교청년지도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며 특강(선수행), 공동체놀이, 사례발표(지역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길잡이), 울력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02)738-3386 7

### 구로복지관 여름캠프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오는 31일부터 8월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연관찰, 극기훈련, 역사탐험(하회마을 안동댐 민속박물관) 및 미니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02)852-0525

### 어린이 지혜한마당

금강경독송회는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하계 어린이 수련대회를 실시한다. 어린이 지혜한마당으로 펼쳐지는 이번 수련대회는 공동체 놀이, 불교유적탐방, 수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2)742-0172

## 컴퓨터공학도등 19개학과생 일정따라 '질서정연'

## "문화유산 숨쉬는 현장서 알찬 방학을…"

# 박물관학교 속속 개관

## 문화재감상·공예품 만들며 '나라사랑' 고취

## 광주·청주등서 청소년·성인대상 무료 강좌

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과 전문박물관들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광주박물관**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민문화강좌를 연다(062-571-7112).

오는 22일부터 5일간 개설하는 '전통문화의 이해'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2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청소년 문화학교', 29일부터 3일간 '엄마와 함께 듣는 문화교실'도 진행된다. 청소년 문화교실의 강좌 내용은 우리나라의 도자기, 한국의 불교미술, 문화재 사랑스케치및 글짓기를 비롯 화엄사 천은사 답사 등 다양한 문화교양강좌가 준비되고 있다.

**청주박물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여름철 어린이 박물관 공예교실'을 대대적으로 펼친다(0431-55-1632).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을' 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청주박물관 공예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강좌내용은 토기, 부채, 가죽공예, 한지공예 등이며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학부모를 동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속공예는 불사리장엄연구, 한국의 범종, 백제의 금동향로와 사리감 등 우리나라의 금속공예의 기본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편성돼 있다. 한편 청주박물관은 8월 4일까지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주박물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고생 2백명을 대상으로 제7회 청소년 강좌를 마련한다. (0652-223-5652) 이번 강좌에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바다와 제사, 전북지방의 불교조각·역사·민속 도자기 등 전북지방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강의가 진행된다.

**경주박물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개최한다(0561-772-2107). 무료로 펼쳐지는 박물관교실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며 경주시 일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중근 기자

만화

# 法句經 법구경

* 코끼리의 장 *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이 항 원





#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시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떳떳한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 6cm×7.5cm




■크기 : 3.5cm×10.5cm

※ 차량 부착시는 「불자의 집」 글씨 대신 「우리는 불자」가 들어갑니다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보급방법**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크 기** 3.5cm×10.5cm, 6cm×7.5cm

**보 급 가** 1개당 1,000원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 "몽골불교가 복원된다"

## 우리는선우 울란바토르에 '한-몽불교문화원' 개원
## 몽골정부 법적 뒷받침…한국 경제적 지원 합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산실이 마련됐다.

한국과 몽골의 불교교류를 통해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몽골의 전통문화와 역사 복원에 기여하게 될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 6월24일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개원됐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몽골의 스님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개원으로 공산혁명 이후 75년간 맥이 끊긴 몽골불교의 복원 추진과 함께 약 500년간 중단된 한-몽 불교유대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연구원 개원에 앞서 우리는선우 남지심공동대표를 비롯한 최돈순 진명희 박길훈씨 등 한국 대표단 4명은 몽골 오치르 밧트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자리에서 오치르 대통령은 "불교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몽골 불교문화 예술 복원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문화연구원 활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몽골 스님들과 정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개원식은 몽골 최대의 사찰 간단사에 주석하고 있는 총무원장 최참죠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는선우 남지심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한편 문화연구원 사무실은 1차 을란바트로에 4층건물을 마련 기존 불교미술대학과 함께 들어서며, 재원이 확보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비로 한국측에서 매달 800불씩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몽골측 추진 인사로는 총무원장 최참죠스님, 불교미술대학학장 프로밧스님, 문화재관리위원장이며 예술갤러리 관장인 띠신발당씨, 전통문양연구원 박란철웅박사, 앗킴 '일덕초신문' 발행인을 비롯 재야 민속학 문학 풍속 전통의상 사학자등 14명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은 우선 사업으로 전문연구위원이 중심이돼 몽골역사와 전통문화에대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몽골불교고등학교 불교미술대학을 지원하고,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통한 교육과 유학생교류 및 기술연수생의 한국연수의 주선 등을 펼치게 된다. 그밖에 보건소 설치 운영 등 사회사업과 문화연구원 재원마련을 위해 농장운영과 조림사업 및 독특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은 우리는선우가 지난 94년부터 시작한 국제불교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승보공경 선우회와 국제선우회가 중심이 되어 결실을 보게됐다. 이미 94년부터 캄보디아 승단 및 불교계 지원에 이어 95년 미얀마 불교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위영란 기자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이 울란바토르에 개원됐다. 사진은 개원식 장면. 오른쪽부터 남지심씨, 최참초 몽골총무원장, 박길훈씨, 프로밧스님.

### 방송가 소식



#### 印 칼라차크라 법회

북인도 쿠루마날리 따보사 창건 1천년 기념으로 열린 칼라차크라 법회가 지난 12일 불교TV '생방송 날마다 좋은 날'에서 화제의 현장코너로 소개됐다. 달라이라마와 정우스님의 인터뷰 장면(사진)도 소개된 이날 방송에서 달라이라마는 "한국불교와 티벳불교는 쌍둥이와 같은 존재"라는 말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 서암스님 산중대담

불교TV 산중대담 '뜰앞의 잣나무(PD 신현중)'는 오는 20일 오전 10시15분 서암스님을 만난다. 이 프로에서는 80세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여전히 법을 구하는 제자와 신도들에게 칼날같은 수행을 보이고 있는 서암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 동국TV 불교아카데미

오는 9월2일 불교TV 채널 32를 통해 개강되는 '동국TV 불교아카데미'의 모집요강이 발표됐다.

1년(2학기)제로 운영되는 동국TV불교아카데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교TV를 통해 방송된다. 교육과정은 중국불교의 전개, 한국불교의 발전, 인도불교의 흐름, 불교미술의 이해, 아함의 가르침, 대승불교의 기원과 발전, 대승기신론 강좌, 선의 이론과 실제, 세계의 종교, 불교사회학등이다. 방송매체의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교육으로 개설된 동국TV 불교아카데미는 오는 8월2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편 동국TV 불교아카데미는 지난 15일 동국대학교내 스튜디오에서 첫녹화에 들어갔다.

#### '백팔가요' 방학특집

불교방송 백팔가요가 여름방학맞이 특집 공개방송을 마련했다. 오는 21일 낮12시10분에 방송되는 특집 공개방송에는 소방차, 녹색지대, 마로니에, 글론, 덩크, 이은저 등 국내 댄스가수와 그룹들이 출연해 여름방학에 얽힌 이야기들을 공개한다. 사회는 개그맨 남희석씨가 맡았다.

'불교문화연구원' 산파역 남지심씨

## "국민 90%가 불자인 나라 마을마다 사찰건립 소망"



"현재 몽골은 해방직후 우리 실상과 흡사했습니다. 먹고사는 일이 큰일이더군요. 그런 속에서도 감동을 받은 것은 90%이상이 불자인 국민들의 소망이 마을마다 절 하나씩은 갖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에 산파역을 해낸 남지심씨.

94년부터 캄보디아 미얀마등 공산혁명으로 불교전통의 맥이 끊긴 불교국가들과의 국제교류활동을 펴오면서 이번에 몽골과 본격적인 교류를 튼 것이다.

2년전 "국제불교교류를 시작하면서 불교문화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몽골부터 문화원 1호가 개원된 것은 몽골스님과 결혼해 현지 불교문화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김선정교수의 역할이 컸으며, 아무래도 인류학적으로 우리와 같은 뿌리라는 인연이지 싶습니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의 설립 이념은 여느 문화원과 차원이 다르다. 한국불교를 심는 것이 아니라, 불교교류를 통해 몽골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되살리는데 있다. 여기에는 우리는선우가 펴고있는 국제불교교류 활동방향에 기인한다.

"몽골의 정신적 복원은 결국은 불교복원입니다. 출가승단의 법계조차 정립이 않된 현실에서 전통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몽고전통과 역사가 되살아나게 하는것이 진정한 불자다운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각나라마다 그 나라 불교를 꽃피우는 것 그것이 지상과제이며 화엄세계가 아닐까요?" 남지심씨의 설명이다. 그래서 훗날 "몽골의 역사가 한국불교를 통해 몽골정신이 살아났다"고 평가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 화성 그린벨트내 경로당 신축
## 원융종-주민 마찰 '법정 소송'

원융종(총무원장 일공)이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1리에 공사중인 경로당 신축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원융종의 경로당건립은 그린벨트지역에서 그린벨트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한마을에 한곳만이 허가되는 경로당으로 허가받아 공사하려다 주민들과 의견이 대치돼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기1리에 94년 5월 원융종 총무원장 일공스님은 매입한 논 8백66평을 무단성토하고 계곡을 무단절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스님은 94년 11월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유일하게 허가되는 경로당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해 왔던 것이다.

일공스님은 "법인 소유의 땅에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포기해야할 상태"라며 "법도 모르는 주민들만 막대한 손해배상비를 물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스님의 경로당건립 예정지가 마을에서 2㎞나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립과정에서 일공스님은 고발돼 있으며, 길을 막았던 마을주민 5명은 공사방해로 6천5십만원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목탁소리

## 누가 '법왕'인가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법왕'이 누구인가. 법을 설하는 주왕이라는 뜻으로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 칭호다.

그런데 지난 92년 경보스님이 '법왕'을 자처하는 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법왕' 문제가 4년만에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법왕' 문제는 경보스님(일붕선교종 종정)의 입적과 함께 '올 것이 왔다'는 시각이다. 또한 경보스님과 관련 '결자해지'의 수순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왕'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92년 경보스님이 "세계불교도들에게 세계평화의 의미를 전파하고 교황청과 같은 불교세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법왕청을 설립한 뒤 스스로 법왕에 등극하면서 부터다. 당시 기성교단의 반발이 표출됐으나, 경보스님이 교계 원로 지도자라는 명분으로 미묘한 반목의 분위기에서 '법왕' 문제에 대해 논란 자체를 삼가하며 지냈다. 어찌보면 '방치'의 측면도 강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이 사안이 경보스님의 49재도 끝나기 전에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 서글프기조차 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모스님이 법왕 추대식을 가짐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말이 난무하다. 교계를 꿰뚫고 있다는 모씨는 "경보스님 49재가 끝나면 법왕청내의 분란은 피할 수 없을것"이라며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법왕추대와 관련한 세력다툼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 군소종단이나 임의 단체 성격의 종단들이 법왕추대에 발벗고 나서는 사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나아가 세계를 누비며 "불교 법왕이네"를 자처하며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답안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법왕' 문제는 그저 착각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안이라는 수위를 넘어섰다. 이제는 불교계가 교권 호법수호를 위해 단호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 법왕'이고자 애썼던 경보큰스님을 제대로 기리는 일도 되리라고 본다.

가야산 골프장

## 팔만대장경 치명적 영향
### 생태계 파괴·온습도변화 '학계우려'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생태계 파괴로 초래되는 온·습도 변화와 골프장 관리를 위한 엄청난 양의 지하수·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이 해인사 장경각에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 해인사 대장경 학술조사단에서 2년여에 걸친 대장경판과 해인사 장경각 건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온·습도 및 통풍, 번식생물 등의 요건이 대장경 보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과학적인 조사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골프장에 뿌려질 연간 4천~5천㎏의 농약은 팔만대장경 보존에 결정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지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과의 거리는 3.5㎞에 불과하다.

이태녕 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가야산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팔만대장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찬란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곳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 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때 해인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우〉

생활 속의 불교 ㉛

# 언제나 흐린 날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슬**픔은 슬픈 생각으로 더 깊어진다.

근심은 불안한 생각 때문에 더 커진다.

분노의 불길은 그 성냄으로 인해서 더욱 치성해진다.

생각에 생각이 보태지면 보태질수록 그 생각은 크게 자라난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을 꼼짝 못하게 사로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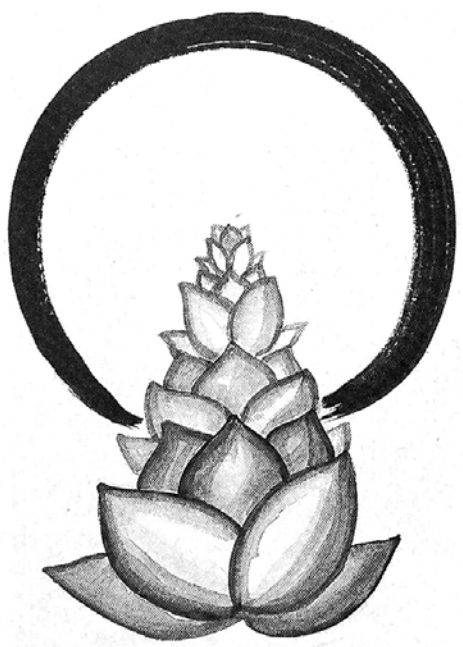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을 되돌아 보기란 쉽지 않다. 발목이 빠진 그 순간을 알아채고 뛰쳐 나오기란 더욱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젖까지 잠겨서야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된다. 끝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계를 불타는 집으로 비유하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택 속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른 채 놀이에 빠진 아이들과 같다고 하셨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중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화택 밖으로 끌어내려 하심이다. 그러나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타는 집에 머물며 하루하루 탐진치 삼독의 불을 지피고 있다. 스스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여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량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닥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뛰쳐 나갈 방도를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게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택에서 뛰쳐 나오는 길은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다. 생각을 끊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내려 놓는 것이다. 바른 생각으로 안팎을 살펴서 그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의 뜻을 찾는 것이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본래 내것이 아닌 그의 것이 그에게 갔다고 생각하라.

괴로움이 찾아 왔다면 그것은 나의 삼독심이 불러 들인 것으로 생각하라. 슬픔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어쨌든 내가 겪어야 할 일, 나의 탓으로 돌려라.

한 생각 돌림으로써 생각은 자라지 않고 사라진다.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점점 자라나던 생각도 바르게 살펴서 돌리면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또는 단숨에 자취를 감춘다. 화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게 닥친 괴로움, 슬픔, 근심걱정, 분노는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나를 한 차원 높게 진화시키고 보다 완숙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기회이다. 불난 집에 갇힌 나를 집 밖으로 끌어 내는 자비의 손길이기도 하다.

모난 돌이 둥글어지려면 정(釘)을 맞아야 하듯이 사람이 원숙해지는 데도 고(苦)라는 정이 필요하다.

**언**제나 흐린 날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어쩌다 만나게 될 궂은 날도 하루 이틀 지나면 맑게 개인다. 그걸 안다면 구름 낀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그냥 구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 붙잡아 두려 하지만 않는다면 태양을 볼 날이 곧 찾아온다.

놓고 가는 삶 - 그것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아름답다.

협찬: 남창기 · 윤한배 · 한기성

## 현불뉴스

### 사찰농토 비과세 불가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요청에 대해 "전통사찰이 장래의 불확실한 용도를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원칙에 맞지않고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 배치되어 농지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실명전환토지 98.8%

조계종 중앙부동산실명제대책반(반장 원우·재무부장)은 명의신탁토지의 실명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6월30일 현재 제3자에게 명의된 조계종 소유 사찰토지(공찰) 9백 32만여평(7백5필지)가운데 98.86%인 9백21만여평이 실명전환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11명에 장기기증 주선

생명나눔실천회가 올 상반기동안 11명의 환자에게 신장 및 각막등 장기를 기증, 새생명을 찾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이사장 법장스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기증사례를 밝혔다.

### 은해·불국사스님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은해사 불국사 본말사 주지스님연수회를 제10교구본사 은해사에서 개최했다.

### 25일 불자교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불자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사회병리와 불교적해석(정락스님), 우리 삶에 스며 있는 불교(윤청광씨), 사찰문화 해설(신영훈 불일문화원장) 등의 강의와 참선, 운수암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일붕문도회 활성모임

1965년 초에 결성된 일붕문도회는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에서 문도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 어린이 연꽃운동회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제주지구(지구장 인성스님)는 지난 14일 제주농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3회 연꽃운동회를 개최했다.

# 유네스코 가야산 골프장 반대표명

## 해인총림등 5개대책위 건설저지 규탄대회

## 취소판결 사법부 비난…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해인골프장 건설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인총림대책위 등 각 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인총림대책위 스님 5명은 10일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방문해 골프장건설로 인한 팔만대장경 훼손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보존과학회, 문화재위원회 등과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해인대책위원장 성법스님(해인사 주지)을 비롯해 선원 강원 율원의 대표자스님들은 확대회의를 통해 허가-취소-허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불교계 및 해인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결론짓고 대책위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총력저지를 다짐하는 한편 골프장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현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이어 대책위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종단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청와대를 비롯 내무 문체 건설교통부 등 13개 정부부처에 진정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교구본사에 '가야산 골프장 사업승인 철회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해인총림대책위원회,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 5개 대책위는 지난 6일 소속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서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범시도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해인골프장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법부는 시대착오적 판결 즉각 철회 △(주)가야개발의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상기한 건설계획 철회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해인사강원 80여 학인스님을 비롯 '결사반대' 구호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른 회원들은 이날 '불교성지 가야산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등의 플랜카드를 내세우고 골프장건설이 완전백지화 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공동대책위는 유인물을 통해 각 대책위별 골프장건설 저지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대구경북대책위는 주1회 가두캠페인, 사업주 항의방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문체부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불자 1천여명은 6일 백운리 집단시설지구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골프장건설이 백지화 될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 선암사 인근아파트 조성 '규탄'

## 스님·신도 1백여명 주공본사서 평화시위

선암사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판사의 조정회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고층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선암사 종교용지 경내지 2만3천평을 강제수용 벌목, 심지어 법당까지 파헤치자 선암사 스님 신도 1백여명이 지난 10일 상경, 주공의 공사강행을 규탄하며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73호 19면〉

이날 '전통사찰 선암사 도량수호 및 자연보호대회'는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 현정부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등을 채택하고 △선암사 소유 토지수용 철회 △종교자유에 반한 위헌적 행위 중단 △환경권 보장 △전통사찰의 유용을 파괴하는 개발제일주의행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주공 사장에게 전달했다. 또 논현동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무폭력 시위를 5시간여에 걸쳐 전개했다.

한편, 선암사는 부산지역 제단체들과 연계해 오는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연합법회를 봉행, 종교환경권과 녹지대 파손을 자처하는 주공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 "성폭력을 근절하자"

### 불교, 공동대책위 동참

10대소녀 집단성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7개 종교 교육 여성민간단체로 구성된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진관)'가 지난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의 도덕성회복을 위해 활동을 개시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을 위해 구체적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공동대책위는 자체 근절책 마련과 함께 교육당국에 대해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사후대책마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학생들이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상설 고발전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시카고서

## 7월27일~8월3일 월주스님-달라이라마 회동할듯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와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통해 21세기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

불교-기독교연구협회와 시카고 디파울대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세계적인 종교사회운동가가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불교측 특별초청인사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티벳승왕 달라이라마, 캄보디아 불교지도자 고사란다스님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세계적인 인권 평화운동가인 태국의 슐락 시바락샤, 스리랑카 사회운동가 아리아 라트나 등이 본회의에서 연설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의 윤리학 △카톨릭과 불교의 대화 △불교와 기독교 △토마스 밀톤 △여성과 종교 △미디어 공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등 13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풍족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 △21세기종교의 문제점과 대안 △위기의 도시 전쟁하는 나라 등 9개 소주제를 놓고 토의한다.

한국측에서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 법륜스님(정토불교회) 유정길사무국장(불교환경교육원)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와 불교계의 남북통일을 설명하고 월주스님이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 갈등 '해결'

## 현대건설 41억원 합의금 확정

현대건설이 조계사에 대웅전을 비롯한 해탈문 문화교육관 등의 복구비로 4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일보 신사옥 건설로 인한 대웅전 등의 붕괴진행으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완전 마무리됐다.

조계사와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조계사 교화사무국에서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해탈문 문화교육관 등의 복구비지급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라 41억원을 합의금으로 확정했다. 또 총무원이 계획중인 총무원청사 신축공사시 다른 건설사와 같은 조건이면 현대건설에 우선해서 시공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은 이날 현금 8억원을 조계사측에 지급했으며, 잔여액 31억원은 10월 9일까지 세차례에 나눠 지급키로 하는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 황룡사·감은사 복원 '청원서' 제출

## 불국사, 청와대에 모형도등 자료제시 정책화 요구

경주시가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 복원작업을 추진(본지 81호 보도)중인 가운데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이 지난 9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불사 청원서'를 접수시킴으로써 그동안 몇차례 거론됐던 두 사찰의 복원논의가 본격화됐다.

설조스님은 청원문에서 "황룡사와 감은사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가람으로 이들 사찰의 복원불사가 불교도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자료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최근 복원 모형도가 제작되는 등 복원자료가 분명한만큼 복원불사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폐사지의 당해 시·도와 문화재관리국은 복원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과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복원을 반대해 왔다. 또 문화재 전문가들도 불충분한 자료로 추정에 의해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는 복원에 필요한 비용담당은 물론 최근의 연구성과를 들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교문화와 호국정신이 이룩한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히는 황룡사와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감은사 등은 신앙적 측면에서도 다시 복원해 신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청원서제출은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와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던 강화 선원사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의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정부측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불교 해난구조봉사단 가동

## 13일 발대식…사고예방·후속처리등 만전

각종 해상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봉사단(총재 월주스님)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스님)은 지난 13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해난구조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해난사고 예방 및 후속처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서했다.〈관련기사 76호 15면〉

이날 발대식을 가진 해난구조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불교계뿐 아니라 대사회적인 해난사고에 대한 예방캠페인 및 구조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해양재난사고 처리 및 해양 환경보호에 선두역할을 담당한다.

복지재단은 해양구조자원봉사단 구성에 이어 산악재난인명구조자원봉사단을 결성, 사회봉사활동의 새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음** 생각을 모두 놓으면

나라는 생각, 내것이라는 생각, 목신·아만·이기심, 내게 이롭다는 생각을 모두 놓으면 진리는 구하지 않아도 제발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보소식을 먹으러 산넘고 물건너 헤매다가 돌아와 보니 뜰앞에 매화가 벙그러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한마음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심산유곡 山蔘

佛心의 香氣로 그윽한
한 佛子가 山蔘을 캤습니다.
修行중에 고생하시는 분께
布施하는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 (0416)841-6576
山 僧 合掌

수련원 운영하실분

※【1】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대형버스 마당까지 진입할수 있도록 포장 완료
수련원 및 노후 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전원속에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 능력 구비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수가 조화를 이룬 명당
현재 사법, 행정고시원및 수련원으로 이용중

■ 부 지 : 10,344평
■ 건 축 물 : 총평수 354평 (건물 6동)
■ 위 치 :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 거리

※【2】
서울소재
서울 도심지 소재
교통의 중심지,
포교원으로 좋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창 건 : 약 10년
■ 대 지 : 90여평
■ 건 물 : 160여평(3층빌딩)

※문의처 : 02) 233-2500
0338) 71-8210 , 011-279-4600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중국에서 선종은 당·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96 불교서적 종합목록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불교서점이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秋月龍珉·秋月眞人 著/慧 遠 譯/신국판 양장/값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비를 위하여 훌륭한 자녀를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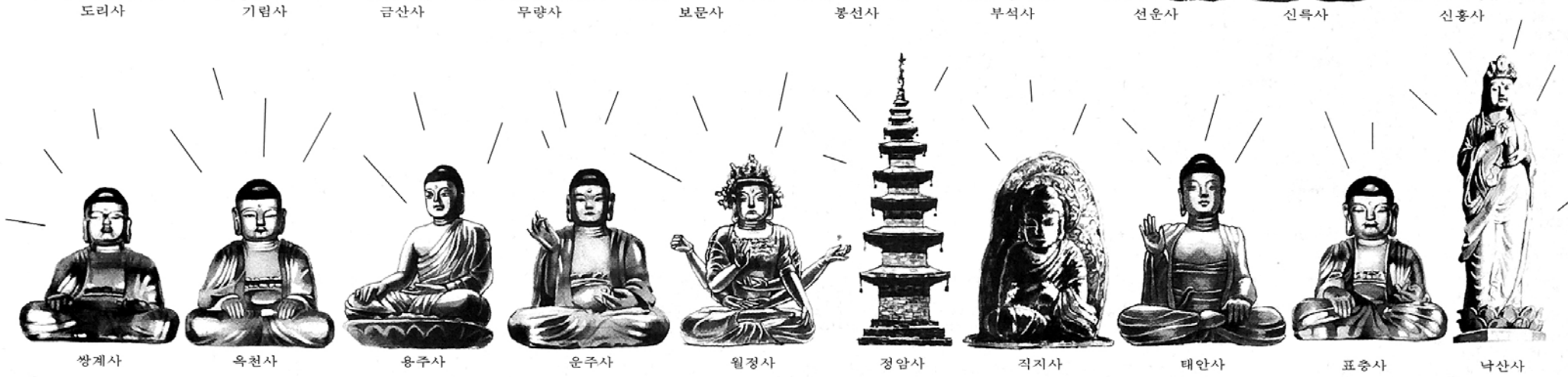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 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한국의 명찰」 시리즈 20선!*
*「한국의 명찰」에는 불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20set / ₩330,000원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믿을있는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